

논어 에세이 공모전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지(智) - 지혜



CONTENTS

• 대 상

엄마가 알려주신 인생 공부, 學而時習之不亦說乎! | 정치외교학과 06

• 최우수상

21살의 知 - 志學과 立의 사이 | 국어국문학과 14

선택의 1차 관문 | 국어국문학과 19

공자께 올리는 편지 | 기계공학부 24

• 우 수 상

지에 대한 논어에세이 | 소비자가족학과 30

지(智)를 지(智)향하자 | 의예과 37

허세부리는 남자 | 건축학과 45

기쁘지 아니한가 | 글로벌경제학과 54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자 | 신문방송학과 60

논어를 통해서 본 '배움'의 의미 | 경영학과 65

• 장 령 상

스노보드가 알려주는 것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72

똑똑하게 | 경영학과 80

다시 뵈 그날까지 다할게요 | 경영학과 85

대학생을 위한 '지(知)'의 자세 | 약학과 90

진정한 배움에 도달하기까지... | 글로벌경제학과 97

배움에서 열정을 찾다 | 기계공학부 101

영어듣기, 담임선생님, 새로운 학습관 | 전자전기공학부 105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공부 | 한문교육과 111

지(智)에 대하여 | 문헌정보학과 119

우리 사회에 필요한 (知) | 화학공학부 126

아프니까 청춘이다? | 신소재공학부 133

아픔 속에서도 배울 수 있기에 청춘이다! | 신소재공학부 133

반쪽자리 배움 | 문헌정보학과 140

배움에 관하여 | 행정학과 150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 기계공학부 157

위기지학(爲己之學)에서 위타지학(爲他之學)으로 | 전자전기공학부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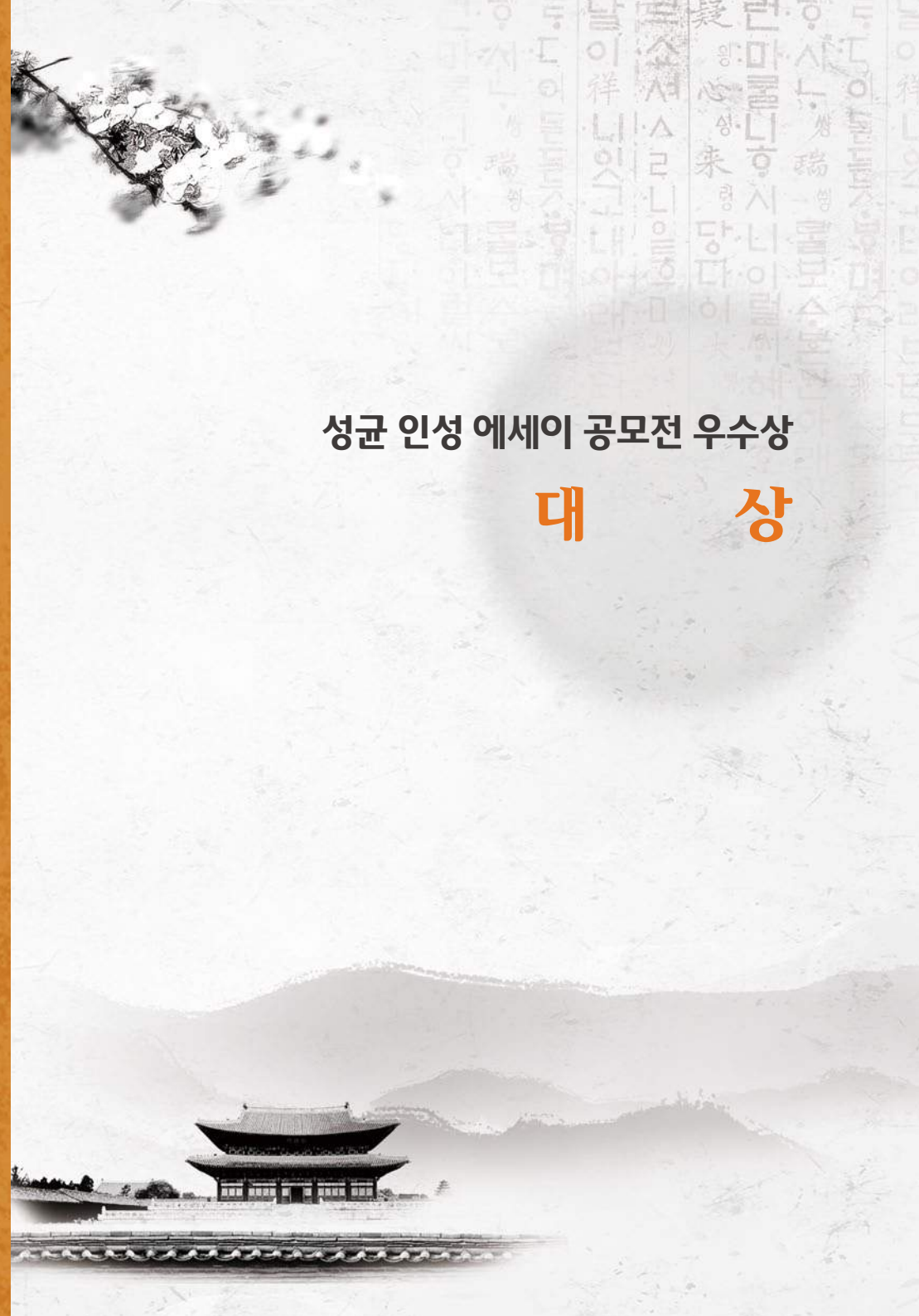
-공부를 왜 하는가?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대 상



엄마가 알려주신 인생 공부, 學而時習之不亦說乎!

| 정치외교학과

엄마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셨다.

주방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면 엄마는 항상 커피 한 잔과 살짝 데운 빵을 챙겨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곤 하셨는데, 이제는 책장 넘기는 소리보다 피아노 건반 뚜껑을 올리는 소리가 더 잦아졌다. 사실, 나는 그 피아노를 지지리도 싫어했다. 공포 영화에 등장할 법하게 지나치게 커다랗고 시커멓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그랜드 피아노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 집 떠나 서울 생활하는 탓에 몇 년 전만큼 매일같이 볼 수 없어지면서 아련한 애뜻함이 생겨서일까. 그렇게 이유가 단순하기엔 엄마와 피아노에 얹힌 추억이 정말 많다.

우리 엄마는 피아니스트이다.

기억하건대, 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엄마 무릎에 앉아 아무 건반이나

눌러보면서 처음으로 ‘우유가 맛있다’라는 말에 노래를 붙여 불러보았던 것 같다. 재미있었다. 그렇지만 내 몸뚱이가 점점 커져서 발이 페달에 닿을 수 있을 즈음, 자세를 교정해주시려는 엄마의 손짓 하나하나에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손이 늙는다면 팔목을 바로 세워주시는 엄마의 손길에 짜증을 냈고, 똑같은 부분을 틀릴 때마다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작지만 강한 목소리에서 공포감마저 느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훈련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치고 싶은 방법으로 치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발심이 일어났던 것 같다.

피아노가 너무 싫었던 나머지 피아노를 가르쳐주시는 엄마가 싫어질 법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피아노를 다루는 엄마의 모습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느꼈고,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에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분연습’을 강조하시는 엄마의 모습에서는 ‘연습’이라는 노력의 키워드를 읽을 수 있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더 이상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방법이 지(智)라면, 엄마는 이를 이론상으로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계속 그 부분을 치고 또 치셨다. 방에서 공부를 하던 나와 동생, 심지어 아빠까지도 그 부분은 음계까지 다 외울 정도로 스스로를 엄하게 훈련하셨다. 그래서 피아노를 참 많이 싫어했던 나였지만 피아노에 관한 엄마의 지(智), 그리고 스스로가 당신이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행(行)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커졌더라도 감히 엄마에게 소리를 높일 수 없게 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위정」)

사실, 엄마는 나와 남동생이 본격적으로 수험생이 되면서부터 피아노 뚜껑을 과감하게 덮어버리셨다. 아빠께서도 저녁 식사 시간에 약주를 한 잔 하시고는 “너희 엄마가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고생고생 하셔서 딸내미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아들도 조금씩 사춘기에서 벗어날 즈음, 엄마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내가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가 그동안 접으셨던 피아노 협회 활동에 나가시면서 내 자취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가기도 하시고, 작년 여름에는 여의도에서 연주회도 하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몇 년 만의 연주회인지, 같이 온 대학 친구들을 두고는 옆에서 엄마 차레를 기다리며 사시나무 떨 듯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의 연주는 빠른 템포의 탱고 음악이었는데, 숨 가쁘게 지켜보는 중간 중간에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전주에서 그 피아노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연습, 연습, 또 연습하셨을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실수 하나 없는 완벽한 연주.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여유롭게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대기실로 사라지는 엄마의 뒷모습에서 빛이 났다. 내가 먹어봤던 케이크 중 가장 맛있는 조각케이크를 사들고 대기실을 찾은 나에게 건넨 엄마의 한 마디는 내 가슴을 기분 좋은 쓰라림으로 물들였다.

“네 엄마 아직 죽지 않았지?”

동생이 어느 날 엄마에게 그랬단다. 집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편안하다는 생각 뒤에는 항상 이제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누구 엄마’가 아니라 엄마 이름 석 자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연주회 팸플릿을 보며 엄마의 이름 세 글자가 적혀있는 걸 보고 잠시 멍해졌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는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노를 정말 좋

아했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릴 때부터 연습실에 틀어박혀 연습했던, 피아노 분야에 있어서는 지(智)와 행(行)을 모두 겸비했던 피아노계의 군자였다. 그게 우리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다. 요즘 엄마와 카톡을 하다보면 ‘엄마 연습 중~ 나중에 연락해’라는 답장을 받을 때가 잦아졌다. 엄마와 농담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엄마가 참 인상 깊었던 순간은 비단 피아노 앞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이러한 지(智)와 행(行)의 중요성을 나에게 말 한마디로 일깨워주셨던 시간들은 참 많았다. 비록 지금은 엄마가 협회 일이나 딸내미 자취집 청결도 점검을 위해 가끔씩 이것저것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오시지만, 엄마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울 때면 나는 항상 옛날 에피소드들로 가득 찬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엄마와 한참 수다를 떠는 게 여전히 정겹다. 엄마는 “애는 무슨, 21살 밖에 안 된 애가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 하고 웃어버리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경험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智)가 되었다. 청춘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도대체 왜 청춘이 그렇게들 아름답다고 하는지, 심지어 우리 엄마는 그런 청춘의 시기를 견고 있는 딸이 가끔은 질투가 나실 때도 있다고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은 내가 하루를, 한 학기를 계획하는데 있어 올바른 행(行)을 행하도록 이끈다.

피아노 못지않게 내가 엄마에게 땡강을 부렸던 게 또 있었으니

바로 수영이었다. 더 이상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울며불며 징징대는

나를 이끌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아가, 엄마는 솔직히 잘 모르겠단다. 딸이 하기 싫다고 할 때 ‘하기 싫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라고 말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인지, 아니면 하기 싫다고 해도 ‘참고 해보자.’ 라고 말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인지.”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을 나는 뚜렷하게 기억한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난 너무 어렸고, 다만 우리 엄마 참 솔직하다는 생각에 엄마가 방금 하신 저 말을 몇 번이고 곱씹어보느라 그랬던 것 같다.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셨다며 엄마는 방을 나가셨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두고 잠시 멍을 때렸다. 그리고는 다시 수영복을 챙겨서 수영장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난 여름이 되면 바다나 계곡물에 환장하고 뛰어든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뛰어 놀만 한 깊이의 물이 있는 곳에 멈추어 선다 싶으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엄마, 혹시... 갈아 입을 옷 입어요?” 하고 묻는 내가 되었고, 여름은 단지 나에게 모기 많고 습한 계절이 아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신나는 계절이 되었다. 엄마의 따뜻하고 솔직한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나는 신나게 물장구치는 아이들이 부럽더라도 물이 무서워 잠수했다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의 그 쾌감을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스키를 배울 때도 나는 겁쟁이로 시작했다.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이 퍼지지 않을 정도로 폴대를 꼭 잡았던 나였고, 나는 또 다시 엄마에게 징징대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위 ‘수영장 사건’ 때처럼 내 눈을 바라보며 어떤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과적으로 나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 눈만 보면 환장하는 21살로 자랐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웅야」)

내가 수영을 싫어하고 스키를 싫어했던 건 내가 스스로 물속과 눈밭 위에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점만 넘기면 나는 수영이, 스키가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다. 다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 신나게 물장구치고 활강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발버둥 치며 움직여 온 거리보다는 앞으로 도착점까지 남은 거리에만 신경 쓰고 좌절하다보니 열심히 수영장 물을 먹고 눈밭에서 미끄러지는 게 싫었을 뿐이다. 엄마는 시점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이였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셨고, 당신의 딸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혜로움 즉, 지(智)란 행(行)과 꼭 동의어는 아닌 것 같다.

무엇의 ‘작동법’ 과 실제로 그 무엇의 ‘작동’ 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의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없으면 그 지혜로움은 그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진정한 지혜로움이라고 보기 힘들다. 마치 ‘올바른 피아노 연주법’ 을 숙지하였다고 해서 온전하게 ‘올바른 피아노 연주’ 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올바른 수영법’ 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영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올바른 수영’ 은 할 수 없다. ‘올바른 스키 부츠 착용법’ 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퐁퐁 거리며 스키 부츠에서 발을 빼 본 경험이 없다면 ‘올바른 스키 부츠 착용’ 을 위해서는 애초에 발을 넣을 때 조임 버튼을 적당히 조여야 함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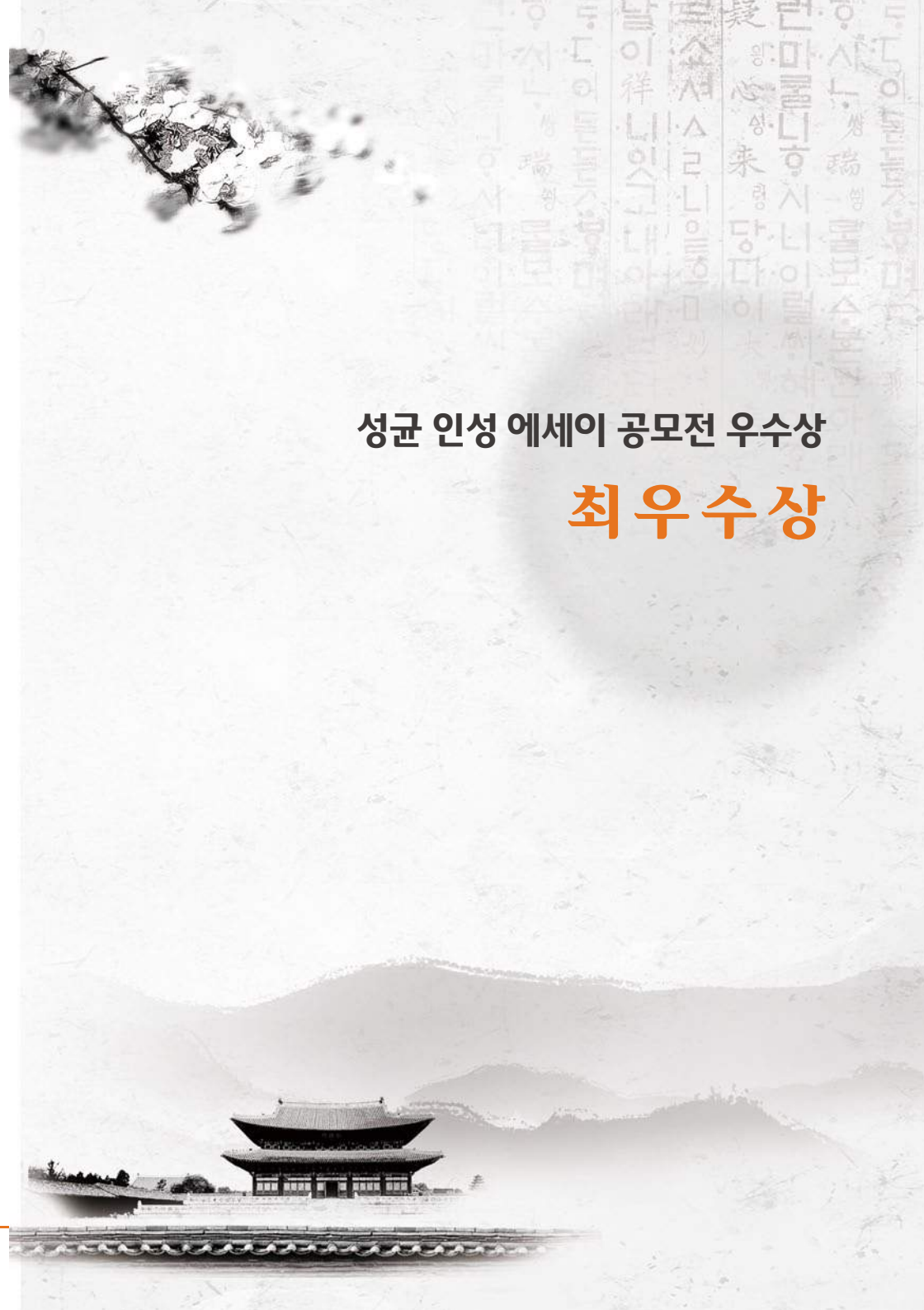
생각해보니 내가 자란 배경은 『논어』 그 자체였나 싶기도 하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지(智)를 깨우쳐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엄마. 직접 온 몸으로 부딪쳐 깨우쳤을 때의 그 단맛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 내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는 사람으로 자랐고, 가끔은 ‘자취생의 요리’ 페이지를 보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는 사람으로, 맛이 없어도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다. 또한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짧게라도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는 잠깐의 감성을 좋아하게 되었고, 공기 속에 담긴 시원함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물론 날씨가 유난히 좋을 때면 ‘이런 날에는!’ 이라는 나쁜 생각으로 수업에 몇 번 빠진 적이 있긴 하지만... 매 학기를 정리하면서 ‘신나게 잘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최우수상



21살의 知 - 志學과 立의 사이

| 국어국문학과

스물한 살.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스무 살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니 5월인 지금까지도 괴리감이 온다. 스무 살은 그만의 느낌이 있다.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맥주를 한 캔 살 때의 뿌듯함도 스무 살만 맛볼 수 있고, 동아리 모임에서 고학년 선배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도 스무 살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붙는다. 이런 스무 살이 제일 스무 살 다울 때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일 때가 아닐까. 학벌주의, 대학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12년간의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을 마치고 들어간 대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조금 다르다. 스승의 날에 반 아이들과 돈을 모아 꽃다발을 사드릴 담임선생님도 없고, 땀별에 서서 땀 흘리는 전체조례도 없다. 내신대비를 해주는 학원도 없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빨간색 색연필로 매기지도 않는다. 안 그래도 어른이라고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새로운 학습 환경에 내던져지니 스무 살은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설’이 스무 살을 규정하는 가장 큰 코드다.

‘낯설’이라는 껍데기를 빨리 벗는 스무 살은 많지 않다. 그래서 흔히

스물한 살까지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나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대학에서의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다. 처음 입학해서 시간표를 짤 때의 그 설렘은 잊지를 못한다. 과목 이름도 멋있게 ‘디지털 영상과 예술의 시대’, ‘한국대중문화론’이라니.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으면서 밤새워서 리포트도 써보고, 수업 중에 모르는 게 생기면 손을 번쩍 들어 교수님 눈도장을 찍으리라. 그렇게 패기가 넘쳐서 어렵다고 소문난 과목으로만 18학점을 채웠다. 주5일에 모두 아침 9시 수업이 있었다. 고등학교랑 비슷한 생활을 해야 공부도 그때처럼 부지런하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다.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었다. 오후 늦게 첫 수업을 들으면 그전까진 집에서 뒹굴거릴게 뻔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식 공부는 부지런했지만 무작정 대학 공부에 적용한 건 무모한 시도였다. 학문을 배우는 건 얕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대학 공부는 한 곳을 집중해서 파는 것이다. 한 삽 한 삽 끈질기게 파내면 지하수든 석탄이든 무엇인가에 닿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공부는 여기저기 흙을 헤집는 것과 비슷하다. “대학 가고 싶으면 과목 간 균형을 맞춰라.” 내가 들었던 인터넷강의 강사는 밥 먹듯이 이 말을 했다. 한쪽만 너무 깊이 파느라 다른 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요점이다. 이 구덩이를 파다 보면 전에 파났던 저 구덩이는 다시 흙이 쌓인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다시 파고, 결국 깊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그런 공부가 고등학교 때 했던 입시 공부인 것이다. 어제 읽었던 EBS 영어 지문이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다시 읽고, 같은 유형의 수학문제를 수능 때 빨리 풀 수 있도록 숫자만 바꿔서 다시 푸는 것이다. 이런 공부에 익숙한 내게 대학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특히 인문학 수업이 그랬다. 답이 없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더욱 어렵게 느껴졌다. 깊은 구덩이를 파기에 내 삽은 너무 작고 녹슬어있달까. 교수님의 설명, 읽어야 하는 텍스트, 수업에 필요한 기본 상식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위였다.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포맷은 주5일 아침 9시 수업이라는 고등학교

식 시간표를 적용했으니 더욱 힘들었다. 한 번 당했으니 2학기 시간표부터는 선배의 조언과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짰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 대학 공부와 고등학교 공부의 괴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 스물한 살이라고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벌써 대학교 2학년인가? 난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며 당황하는 것이다.

공자는 열다섯 살에 배움에 뜻을 두고, 서른에 스스로 자립했다.(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스물한 살은 그 사이에 있다. 『논어』 「위정」 편에 나오는 공자의 공부법은 흔히들 알듯이 여섯 단계다. 열다섯 살과 서른 다음, 마흔엔 흔들리지 않고, 쉰에 천명을 안다. 예순에 귀가 들은 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일흔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법도를 넘는 일이 없었다. 공자는 서른부터 일흔까지는 십 년에 한 번씩 목표를 두었지만 열다섯 살에서 서른까지는 십오 년이다. 그만큼 배움에 뜻을 둔 뒤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스스로 서는 일은 어렵다. 스스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회의감이다. 겨우 철이 들어 배움에 뜻을 두어도 내가 하는 이 배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난 모를까, 나는 왜 이걸 배우는 걸까.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회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즐거움이 없어서 드는 회의와 즐거움이 있는데도 느끼는 회의. 『논어』 「학이」 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구절을 보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不亦說乎.) 공부는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회의가 든다. 이것의 해결은 간단하다. 이 학문을 접하는 내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령 내가 영어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스파르타식’ 교육을 주창하는 학원에서였다. 선생님은 매일 단어 100개씩을 외워 와라고 했고 시험을 망치면 틀린 개수만큼 손바닥을 맞았다. 학원뿐 아니라 집에서도 동영상 을 보며 따라 말하기를 시켰다. 프랜차이즈 학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동영상 학습을 한 시간이 기록되어 전국 순위가 매겨졌다. 전국 100위 안

에 들면 학원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상품권을 줬다. 나는 영어를 혐오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보면 나는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flash, flee, floor, ...’ 그러다 한번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화상 전화로 수업을 했었다. 필리핀에 사는 여자 선생님은 언니처럼 나를 대했다. “오늘 뭐 했니?” “속상한 일 있었니?” 선생님에게 내 얘기를 들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손바닥을 안 맞기 위해서가 아닌, 선생님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를 외웠다.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게, 어려우면 쉽게 방법만 바뀌도 나에게 다가오는 학문의 모습은 바뀔 수 있다.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쿨하게’ 놔주면 된다. 그 공부는 ‘내 길’ 이 아닌 것이다. 흔히 동양인들은 뭐든지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본인이 못하는 것에 집중한다. 중국계 미국 여성으로 예일대 법대 교수인 에이미 추아가 쓴 『호랑이 엄마의 군가』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책에서 그녀는 두 딸을 강압적으로 키운 중국식 교육법을 소개한다. 그녀는 딸이 모든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무섭게 다그쳤다. 피아노가 싫다는 딸을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혀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피아노를 치게 했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한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양에서는 지적 성취가 일정 부분 타고난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인 SAT는 기본적으로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니다. 타고난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억지로 배우는 공부를 좋게 보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일반화는 해선 안 되지만, 마음에도 없는 학과를 ‘점수 맞춰’ 들어와서 고생하는 대학생들이 생각 해봐야 할 태도라고 본다.

즐거움이 있는데도 느끼는 회의는 좀 더 복잡하다. 나는 올해 국어국문 학과에 진입했다. 문학이 좋고, 글쓰기가 좋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 ‘희망 전공’ 란에 썼던 학과다. 지원서를 낼 수 있는 6개 대학에 수시를 쓸 때도 모두 국어국문학과로 넣었다. 국어 선생님은 내가 본인이 나온 과에 간다고 하자 머리를 쓰다듬어주셨다. 그러나 “잘했

선택의 1차 관문

| 국어국문학과

다”라고 말하진 않으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쓰다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었던 것 같다. 출판사를 하시는 부모님은 내가 인문학을 한다고 하자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러나 세 살 어린 동생이 문과를 간다고 하자 이과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스레 제안하셨다. 나는 지금 성대신 문사에 문화부 기자로 있다. 매주 회의에 밤새워서 기사를 쓰다 보면 학점 챙길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우리 신문사에는 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같은 문과생들이 많다. 조판을 끝내고 다 같이 모여 술 한 잔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십 년 뒤에 우린 뭘 하고 있을까. 꿈꾸는 직업, 바라던 삶까지 순탄하게 다다라 있을까. 스펙 사랑 대한민국에서 순수 학문을 한다는 건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공부를 하다가도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다. 공부를 안 하면 걱정이야 하는 데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해도 걱정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확신을 가지면 된다. 인간이 안정적인 직업, 금전적인 성공만 바라고 살 수는 없다. 내가 좋아하는 학문, 이걸로 뭘 먹고 살까 의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들이 다다르지 못한 그 경지까지 추구한다면 그것은 나의 최종 목표, 성공과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물한 살, 열다섯 살과 서른 살의 사이에 나는 한 단계를 더 넣고 싶다. 이십일신오(二十一信吾). 나를 믿음.

3월 말, 4월이 서서히 다가오던 푹푹한 새 학기의 날들 중 하루의 오전, 나는 과방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10시 반에 시작하는 수업이었건만, 학교를 너무 일찍 온 탓이었다. 원래도 수업시간보다 일찍 오는 편이었지만, 올해 들어 집에서 수업시간보다 한참은 일찌감치 출발해서 빈 강의실이나 한적한 복도를 서성거리는 습관이 생긴 탓이었다. 모든 수업이 10시 반에 시작하는 신의 시간표 덕에 누릴 수 있는 사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상시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9시 45분. 수업 시작까지 최소 45분이 남았다. 빈 강의실에 들어가 앉아 있기도 귀찮아서 결국 택한 곳이 과방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당연하지, 이 시간에 누가 여길 오겠어. 혼자 책이나 조용히 읽다가 올라가야겠다 싶어서 책을 꺼냈다. 성인군자이신 공자는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데, 요즘 생각과 독서를 너무 소홀히 한 거 같았다. 작년 나의 생각의 깊이와 올해 생각의 깊이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스물스물 불쾌하게 올라왔다.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평생을 하면 되잖

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논어』 「학이」에서 공자가 그러지 않던가.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발전 없는 자기 변명보다야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뇌에 기름칠이나 해야겠다 싶었다.

책을 꺼내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생긴 ‘후배’라는 존재가 과방에 들어왔다. 과방에는 그 아이와 나, 이렇게 둘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어색했다. 나는 어색한 것을 도무지 두고 보질 못하는 사람이다. 가만히 있다 보니,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궁금했다. 책이냐 나중에 봐도 되지만 사람은 언제 나중에 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대화를 시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슬금슬금 말을 붙여 보려고 책장을 의무적으로 넘기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어온 시간이 참 애매했다. 애도 나처럼 학교에 일찍 도착한 건가, 싫어서 이제까지 넘기고 있던 책장을 덮고 물어봤다. “몇 시 수업이야?”

“아, 언니, 저 지금 수업이에요.” “……음? 지금 수업이라고? 근데 왜 여기를 와. 너 아직 1학년 아니더냐. 지금 3월인데……?” “아, 오늘 너무 지각을 해서 무서워서 수업 못 들어가겠어요. 사실 수업도 별로 재미없고…….” 그 후배는 투덜투덜 한탄하는 어조로 나에게 그간의 고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언니, 저 사실 꿈도 없고 그냥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했었으니까 그래서 프문과 전공예약생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선배들은 너 무슨 과 가려고 생각하고 왔어? 막 이런 질문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정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왔는데 공부가 하기 너무 싫어요. 대학가기 전에는 대학만 가면 되겠지, 대학만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다가 딱,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3월에 대학 입학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노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냥 놀기만 했으면 좋겠고……. 저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뭔가 스무 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나이를 정말 잘 보내고 싶은

데 맨날 생각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떡하죠, 언니… 저 언제쯤 정신차릴까요…….”

그 아이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논어』 「헌문」을 보면, “옛날의 학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 라고 하였다. 그 아이가 하고 있던 공부는 배움의 기쁨 그 자체를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추어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그 아이는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이에게 대학은 하나의 수단이자 마지막 목표였다. 입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유 쟁취의 수단이었고, 그 아이가 살아온 생애 20년 평생을 달려온 마지막 목표였다. 살면서 대학은 가 봐야지, 그렇게 주변에 휩쓸린 결과였고 미래에 대해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어린 10대의 회피가 앞 자리가 바뀐 20대에 거센 풍파처럼 밀려오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털어놓는 속 깊은 곳의 묻어둔 법한 이야기를 하기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저 고민은 작년 나의 고민과 잔가지만 다를 뿐 가운데 있는 굵직한 줄기는 너무나 닮아있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전공에 진입한 ‘전공 새내기’인 나는 그 고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이어오고 있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있던 나 역시도, 그 아이보다 잘난 것이 없었다.

나는 대학을 오기를 잘했다, 싶었다. 대학에 와서 배우는 공부가 재미있었다. 수능이 끝나고 무의미하게 흘러 보내던 시간들보다는 대학에서 와서 뭔가를 배우고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재미있었다. 배움보다 더 재미있었던 건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대학은 고등학교보다 더 큰 사회였고, 그만큼 다양

한 인간유형이 존재했으며 온갖 인생 드라마가 그네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비슷한 수준, 비슷한 연령, 비슷한 생각의 무리에만 있던 나에게 “네 세계는 그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좁아?” 이런 뉘앙스의 꾸중을 퍼붓는 거 같았다. 그 꾸중마저도 좋았다. 나는 나의 스무 살이 찬란하다 느꼈고, 대학을 오기로 한 것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살아온 얼마 되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 남들에게 이야기하며 다녔다. 사실 나는 인문과학계열보다는 사회과학계열로 가고 싶었다. 인문과학계열의 과목이 적성에 더 잘 맞는다고 느꼈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망할 놈의 ‘비전’, ‘미래전망’ 때문에도 그랬고, 요즘이야 학과 구분이 별로 없다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사회과학계열을 전공했을 때 얻을 것이 더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회과학계열을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세상만사가 어디 전부 자기 뜻대로 되겠냐.”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나는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인문과학계열로 진입을 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평상시 흥미로웠던 과목들로 교양 신청을 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동양사상 등등등. 나는 이 모든 것을 흡수하기 바빴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으며, 인문과학계열을 오기로 선택한 나 자신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사회과학보다는 인문과학의 과목들이 훨씬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겨 하는 것만 못하다.” (「웅야」)

나는 제대로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할 것만 같았던 대학생활도 여름방학이 되고, 2학기가 되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전공진입을 고민해야만 했다. 내 주변에서는 나에게 “남에게 보여주는 공부”를 하기를 요구했다. 사람들이 흔히 현실이라 부르는 사회는 나에게 자신을 아주 약간이나마 보여 주었고 그건 내 생각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했다.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

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라”(「위정」)는 말을 지킬 수 없었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공부를 하고자 대학을 왔는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배움에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다. 길을 잃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3월이 되었다. 나는 전공 진입을 했고, 그 아이는 그토록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시작이 놓였다. 이제 나나, 그 아이나 모두 처음부터 다시 선택해야 했다. 계속 그렇게 휩쓸려서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배우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릴 것인지. 이제라도 “자기 스스로를 위한 공부”를 시작할 것인지를. 이 선택은 아마도 나와 그 아이 둘 모두에게 당면한, 스스로의 자유 의지로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올 선택의 고비 중 1차 관문 앞에 서 있는 셈이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 되어간다. 나는 나름대로 뿌영지만 얼추 마음을 정했고,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고 있기를 바란다. 우리 둘 다 인생이라는 평생 배움의 기회가 내준 1차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자에게 올리는 편지

— 미래의 교육과 참된 지(智)에 대하여 —

| 기계공학부

지금은 당신의 시간으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수레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늘을 날아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말이 없어도 기계들이 사람들을 이곳저곳으로 옮겨다 줍니다. 더 이상 왕과 제후들은 없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를 뽑습니다. 물론 계급도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요. 당신의 시대로부터 이토록 변한 지금에도,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줍니다. 당신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혼란한 춘추시대를 바로잡고자 주유천하하며 당신의 뜻을 펼쳤고, 그 뜻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당신을 아직까지도 최고의 교육자로 인정하고 칭송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당신이 살았던 곳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이 조선이라고 들어봤을 곳에서부터 시작해 2500년 동안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확립된 국가입니다. 역시 당신의 영향을 받아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도 역시 지(智)를 추구하며 교육에 대한 열의가 무척 높습니다. 하

지만 이곳에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지(智)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하셨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추어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하지만 이곳에 즐겁게 공부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신은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이라며 한탄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법을 배웁니다. 남들보다 출세하여 성공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지식과 덕행을 쌓아 인격을 수양하려는 이들은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주입식으로 바뀌었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보다 앞서가려는 이들 때문에 돈을 내고 선행 학습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이제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은 선생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도맡아 책임지는 교육감부터 교육자가 아닌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심지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 역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부끄럽게도 저 역시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이해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수업 성취도가 높았습니다. 노력을 잘 하지 않으려는 저를 걱정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당장 공부를 즐기면서 하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공부를 즐기는 사람들과 경쟁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정말 미칠 듯이 해야 한다.”

이미 아버지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는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는 모두가 경쟁을 추구하고, 곧 아버지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할 때, 저는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외국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노력하고

있지 않았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온 학생들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 학생들이 호학(好學)하는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노력의 양이 그들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시험을 봤지만, 결국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마 중학생 때 얻은 깨달음이 한 몫을 했겠지요. 하지만 역시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하려는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12년 동안의 학업에 저만의 지식과 인격을 쌓으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지학(爲己之學)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제도는 현재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지도자가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살았던 중국에서도 이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서로 경쟁하며 출세하려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학부모들이 입시 기간마다 당신에게 참배하며 자녀의 성공을 빈다는 것을 알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우습기도 합니다. 한평생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추구했던 당신에게 현재 위인지학(爲人之學)에 온갖 힘을 쏟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리니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육가치관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던 당신의 가치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2500년 후의 미래가 이렇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많이 실망했겠지요. 당신은 삶의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호학(好學)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3000여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찾아왔고, 당신은 호학(好學)가 무엇인

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의 지식을 뽐내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 어디에서든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교육현장은 활기가 넘쳤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하는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제자의 성격이나 평소의 태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제자였던 자로와 염유가 “도리를 들으면 바로 실행해야합니까?”란 물음을 던졌을 때, 자로에겐 “부친과 형님이 계시는데 어찌 들었다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하고, 염유에겐 “들으면 바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일화는 아직까지도 전해 내려옵니다. 당신은 염유의 소극적인 성격과 자로의 적극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인(仁)을 설명함에 있어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해준 것 역시 당신의 교육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지(智)의 본래 정신을 통달한 최고의 교육자로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당신은 수업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른 고기 한 포를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자로 삼고 당신의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 선행 학습을 위해서 고액의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해서 당신의 시대에 있던 계급제도를 생각하면, 당신의 베푼 교육기회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이런 당신에게, 오늘날의 교육은 상당히 못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변호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상은 당신이 살았던 세상보다 더욱 넓어졌고, 수십 가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더 이상 공업은 한낱 농기구를 만들고, 병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업은 이제 더욱 발달하여 그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룰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늘을 나는 기계, 말없이도 사람을 나르는 기계 모두 공업지식 발달의 성과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학업해서 대학교에 와서 배우는 것 역시 공업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옛사람의 글을 읽으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만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더욱 많아졌고, 출세를 하려면 더욱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이렇게 한낱 출세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인(仁)이 사라지려고 하고, 정치에는 의(義)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예(禮)는 무시되고 있고, 진정한 지(智)를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실된 교육이 다시 먼저 부활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옛날 당시는 예의 형식과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당시 양을 잡아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달력을 꺼내 반포하는 곡삭(告朔)의 예에서 군주는 참여하지 않고 희생양만 바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을 바치는 예가 사라지려고 하자, 그 사라지려는 예를 안타까워하며 언젠가 예의 본래 정신을 살려내면 무너진 사회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통찰했습니다. 저는 교육에서도 진정한 지(智)의 본래 정신을 살려내면 지금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의 교육 가치관이 당신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글로 남겨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智)의 본래 정신이 남겨져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래의 교육자들이 이것을 본받고 살려내면 다시 한 번 진정한 인(仁), 의(義), 예(禮), 지(智)로 가득 찬 이상적인 세상이 오지 않을까 소망해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우 수 상

지에 대한 논어에세이

| 소비자가족학과

우리가 성균논어를 수업할 때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왜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가 물어보실 때 대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공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들 다 잘 모른다. 그냥 현실 사회의 분위기, 주변 사람 다 학교에 가니까, 졸업증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로 학생으로 오랫동안 학교공부 생활을 했는데 이제까지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지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다 잘 모른다. 이 수업이 나에게 인생, 삶, 공부에 대한 깊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리고 『논어』에서 지에 대한 공부를 통해 나는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논어』를 배운 후에 내가 공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원래 생각하는 공부가 단지 지식의 축적이나 지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공부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공부는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되어 힘을 발휘하는 지혜이다. 즉 책 속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발휘되는 지혜가 진정한 공부라는 것을 알았다. 공부의 의미에 대해

다시 말하면 즉 인간의 삶에 관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지만 공부의 방법에 대해 반성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공부의 의미를 이룩하려면 어떻게 이룩해야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논어』에 있는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이 공자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즉 공부와 사고를 서로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도 쉽게 알 수 있다.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는 “배우기만 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허무한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 상황과 연결하고 나눠서 얘기하고자 한다. 우선 “배우기만 하고 사고하지 않으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면 실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실제 이런 상황이 많다. 우리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시험 끝난 후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많다. 책을 떠나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정말 시간이 낭비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와 사고는 같이 중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공부와 교육은 학생의 사고 능력을 많이 중시해야 한다. 배운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으로의 우리가 배운 것을 자기의 말로 알아내야 하고 책이나 필기를 보지 않고 중요한 점을 외우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신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외우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계몽 교육이다. 예를 들면 현재 중국에서 많은 어린이가 『논어』, 『사서』 이런 책 내용을 유창하게 외울 수 있지만 내용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성인으로의 학생에 어린이의 계몽 계단에 써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 두 번째 문장은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위태롭다는 것은 민망하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과 같이 보면 우리는 매일 생각만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만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나 sns를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다.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완전한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소식을 얻은 후 자신이 배웠던 지식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인생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자가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則殆)” 얘기할 때 『논어』에서 이런 말이 있다. “원래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 잠을 안 자고 계속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결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吾嘗終日不食，終夜不寢，以思，無益，不如學也.)” 이 것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해도 자기만 생각하면 남의 연구나 심득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책을 펴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전공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면 접하는 것에 체계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시공간의 한계에 우리들은 오늘의 일이나 최근의 일이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접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아주 작다. 그래서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가 우리 학습자에게 명심해야 하는 말이다. 공부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공부에 자신의 심득이 아주 중요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보면 호학(好學)·심사(深思)·역행(力行)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부는 최종 위기소용이 바로 인생의 지혜이다. 공부와 사고 같이 실행하면 인생을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사실은 『논어』에서 공자가 공부의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단 학문에 대한 추구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하는 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방법이 바로 위에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자의 “공부에 빠지다”, “공부에 즐겁다” 이런 말은 『논어』에서 많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 많은 학생은 공부에 즐거운 상태가 아니다. 『논어』에 대한 공부를 통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가 사실은

자신의 태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주변 많은 학우는 취직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의 기계처럼 살고 있다. 힘들고 스트레스 많고 행복하지 않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학교 진입하기 위해 좋은 눈치를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도 많다. 뉴스에 따라 한국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 그 사살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는 삭막하다 못해 살벌한 것이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다. 학생끼리 서로 경쟁자가 되고 친구가 아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학생들이 “위인지학”을 했기 때문이다.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가난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평생에 꾸준히 공부하는 마음이 아마도 없을 것이다. 또한 노력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좋지 않는 경우에는 삶을 비판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는 학생들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공부와 삶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위기지학”을 해야 한다. 즉 자기 스스로 위한 공부이다. 자신의 환경이나 타인의 시선에 구애 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위기지학”의 관념이 가지고 공부하면 즐거움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 현재의 공부 생활에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 왜 여기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싶은가 자신에게 물어보는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인 목표를 자지고 있으면 공부의 원동력도 될 수 있다. 동시에 행복하고 유의미의 인생을 받을 수 있다. 『논어』 지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자가 공부를 아주 중시하는 이유가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양을 위한 배움으로 여긴 것이다. 또 배움에 있어서도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다. 자신의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배움에 임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배움을 통해 자신의 교양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교양의 상태부터 살펴봐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한 후 배움에 임한다면 그로부터 얻은 것은 자신을 수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수신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다. 즉 자신의 수양을 위해 하루하루 배운 것을 익히는 것이 기쁨이라는 의미이다. 학문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목적을 위한 배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신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서 배움이란 지식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양과 관련된 것이고, 그 수양을 통해 나날이 자신이 성숙해지므로 기쁨의 것이다. 『논어』에서는 수신을 통해 자격을 갖추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천하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원하는 사해 안이 모두 형제가 된다는 대동 사회가 이룰 수 있다. 군자란 수양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수기이경의 단계에 그친다면 이는 군자 될 자격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군자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군자는 수신 단계에서 실천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 지금은 학생이라서 먼저 수기이경 이 단계를 잘 해야 한다.

지에 대해 배운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공자님은 강조한 교육 중에서 즐거운 교육장이라는 점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학교는 대부분이 즐거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할 때 자는 것이나 핸드폰 노는 것이나 등등 공부에 즐거운 상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보기에는 학생들은 공부에 잘못된 인식도 있고 학교나 교사 및 사회 환경의 문제도 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곳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우

리가 잘못 이해하는 점이 있다. 현재 많은 학교는 자신의 위상을 추구 때문에 학생의 성적에 대해 더 중시하고 진정한 교육장이 아니다. 이것도 사회의 어떤 이상한 분위기다. 성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평판 기준이 되었다. 학생들도 이런 풍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학교도 학생의 성적에 더 중시하고 학생의 인성의 발전에 소홀히 한다. 그에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나 교사가 먼저 올바른 교육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즐거운 교육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왜 학생은 공부에 즐거울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자신의 차원에서 찾아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못 받았다. 스트레스와 경쟁이 치열한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가? 학교나 부모들은 항상 아이에게 경쟁력 즉 성적을 강조하니까 학생들은 처음부터 공부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못 가지고 있으면 공부의 즐거움에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전에 공부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태도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가지는 것이라서 가정교육이나 학전 교육이 아주 중요하는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이다. 학교나 가정은 학생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행복의 방법이나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지식을 교육을 넘어 이 배운 지식을 어떻게 쓰고 행복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학생에게 키운다면 학생은 더 유의미한 밝은 인생을 잡을 수 있겠다.

『논어』에 있는 지는 사실은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회에 대해 고민할 때도 많지만 『논어』의 사상을 가지고 행하면 마음이 편하게 될 수 있다. 인생의 지혜를 받는 것처럼 모든 문제나 일을 마음 속에 투명해졌다는 느낌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하려면 먼저 인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잘 공부하려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사람다워야 한다. 먼저 선인 다음에 공부이다. “위기지학”,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 이것도 공부의 목적이고 즐거운 인생과 행복한 사회 가정을 실현의 조건

이고 사람으로의 필수이다. 사회 각계는 인성 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에 진입한 후 나에게 배웠던 것 중 인성교육이 가장 소용 있는 수업이다. 그런데 내가 이런 교육이 정말 너무 늦게 받았다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일찍 이런 인성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었다. 이에 따라 반성해 보면 우리의 후배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인성 교육을 일찍 시키면 더 일찍 행복한 삶의 길을 일찍 찾을 수 있다는 감상이 있다. 진정한 성인은 우리 학교 인성수업을 들은 후 시작한다. 이제는 왜 성균관이 성균관이라는 것이 알았다. 이것도 이 인성교육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교육을 받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반성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행복을 잡는다. 나중에 자신의 수신을 완성한 후 이 지혜를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가르쳐 주고 영향을 주고 “참 나”부터 “큰 나”를 실현하고 싶다.

• 우수상

지(智)를 지(智)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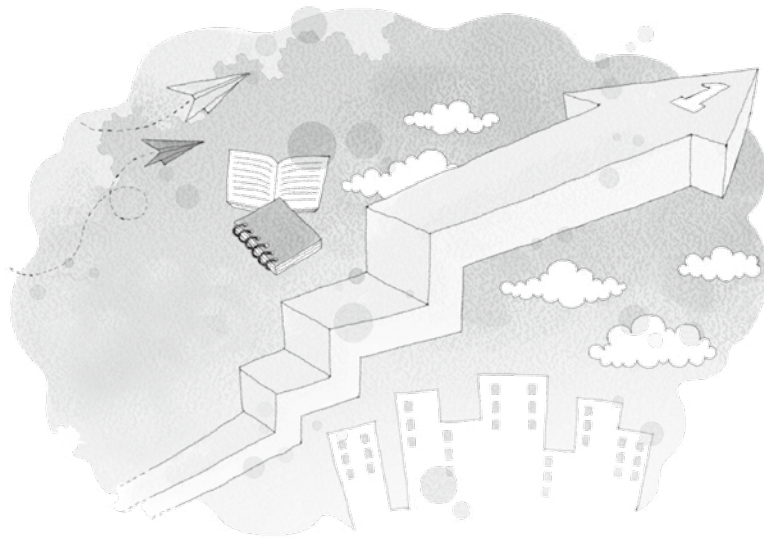
| 의예과

1. 지(智)의 부재

“너 지금 뭐하는 건데?”

시험 감독관이 나를 향해서 쏘아붙였다. 사방에서 시선이 나한테 쏠리면서 나는 궁지에 몰린 쥐인 마냥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눈앞이 노래지고 속이 뒤틀렸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었어진 물이었다.

이렇게 나는 SAT시험(미국 대학수능시험) 중간에 앞으로 불려나갔다. SAT시험은 원래 10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처음에 시험지를 배부할 때 10개의 파트를 모두 묶어 주어서 시험시간을 배분해 하나씩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험 이었다. 한 파트에 배정된 시간이 끝난 뒤에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전 파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아무리 학생들의 도덕적인 면을 믿는다는 희망적인 사상이 담겨있었지만, 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인 만큼 많은 학생들을 시



힘에 들게 하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불러일으키고는 했다. 마침 이전 부분을 시간 안에 다 못 풀어서 나는 이번 파트에 시간이 남자 그 동안 들었던 시간과 돈을 봐서도 너무 안타까워 앞장으로 넘기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는 말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시험 감독관님은 나를 자리에 다시 보내 시험을 끝내게 해주었지만 이미 마음은 저 멀리 떠나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모든 눈길을 뿌리치고 홀연히 집으로 도망 와서 한참을 이불에 머리를 파묻고 울었다. 그 문제 하나를 위해 나의 양심을 버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삐 풀린 말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잠시 잡아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비와 집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주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덕분에 나는 연 몇 천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나는 이미 외국 생활에 맛 들려 어색해져버린 고향 한국을 가기 싫다고 잡아 뗐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큰 경제적 부담을 안고 나를 상하이에 계속 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나는 이러한 부모님의 희생을 봐서도 나를 보답한다고 성공의 지표인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꾸역꾸역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가차 없는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다. 물론 내 자신의 의욕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이러한 아낌없는 사랑을 나의 성공으로 효를 실천하여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 나날이 버티다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준비하여 치게 된 시험에서 잘 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못 이겨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논어』에서는 삶에 충실해 나의 꿈을 이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효라고 주장하는데, 그 순간에는 성공하는 방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이것을 이

룰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부정행위를 자기 합리화한 것이다.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고자 하면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던 이유는 내가 “이현”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어 올바른 삶을 살아갔으면 해서였는데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는 맹자가 말하는 지의 단서인 시비지심, 즉 옳고 그름을 가르는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 성적을 올리려는 수고가 효라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다.

『논어』에서는 효도와 공경, 올바른 언행,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법 등 인간의 도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실천하는 방법을 익혀야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공부를 조금 한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한 자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2012년 겨울, 시험 감독관이 나를 보지 못했거나 모르는 척 눈감아 주었다면 나는 우수한 시험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지만 나의 삶은 『논어』 「자로」에서 말하는 “큰 일”인 진정한 지(智)량은 영원히 멀어졌을지도 모른다.

2. 삶 속에서 지(智)를 찾다

이처럼 이 악물고 한 공부여서인지 나의 고등학교 성적은 최상위권이였다. 성적 외로도 스포츠를 쫓아 완벽한 서류로 나를 포장한다고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등 이리저리 쉬지 않고 뒤도 안보고 달렸다. 학업 외에도 나의 모든 행동 하나 하나, 대외 활동 하나 하나가 앞서 계산되어 남

에게 보여줄 위인지학이었던 것이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사력을 쏘아 공부에 매달리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압박감에 시달리고, 평소에는 공부한다고 못 가졌던 여가시간을 즐긴다고 열심히 놀러 다녔다. 이처럼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자”가 내 좌우명이 되어 버렸다. 공부를 삶의 일부로 느끼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자세인 호학(好學)과는 아예 정반대의 방향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다. 공부라는 지극 지극한 굴레 속에 수많은 시험과 과제들의 연속인 삶 속, 나는 수학 공식들을 외우고, 문학 작품들을 해석하고, 세포의 기관들을 외우면서 대체 이런 것들로 머릿속을 채워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호학자였던 공자와는 달리 나는 “시험”이라는 요인이 있어야만 비로소 책을 폈다. 이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닌 시험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

이랬던 나에게 조금이나마 공부의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계기는 졸업 논문을 위해 했던 생물학 실험이었다. 직접 실험 방법을 만들고 실행하여 4000자 논문을 써야 졸업을 시켜준다는 학교의 무자비한 요구에 처음에 막막했지만, 나의 한계를 시험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지(智)의 길을 조금이나마 지향할 수 있는 디딤돌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선정한 주제는 간단했다. 달걀 껍데기를 씻어서 박테리아의 수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연구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 당시 나는 중국 빈민 농가에서 나온 유기농 달걀을 사람들에게 파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더러워 보이는 유기농 달걀이 정말 시중에 파는 달걀이 위생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험 역시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큰 오산 이었다. 미생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를 연구하는 거여서 내 통제에서 벗어난 요인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한 달 내내 밤 늦게까지 실험실에 살림을 차리고 살 정도로 심취해 살았다. 실패와 실패를 맛보고 또 실패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다.

하지만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배웠던 이론과 지식들이 적용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논어』에서는 지식과 실천이 함

께 병행해야만 진정한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역사 속 이것을 통치의 중심에는 늘 백성으로 둔 세종 이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여(애인)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인의 정신이 있었기에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써 배움과 실천이 함께 나아가 한글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논어』에서는 이처럼 공부를 학문과 인격 향상을 위한 토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 사회를 위한 지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지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내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비교할 수준이 되지 않지만 실천을 하면서 올바른 지의 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매진하여 앎을 지극히 함으로써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도 느끼게 되었다. 실험을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어 따로 따로 있는 점 같았던 이론들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졌다. 오랫동안 쌓아온 생물학적 배경지식이 실험에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실험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또 느낀 점은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를 생물을 좋아하고 꽤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평소와 다른 경지의 수준에서 공부를 하니 나의 무식(無識)을 발견하였다. 플라톤의 동굴처럼 우리는 모르면 모르는 체로 살 수 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구절이 맞는 말 일 수 있다. 하지만 배움이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밝혀지는 이치는 무지의 동굴에서 나올 만큼 가치가 있다.

또한, 현량자고(懸梁刺股)와 형설지공(螢雪之功)을 실천한 소진과 차운처럼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야 비로소 성에 차는 자세를 임해야 지(智)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공부는 투여된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그만큼의 가치의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위정』)

이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야한다. 그러하면 지식을 뒤쫓고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 즉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다.

3. 대립된 두 사상 가운데 서다

이렇게 나는 삶 속 새로운 경험이 쌓이고 조금씩 성숙해 가는 과정에 『논어』 속에 담겨있는 유학 사상을 맛닥트리게 되었다. 내면에 내제되어있는 인의예지를 수양하면서 살라는 공자의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갔다. 지가 말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뭘까. 삶을 살면서 어떠한 가치를 품에 안고 살아가야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되었다. 논어를 공부하면서 미국식 교육을 기반으로 한 고등학생 때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확립했던 가치관들이 뒤틀리고 공격당했다. 철학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나온 황금률은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인의 황금률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즉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 이었다.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이 중심인, 이타주의적 사상을 삶의 궤도로 삼으라는 것은 나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 자신 하나도 행복하기 위해 애를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쏟을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다.

4. 지를 쫓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내 삶을 뒤흔들어 놓으신, 공자를 쫓 빼닮은 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의 첫 인상은 야

구모자와 동그란 안경을 쓴 깡마르신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드라마에서 보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괴짜 대학 교수를 현실 속에서 만난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업 내용은 너무 어려웠고 나는 그렇게 첫 시험을 망쳤다. 안 그래도 수학은 나의 장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과 더 멀어질 거 같은 예감이 들었다.

선생님께서 가끔 문제를 칠판에 끄적이다가 팔짱을 끼고 한동안 그것을 쳐다보고는 했다. 이처럼 선생님은 발분망식(發憤忘食)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수학이라는 학문에 심취하신 호학자이셨다. 그만큼 타고 선생님께서 증명하신 정리가 있을 만큼 그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학기가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췌장암을 진단 받으셨다. 그 뒤로 3주 동안 수업에 나오지 않으셔서 우리는 당연히 그만두신 줄 알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퇴원하시자마자 복귀하셔서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우리 앞에 서서 수업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는 은퇴를 권장했지만 우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돌아오신 것이었다. 평소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져 실려 가실 것 같았던 선생님이지만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하실 때만큼은 누구보다 생기 있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이론을 설명하고 그것을 문제 적용하면서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했다. 선생님의 열정과 끊임없는 호학은 나와 그 주변에도 파급되어 많은 자극이 되었다. 선생님은 남을 위한 공부가 아닌 위기 지학(爲己之學), 즉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나를 움직일 수 있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은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어찌 군자답지 않은가?” (「학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살겠는가?” (「미자」)

공자는 자신은 은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무리와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주

장하였다. 수학 선생님 역시 학문을 삶의 목표로 두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인생의 뜻대로 삼고 살았기에 어떠한 암세포가 주는 고통의 연속인 악조건 속에서도 덧없이 철없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렇게 선생님은 열정 하나로 1년 동안 나의 스승으로 남아 주셨다. 그 1년동안 나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좋고, 시험 준비 수준에만 머물렀던 공부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시험 범위가 아닌 문제들도 도전해보고 흥미로운 주제들은 한 번 더 들춰보게 되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인」)

하지만 1학년을 마치고 반년이 지난 후 선생님은 암과의 투쟁을 마쳤다.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의 불씨가 꺼진 듯이 가슴이 아려왔다. 수학,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을 깨우쳐 주셨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나를 정말 많이 울게 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죽음의 순간까지 와서도 학문과 제자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선생님과 정말 어울리는 구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나는 의학의 길을 선택하였고 아주 긴 시간동안 인체와 생명에 대해서 고찰하고 공부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만큼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깨우쳐 환자를 위하는 나의 진정한 마음을 찾고 싶다. 이처럼 물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행복은 근원지가 타인과 사회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지(智)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신(修身)할 것이다.

허세부리는 남자

| 건축학과

1-1 허세부리는남자 : 대학초기의 기억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어찌기쁘지않은가? 벗이 먼곳에서도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은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어찌 군자답지 않은가?” (「학이」)

내 별명은 허세염이었다. 남들에 비해 유달리 자신감이 넘치고 자부심이 많은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 초기의 나는 남들에게 자랑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던 것 같다. 『논어』 「학이」 편에 나오는 문구와 다르게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환경 탓 일 수도있겠지만, 나는 남들에게 뒤지는 것을 유달리 싫어했고, 그 유별난 성격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전반적으로 남들보다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만하고 건방진 말이지만, 그 때 무렵의 나는 이런 내가 좋았

고, 이런 나의 모습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은연 중에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비슷비슷한 실력의 또래들이 모이는 대학이라는 큰물에서 나는 그 전에는 없었던 ‘허세’라는 이름표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붙어버렸다. 은연중에 붙어버린 이 꼬리표는 남들에게 보다 더 깊은 인정을 받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쯤 나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겸손하라.’ 이것은 늘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시던 말씀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처음에 ‘겸손’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남들의 질투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경계하기 마련이고, 이는 곧 시기와 질투로 이어진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이어진 감정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적으로 만들어 앞으로 내 인생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키지 않더라도 겸손해야 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짓게 되었다. 당시의 나에게는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이 멋져 보였고, 실력이 없고 수줍은 사람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덕목인 외향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의 나는 어리석었고, 과분하게 자신감이 넘쳤으며, 무엇보다도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 이제 갓 고등학교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난 대학 초년생의 나는 ‘겸손’을 이해하기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랬던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는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나를 찾아왔다. 나에게도 드디어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1-2 내 인생관을 바꿔준 첫 배낭여행 : 허세염에서 유러피안염으로

“유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위정」)

갑작스럽게 결정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의 배낭여행이었지만, 사실 나는 바르셀로나로의 여행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나의 꿈을 심어준 사람,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의 초기부터 모든 것들이 내 꿈과 같지는 않았다. 낯선 이방인이라는 신분의 동양인으로서, 나는 자신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의 나는, 한국에서의 나와 다르게,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는 여행의 불편함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주는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묻게 되었고, 물음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공자가 『논어』의 「위정」편에서 말한 것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즉 무언가를 알고 모른다는 것의 경계를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여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물어야 했고, 내가 묻는 만큼 나는 조금씩 겸손해졌다. 여행하는 그 순간의 나는, 이미 그 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가고 있었다. 그렇게 45일간의 유럽 배낭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예전의 넘치는 허세는 많이 희석되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남들이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우월감에 취해 버렸는데, 이로 인해 나는 ‘허세염’이라는 별명 대신 ‘유러피안염’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다.

2-1 지옥 같던 군생활 : 벌레에서 개로, 개에서 사람으로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설 자격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 줄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이인」)

나름대로 화려했던 대학 1,2학년의 시기가 지나고, 내게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하는 관문인, 군입대의 시기가 찾아왔다. 비록 시력이 나빠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이 될 운명이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통의 대화 소재인, 군생활이야기를 놓치지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았기에, 신체검사 날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여 3급 판정을 받아 대한민국 육군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본인의 의지로 군생활에 입대한 것도 있었고, 평소에 선배들이나 형들에게 곧 잘하던 나였기에, 사실 군생활이 힘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사람관계에서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2012년 3월 2일 군입대 후 22개월, 12kg가 빠져 있었고, 입대 후 한국을 탈출해 타지에서 1년을 머무르게 된다. 사람관계가 틀어진 내 22개월의 군생활 동안, 내 자존심과 자존감은 산산조각나 버렸다.

나는 논산 훈련소로 초반 배치된 후, 모두가 자대를 배치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표를 배정받는 마지막 날, 내 동기들과는 다르게 단 2개의 이름표만 배정받았다. 다른 동기들이 받는 5개의 이름표와 2개의 이름표의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군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사형선고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2개의 이름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인권유린으로 폐지되어버린, 전투경찰을 뜻했다.

그렇다, 나는 전투경찰로 배정을 받게 되었다. 전투경찰의 군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는 ‘실전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다. 육군 현역 병들이 받는 훈련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받는 가상훈련이지만, 전투경찰(전경)들이 받는 훈련은 성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받는 실전훈련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대 안에는 늘 기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막내병이었던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선임병들로부터 받는 타박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것은 극한의 상황에서 반응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같았다. (전경에서는 이경을 벌레로, 일경을 개로, 상경을 사람으로, 그리고 수경을 신으로 불렀다.)

『논어』의 「이인」 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지위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설 자격을 걱정하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 줄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한다.” 분명히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 뒷배경과 내가 그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 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것은 막내병이 선임병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선임병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임병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와, 선임병이 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다 하면서 후임병들을 마주하는 자의 군생활은 사뭇 차이가 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힘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과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의 끈은 느슨해져 모든 것을 망쳐 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관심병사가 되버리는 군대의 생리가, 이 사회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된다.

2-2 한국을 탈출하다 : 고국 밖에서 찾은 천국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용야』)

지옥같았던 군생활 동안 매일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지옥같은 곳을 떠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경생활을 하면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꿈은 전역을 해서 단순히 경찰서를 떠나는 것이 아닌, 이 한국땅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렇게 떠난 캐나다로의 워킹홀리데이. 그 곳에서 난 당분간이라도 한국에 관련된 모든 흔적과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스스로 좋아서 영어로 일상생활을 하다보니, 단순히 영어를

알고 있었던 때보다 실력이 쑥쑥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더불어 한국에서 벗어나 현재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늘 즐겁게 해주었다. 영어를 말할 때마다 마치 한국에서의 나쁜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즐거웠으며,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10개월, 나는 한국말을 쓰지 않고 오직 영어로만 즐겁게 생활을 하였다. 『논어』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어떤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는 자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자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에 부담감이 없으니, 단순히 아는 사람에 비해서 학업성취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것을 알고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배움을 추구하고 갈구할 것이다. 이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배우는 사람은 없으니, 이 상황이 마치 내가 처한 영어공부에 대한 상황과 같았다. 학창시절 나에게 영어공부란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는 시험은 영어를 절대 좋아하고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캐나다에서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영어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고 그에 따라서 내 영어실력을 전과 달리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은 사람을 더욱 더 겸손하게 해준다. 좀 더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고, 늘 묻는 마음으로 일상을 대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 내 삶을 스스로 일궈나가던 이 기간의 경험은 나를 좀 더 성장하게 해주었으며, 군생활 동안의 나쁜 기억과 부정적인 마음들을 정화시켜 주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남들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존중해준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많은 길을 되돌아와서 깨닫는다. 선진국에서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친절함 따윈 없고 조화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배웠다. 그리고 이제 10개월 동안 차근차근 모아둔 자금을 가지고 인도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인도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다. 인도로 떠난다.

2-3 인도에서 배운 것들: 혼돈과 사기의 나라

“어진 이를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 지 못한 이를 보면 안으로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이인』)

처음 공항에서 내려서 나를 반기는 것은 매캐하게 코를 찌르는 인도 특유의 매연냄새였다.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서 방출되는 자동차 매연은 환경공해를 넘어서 환경 공격 수준이었다. 이렇게 공기마저 공격적인 나라에서, 사기꾼들과의 싸움은 공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텔리 국제공항에서 중심 시내인 빠하르간지까지 가야했던 나는 립사기사들을 불러 세우고 종착지를 말하였다. 그러나 한결같이 내가 돌아오는 말. “빠하르간지는 이제 사라졌어” 인도여행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탐욕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수많은 현자도 조우하게 된다. 하지만 여행 후반에 가서 탐욕을 마주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들에게 비취지는 내 모습도 혹시 저러지 않을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저런 모습을 비춘 적이 있지 않았나?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저런 눈빛을 보이면서 남들을 대하지 않았나? 『논어』에 나오는 구절처럼, 어질지 못한 이들을 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보기 시작하자, 나는 좀 더 나 자신에 다가갈 수 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제까지의 내가 부끄러워졌다. 허세염도 유러피안염도 더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곳의 삶이 나에게 던져 준 교훈이 있다. 바로 물질적인 삶, 그리고 외향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은 정신적인 삶이자 내면적인 가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을 닦고 수양할 때, 좀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곳에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이 있었다.

3-1 지(智)를 실천하는 삶: 미래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자장이 물었다. “선비가 어찌해야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 통달이라는 것이.” 자장이 대답했다.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려지며, 가에 있어서도 반드시 알려지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소문나는 것이지 통달이 아니다. 통달은 질박하고 곧으며 의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살피고 표정을 잘 관찰하며, 남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나랏일에도 반드시 통달하며 가(家)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게 된다. 그러나 소문나는 것은 얼굴 빛은 인(仁)한 듯하지만 행위는 인에 어긋나며, 자신이 잘 하는 듯이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가에서도 반드시 소문이 난다.” (「안연」)

지금까지 나는 『논어』에 나오는 ‘지(智)’ 문장에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살짝 풀어놓았다. 사실 『논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고리타분함, 고루하고 지루함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논어』 속에 담겨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기 경험이 필요하다. 만약 내가 『논어』를 대학 초년에 읽었다면 필시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 『논어』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녹아 들어와서 비로소 오늘의 깨달음을 선물해 준 것 같다. 앞서 설명한 몇 가지 이야기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제일 공감하는 『논어』의 구절은 바로 겸손이다. 특히 요즘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진 자들의 갑질논란을 비롯하여, 성완종리스트에 든 사람들의 온갖 거짓말들은 ‘겸손’이라는 덕목이 부족해서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옛 성현들은 배우고 글을 읽는 목적은 덕성의 함양에 있다고

하셨다. 단순히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책읽기는 보여주기 위한 책읽기 즉 위인지학(爲人之學)의 삶이라 하였고,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한 책읽기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한 책읽기는 인(仁)의 성장에 있다고 보신 것이다. 좀 더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닦아가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학업에 임한다면 앞으로 다가 올 우리 미래를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릴 일도, 제 2의 세월호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변변치 못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기쁘지 아니한가

| 글로벌경제학과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추어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를 읽고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때에 맞추어 익히는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정신이 분산되어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맞추어’ 미루지 않고 배움을 흡수해야 정말 기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논어』를 읽으며 다시 나의 공부 습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동양의 전통에 의하면 무엇을 욕망하든 최종 목표는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호학의 길은 쉽지 않다. 나는 공자에 비할 것은 못되지만 나를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공부할 것은 무궁무진하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즐길지에 대한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꿈, 즉 내가 추구해야 할 지(智)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실 1학년 때는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경제학 공부를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고, 이를 위해 경제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알고 싶은 것을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모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식품산업에 관심이 많고, 식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농업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농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응용경제학의 분야를 찾으니 지금 전공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공부가 있고 그것을 할 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쉽게 찾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경험과 끝없는 고민 끝에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공부, 공부 그 자체로 설레는 분야를 찾을 수 있었다. 『논어』에도 배움과 공부는 나보다 먼저 깨우친 선각자를 본받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도 내 공부의 방향성을 위해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여러 교수님을 찾아 뵈었다. 저번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심포지엄, 박람회 등을 다니면서 관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공부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분들이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여 몸소 체득해야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 분들은 이미 누군가의 멘토가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계셨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논어』를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평생토록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와 인간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호학의 진면목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호학을 위한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함께 같은 배움을 원하는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특히 나의 경우는 이번 학기에 관심 있는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서 교류학점을 통해 전공수업을 듣게 되었다. 평소에는 혼자 관심사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진 호

기심을 공유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같이 수업을 들으며 몇몇 학생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공부도, 앞으로의 꿈도 비슷해서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가리어 본받고, 그들의 좋지 않은 점으로는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내 일상이 곧 배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게 하였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 내가 닮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윌 듀란트는 “철학은 지혜, 혹은 깨달음의 추구이다. 지혜는 살아가는 기술이며 그 최종 목표는 행복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매일 매일 느끼고 있는 중이다.

『논어』를 읽으며 끊임없는 격물치지를 통해 다양한 공부와 경험을 하고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축적하는 온고지신의 과정을 하는 것이 내 공부의 방향성이 되었다. 나는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 동안 많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래서 “점 하나를 찍을 때는 마음이 그저 한 점 위에 있고, 한 획을 그을 때에는 마음이 그저 한 획 위에 있어야 한다” (『숙종실록』) 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다. 무엇을 할 때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런저런 고민에 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뚜렷하게 좋아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덜 흔들리게 되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야는 식품이다. 지금 배우는 경제학과 경영학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제대로 보기 위한 좋은 안경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역사나 인류학과 같은 다른 공부하면서도 ‘중국에서 시작된 차문화가 어떻게 영국에 가서 꽃피게 되었는지’, ‘대륙별로 어떻게 다른 조리법이 발달하게 되었는지’ 등 내 관심사로 연결 짓는 과정을 하게 되었다. 미술과 음악을 공부할 때도 식품의 아트마케팅과 연결 짓고, 외식업체의 음악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나도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스티브잡스가 말했던

‘connecting the dots’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아하는 공부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꿈도 찾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음식과 심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달하여 사람들이 바른 식습관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재는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회, 더 구체적으로는 식품산업에 대한 나만의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싶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식품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싶다. 내가 요즘 빠져있는 공부는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이다. 나는 생산과 유통에 호기심이 많고 특히 농식품 경영에 관심이 많아 지역 중심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 정책, 지역 브랜드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영과 CSV(creating shared value : 공유가치 창출)의 관계가 흥미롭다. 농식품 경영과 관련하여 식품과 소비자 행동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목표이다. 나의 관심분야에 대해서 소비자행위 전문가인 코넬대학교의 브라이언 완싱크의 연구를 매우 흥미롭게 보았다. 처음 식품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인간의 식사 선택은 사실 허기보다는 접시의 분량이나 크기 또는 음식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느냐 등 주변 상황과 관련 있는 일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완싱크 교수의 연구가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먹게 하는 이유들을 밝히며, 체중 증가 없이 좋아하는 것,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부엌과 식습관, 생활환경을 재정립하게 돕는다. 공부를 하면서 앞서 공부하고 계신 분을 통해 내 공부의 목표를 더 뚜렷하게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성찰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할 때 진실하지 않았는가? 벗고 교재할 때 미덥지 않았는가? 선생님께 전수받은 것을 익혔는가?” (『학이』)

나도 『논어』에 나온 이 구절과 같이 충, 신, 습 세 가지를 성찰의 도구로 삼고자 한다. 배움의 목적은 성공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논어』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자에게서 예에 따라 사는 것은 정해진 법칙에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도덕적 욕구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항상 학문적인 공부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고 많이 배웠다. 『논어』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글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께 연락도 잘 하지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생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동생과 올 해부터 같이 살게 되었는데 동생이 청소를 너무 하지 않아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많이 싸웠다. 하지만 동생이 혼자서 하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내가 항상 솔선수범하여 정리정돈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하니 동생도 이제는 정리를 조금씩 잘하고 있고 동생과의 사이도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좋아하는 공부는 조금 다르지만 이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서로가 공부하는 폭을 넓혀가기도 한다.

또한 『논어』에 따르면 공부를 학문과 인격 향상을 위한 토대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 사회를 위한 지식으로 환원하는 것, 그것이 유학의 지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다. 식품산업은 국가경제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업은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다.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식품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빈곤이나 기아, 착취의 문제, 그리고 대량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나 안전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책으로 배운 딱딱한 지식을 넘어 사람과 세상과 지혜의 길

로 나아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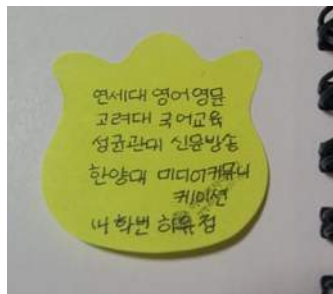
“시를 통해 순수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예의를 통해 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며, 음악을 통해 인격을 완성한다.” 공자는 교육에 있어 음악을 통한 감성의 교육도 강조했다. 나도 가사가 예쁜 노래를 좋아하는데 가사가 좋은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면 Anastia의 At the beginning이다.

*And life is a road and I wanna keep goin'
Love is a river I wanna keep flowin'
Life is a road now and forever wonderful journey
I'll be there when the world stops turning
I'll be there when the storm is through
In the end I want to be standing
At the beginning with you*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번역하면 “인생이란 건 지금이나 영원토록이나 정말 멋진 여정이죠.”라는 의미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갈망이 공부에 열정을 담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바쁜 학기를 보내며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 잊고 있었던 나에게 『논어』는 진정한 공부에 대한 틀을 만들어준 참 고마운 존재이다. “인격을 수양하지 못하는 것, 배운 것을 익히지 못하는 것, 옳은 일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이다.”라고 공자에게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만든 공부의 틀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며 기쁘게 학기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마음껏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찾았고, 함께 공부해 나갈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기쁘지 아니한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자

| 신문방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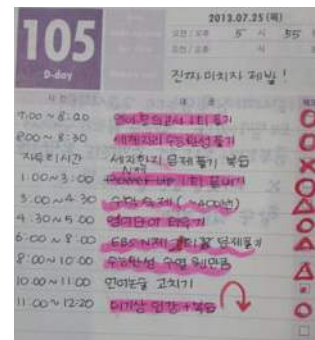


이 메모는 고등학교 3학년 8월 즈음이었나, 한창 대학교 수시 원서지원을 하던 중에 적었던 지망 대학 및 학과이다. 운 좋게도 나는 연세대, 고려대를 제치고 3순위로 가고 싶었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수많은 대학 중에 성균관대학교에 진학해 전공 예약생도

아니고 계열제로 들어와 과까지 원하던 곳에 간 것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다시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이다. 어느새 대학생 2학년이 되어서 나의 2년 전 가고 싶던 학교 및 학과,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은 수험생이라고 나름 스티디플래너를 작성한 덕분이다. 나의 스티디플래너에는 일, 주, 월 단위 목표 및 계획과 이를 반성한 내용이 빼곡히 들어있다. 이 외에도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쪽지 내지 편지라거나 다짐, 일기도 들어있어 지난 지금이라도 꽤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하지만 "스티디" 플래너만큼 공자의 지(智)에 대한 사상과 생각을 대입해 나의 배움을 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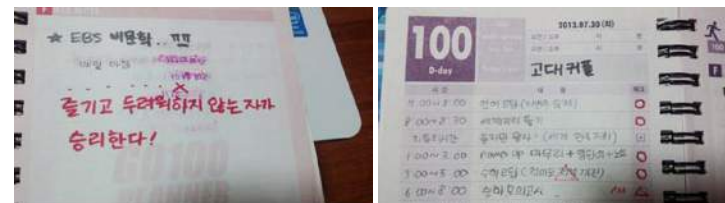
자세에 있어 바른 점과 그릇된 점을 짚고 반추해보려 한다. 이를 통해 참된 지(智)를 대학생이 된 지금 어떻게 개선해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려 한다.

우선 나의 기록에서 발견한 지(智)의 올바른 점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사물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기 위해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성취도를 파악하며 끊임없이 자기반성하고 공부를 향해 갈망하고 추구하였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기 보다는, "진짜 미치자 제발!"이라는 목표 같이 하루 다짐을 했으며,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꼼꼼히 적어 반성했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를 실천한 모습이다.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고쳐야 비로소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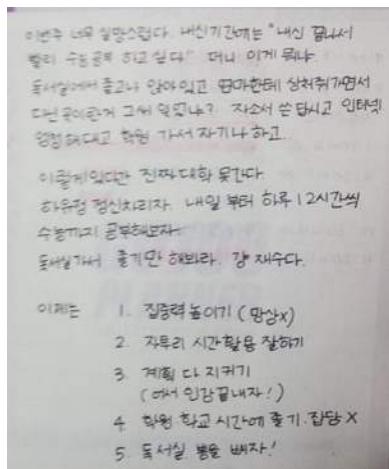


이러한 격물치지를 향한 노력은 결국 학습의 즐거움에 도달한다. 때에 맞춰 익히는 것의 기쁨은 고민의 산물의 즐거움이다. 즉, 마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이를 즐기며 습득하는 것은 진정한 학습의 산물이며 그 다음 학습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 마치 나비효과 같이 증폭된다. 학습의 즐거움은 물론 학습 그 자체에서 나오기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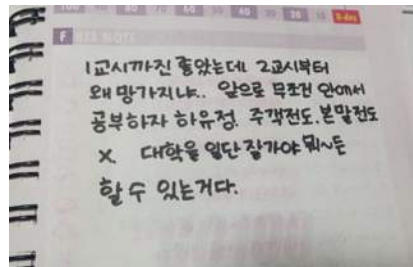
만, 학습을 위한 '즐거운 상상'에서도 나온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못하는 수학을 잘하는 이과 남자애를 좋아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피식-웃음이 나는 그 친구가 고려대학교를 희망하는 것을 알고 고려대학교에 함께 진학하고 싶다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공부를 하고 의지를 다졌다.



열심히 공부해서 600년 전통의 성균관대에 입학했지만, 공자께서 강조하신 지(智)에 그릇된 모습도 많았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나를 위해 공부하기도 했지만, 남들을 신경 쓰면서도 공부했다는 것이다. 우선 나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리지 못하였다. 학원을 보내주시는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과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공부를 잘한 첫째 딸이었기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담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기에 학원과 독서실에 보내주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는 효(孝)에서 그릇된 일은 아닐지라도, 공부에 대한 자세인 지(智)에 있어서는 다른 이를 위한 공부이기에 공자의 사상에서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의 배움의 자세에서 잘못된 것은 나 자신의 공부에 몰입하기 보다는 남들을 이기려고 하는 습성이다. 불여야, 오여여불여야(弗如也, 吾與女弗如也)의 공자와 자공의 대화와 같이, 공자는 자공과 자신이 안회만 같지 못하다며 자신을 낮추기도 하지만, 한 단계 나아가보면 자공에게 안회와의 선의의 경쟁을 암묵적으로 복돋는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자는 한계를 자극해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어 결국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스티디플래너에 적힌 나의 모습은, 단순히 보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목표를 세우는 것일 수 있지만, 그 빈도나 이에 따른 스트레스



를 고려해보면 학습의 즐거움을 해칠 정도로 심했다. 즉, 배움 자체에 뜻을 둔 것이 아닌, 남을 제치려는 경쟁적 습성이 지(智)에 그릇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발상이다. 이는 비단 나 하나의 수험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많이들 생각하는,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발상이다. 나의 메모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을 일단 잘가야 뭐~든 할 수 있는 거다.”는 즉, 학문을 배우고 깨우치는, 나 자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개념과 정반대이다. 이를 잘못된 생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부하여 대학에 입학했기에, 나의 학습의 목표인 대학이 사라져 한동안 -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 대학에 와서 “까지”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어떻게 대학생으로서 수험생 때 미처 다 실천하지 못한 배움의 자세를 행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나는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왜인지는 모르지만 ‘광고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럼 왜 그 꿈을 이루고 싶어?”라는 질문에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사실 이 글을 적는 지금까지도 왜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의 동기보다는 그저 머릿 속에 떠올려지는 자유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만 똥똥 떠다닌다. 어찌 보면 논어 사상을 바탕으로 비추어 본 고등학교 때의 배움의 그릇된 자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나의 꿈은 우선 잘 못 설정되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끊임 없는 진리 탐구를 위해 평생 동안 학습을 해 자신을 계발해야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나의 꿈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나를 계발할 것인지, 또 그 모습이 어떻길 바라는지를 종합적으로 답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생각해볼 때, 나의 꿈은 단순히 하고 싶은 직업인 다섯 글자에 한정되기엔 역부족이며 단안적이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어찌 보면 나만의 목표일 수 있다. 나의 본질을 찾고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수적이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내면적 수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실천을 이루어 이 과정이 다른 이의 삶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또 제대로 된 꿈은 ‘남에게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배울만한 이'가 되는 것이다. 이를 듣기만 했을 때는 사회적 실천만을 강조한 꿈인 것 같아 보여도, 사회적 실천은 충분한 위기지학(爲己之學)과 내명자경(內明者敬)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기에 지(智)를 잘 담아낸 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엄청난(!)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배움에 몰입할 수 있을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독서를 열심히 해 지금 만나지 못하는 대단한 이들과의 글자를 통한 소통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쉽게 몰입하지 못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보다 남을 생각하며 공부하던, 대학이라는 가시적 목표만을 위해 공부하던 모습이 다시 펼쳐지지 않게 의지를 다잡고 지(智)를 실천해야 한다. 이 거창한 목표가 헛되지 활자로만 남지 않게.

•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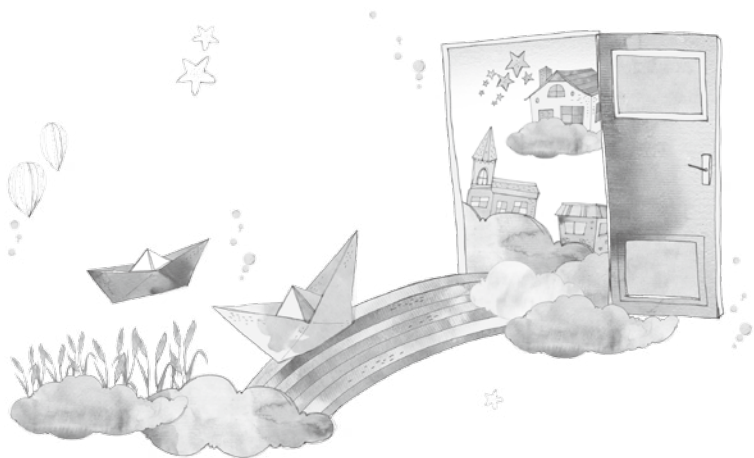
『논어』를 통해서 본 ‘배움’의 의미

| 경영학과

나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나와 같은 대학생 중에 공부를 즐겨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는 몇몇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논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일본에서 유학으로 온 이 나라 한국은 “조” 학벌사회다. 그것은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도서관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우들은 잠자는 시간도 아껴 공부를 한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의 “독서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부지런한 일본 학생”은 멸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대학생들은 이제야 초등학생보다 공부를 안 한다고 주장된다. 과연 어느 쪽이 좋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쪽도 나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양자 자기를 위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였다.

공자가 말하는 공부는 ‘배움의 기쁨, 공부의 즐거움’이다. 공부는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즉 위기지학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공부, 즉 위인지학은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닌 것을 『논어』에서 배웠다. 나는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의식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이었다. 딱 세상은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흐름이 찾아왔다. 어머니는 한류 드라마를 즐겨 보시고 나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잠깐 곁눈으로 그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그 당시는 한글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혹시 그냥 기호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나한테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2 외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중국어나 한국어나,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아는 선배들이 다 “중국어는 발음이 너무 어렵다, 한국어의 한글은 외우면 금방 할 수 있게 된다! 어순도 똑같고 한자어도 많다!” 그런 조언을 받고 한국어를 선택했다. 수업은 바로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같은 “왕초보” 상태로 간단한 회화부터 하나하나 배웠다.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친구가 생기고 메일을 교환하게 되었다. 배우고 나서 바로 쓸 수 있는 외국어 공부는 자기에 맞는 공부법이라고 깨달았다. 그런 식으로 점점 한국어를 배우는데 즐거움을 느꼈다. 방송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 K-pop을 듣는데 가사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거야말로 자기만의 만족감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나는 말 그대로 한국어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치열한 공부경쟁이 심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20년간 중에 지금이 가장 공부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은 학벌을 중시하는 나라다. 위대한 학력이 있어야 취직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런 사회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공부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어린 때부터 여러 종류의 학원에 보내고 자식을 “천재”로 만들어 낸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꿈을 갖게 된다.

개성이 없어진다. 이것으로 정말 좋을까? 사람들은 공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렇게 로봇처럼 공부하고 재미있는가?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문을 갖고 곤란한 적이 많았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패닉 상태이었다. 일본을 기본으로 두고 수업을 듣다가, 한국어는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난다. 시험을 보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 다 포기하고 일본에 돌아갈까. 나는 그대로 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논어』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단지 지식의 축적이나 지적 능력의 형상을 위한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책에서 본 이 한 절이 나의 마음을 진정해줬다.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이 과정은 공부가 아니고 무의미한 갈등이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즐겁게, 기쁘게 무언가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을 나는 몇몇도 본 적이 없다. 공자가 말한 듯이 대학생들은 도구화된 학문과 스펙용 공부에 매몰되어 있고 친구들은 거의 다 힘들어 보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이었다. 더불어 한국 대학생들의 목표의 종착점은 아까 말한 듯이 다들 똑같이 보였다.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오직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체 누구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없는가? 그것은 일본 대학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대학생들은 정확한 꿈이 없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으로 온 학우들이 워낙 많다고 한다. 물론 아닐 경우도 있다. 그런 풍조 속에서 목표 없이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이 싫어서 한국에 온 것도 또 다른 내가 한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곤란하고 지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배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책상 위에서, 교실 내에서 하는 것만이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계속 나는 생각한다.

나는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른들의 말이나 조언에는 반드시 힌트가 숨어 있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께 배웠다. 자기보다 한살도 나이가 많으면 일 년만큼의 경험의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아도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자기 지식을 높일 때 가장 유용한 조언이 될 것이라고 늘 말해줬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솔직하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어렵다고 흔히 말하고 나도 실제로 그렇게 느껴진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게 바로 ‘안다’는 뜻이라고 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나는 아직 스물 한 살이다. 『논어』를 학습하고 나서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고 또 아는 척해서 넘어가고 나중에 더 큰 실수를 일으키기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는 척을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뭐가 모르는지 모르겠다는 상황에 자주 빠지기도 한다. 확실히 자기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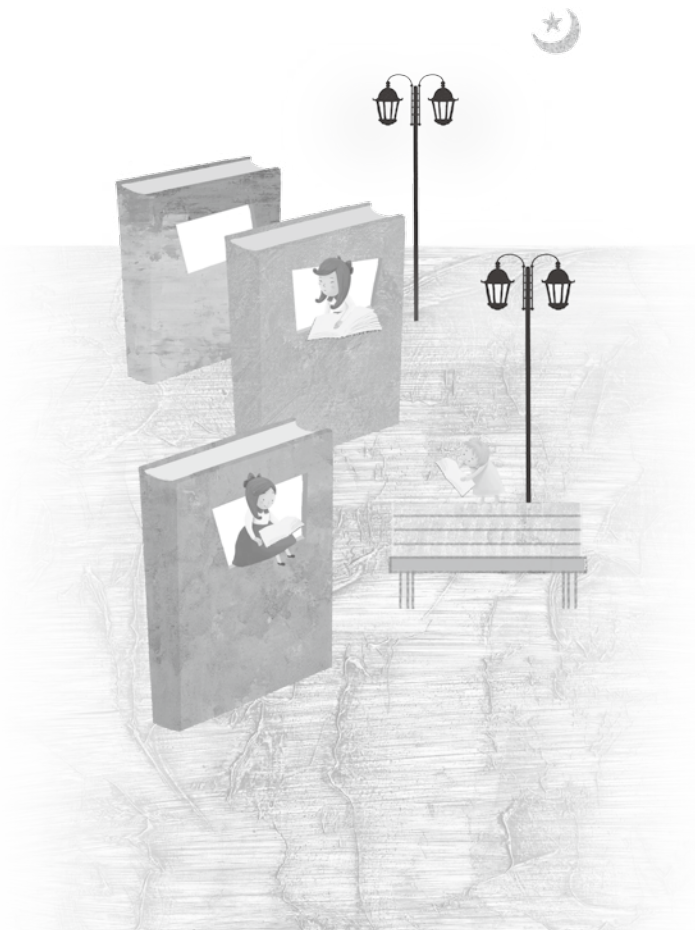
‘배우다’라는 것의 첫걸음은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태어나서 부모님이나 형제의 말을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운 것처럼. 환경이 나를 형성한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제대로 좋은 말을 쓰지 않거나 욕을 많이 하고 장황한 핑계만을 대는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서는 좋지 않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이 『논어』도 오랜 역사를 넘어서 지금까지 공자의 자세에 간명을 받고 모방하고 그리고 배우게 된 자제들이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남겨 줬던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운명이라도 해도 근본적인 것은 오래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도 믿는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너무나 넘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은 아버지 말은 ‘절대적’이었다고 한다. 그런 사회 경향은 아까 말한 듯이 점점 사라져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윗사람들의 가르침, 한정된 정보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그런 방식이 바꿨다. 어느새 아버지들은 조용하게 되어버렸다. 반대로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어디를 봐도 정보가 넘친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선택이다. 그것도 바람직한 선택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윗사람 말이든 넘치는 정보든 자기가 정말로 얻고 싶은 정보는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바로 “지”라고 할 수 있다. 더 “지”를 높이려면, 치우침 없는 사고방식이나 사물과의 접근법에 근거한 지식을 모을 필요가 있다. 넘치는 정보 속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를 갖고 배우는 자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의 하나가 “지”의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의 가르침 중에 “중용”라는 개념이 있다. 나는 이 “중용”이 어떤 사회에서도 어떤 삶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위하면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너무나 바빠도 본래의 자신을 잃게 되고 시간이 넘친다고 해도 쓸데없는 잡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용”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정」 제2부에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하게 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 이런 말이 있다. 우리들은 때로 종교나 정치 같은 면에서 극단적인 의견에 고집한다. 당신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호되게 꾸짖고 상대방의 의견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보인다. 양보하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지금 사회에서 부족한 것은 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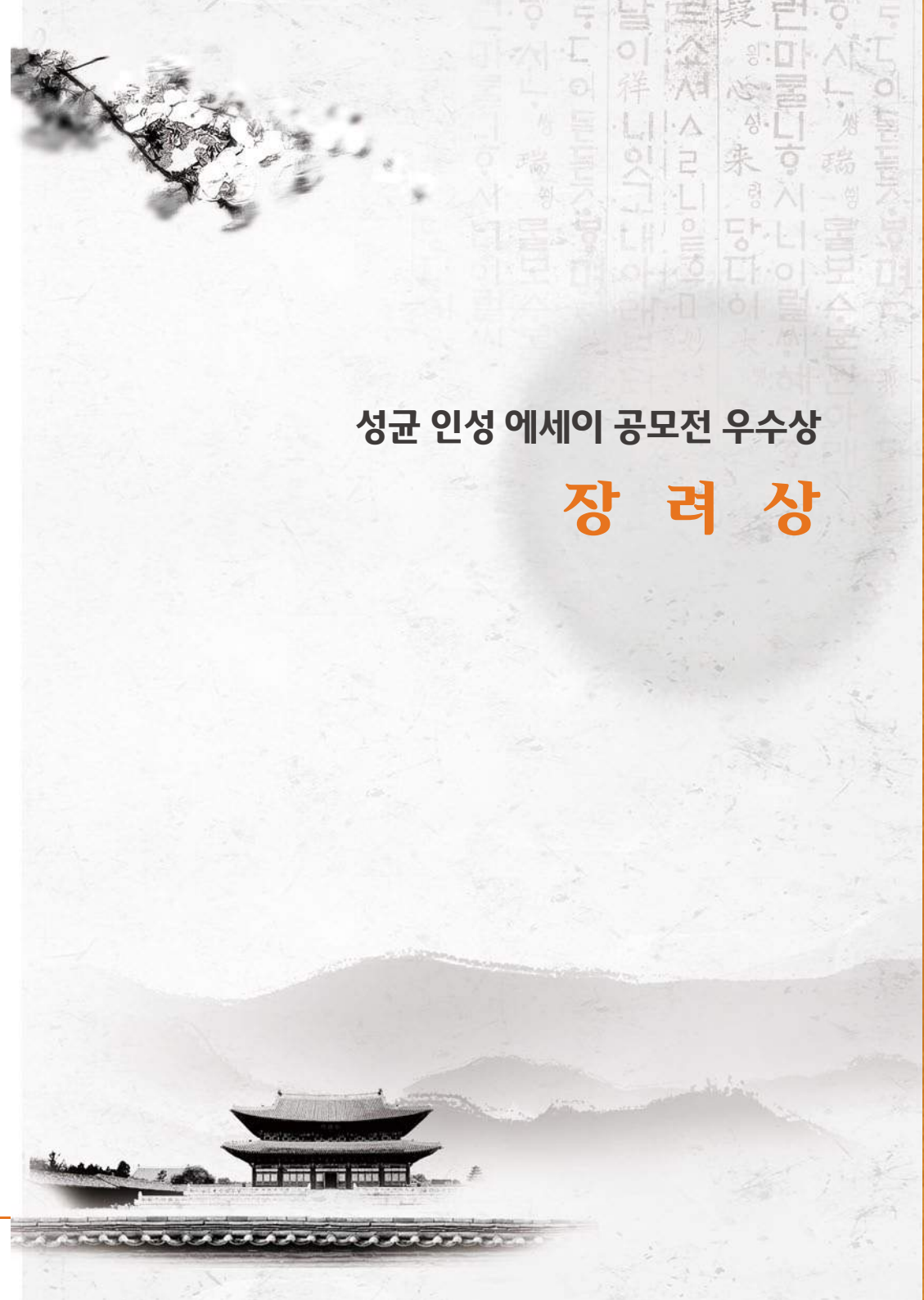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나는 당연히 천재가 아니다. 자신을 닦을 위해 사람은 평생

‘배움’을 수행해야 한다. 좋은 사람부터 좋은 자세를 배우고,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남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부에 대한 고민의 답이 이 『논어』 “지” 부분에 담겨 있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동하는 자세, 나는 평생 그런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고 싶다.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장 려 상



스노보드가 알려주는 것

|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지난겨울 지인의 부탁에 의해 스키장 렌탈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일의 특성상 남는 시간이 매우 많았고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탈 수 있었다. 대학생으로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갈수 있었던 겨울 레저스포츠를 매일같이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스노보드를 타고 배우면서 느꼈던 것은 재미를 넘어선 이상의 것이었다. 그때의 그 배움은 이후 내 삶의 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렌탈샵에 도착하고 나서 사장님과 장사 준비를 했다. 이후 시간이 남을 때 마다 서점에서 직접 사온 스노보드에 관한 책을 읽고 연습하기 시작했다. 스노보드를 타기위해 내 몸무게와 키에 맞추어서 선배가 장비를 맞추어 주었다. 스노보드를 나에게 맞게 맞추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선배가 내 등을 민다. 무의식적으로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레귤러라고 선배가 말해준다. 스노보드는 내 몸을 기준으로 좌 또는 우를 향해서 나아가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좌/우 둘 중 하나를 자신의 앞으로 선택해야 한다. 몸의 왼쪽이 앞을 향하는 것을 레귤러, 반대로 몸의 오른쪽이 앞을 향하는 것을 구피라고 한다. 나는 앞의

테스트를 통해 내가 가야할 방향이 왼쪽이라는 것을 알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처음 부푼 기대를 안고 스키장에 입장했을 때 선배들에게 강습을 받았다. 먼저 배운 것은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법, 경사를 올라가는 법, 리프트를 타는 법, 넘어지는 법,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후에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를 오르게 된다. 앞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것들은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법이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이다. 눈은 결코 폭신하지 않다. 눈이라 해도 딱딱하게 얼어있다. 그냥 맨땅에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심지어 빠르면 70km/s를 넘는 속도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큰 충상을 입을 수 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안전을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배워야한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잘 타기 위해서이다. 넘어지면 아프다. 엉덩이가 깨질 정도로 아프다. 어느 친구는 엉덩이를 갈아치우고 싶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이 스노보드에 흥미를 붙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아픔을 반복하다보면 내 몸은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두려움을 느끼는 몸은 더욱더 넘어지기 쉽다. 여기서 제대로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면 덜 아프게 심지어는 아프지 않게 넘어질 수 있다. 보드를 배우면서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즐길 수 있어야 다음 과정을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

이제 기초적인 준비가 되면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를 올라가게 된다. 슬로프에서 처음 배우는 것은 미끄러지기이다. 몸의 정면을 산 아래 방향 또는 산 위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보드의 옆면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감과 멈춤을 반복하는 것이다. 발을 이용해 보드의 각을 조절해 미끄러지는 감각을 익히고 눈에 적응하는 단계이다. 이때 처음 자세를 배우게 된다. 무릎을 굽히고 팔을 벌리고 몸을 보드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왜 무릎을 굽혀야하는지 왜 팔을 벌려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의 연습과 공부가 필요하다. 다만 내가 사온 책과

수많은 동영상 강좌들은 이것을 가르쳐주었고, 선배들의 조언도 이와 같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지 않고 최대한 정석대로 따라했다. 나중에 자세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내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다음으로 배우는 것은 슬로프를 대각선으로 직진하는 것이다. 앞의 미끄러지기로 자세를 익히고, 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다음으로 회전하는 법을 배운다. 이 부분이 스노보드를 배울 때 가장 재미있었던 첫 번째 난관이었다. 두발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보드를 돌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처음 제대로 던지고 마주했었다면 조금 더 일찍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책에도 동영상에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고안해서 알려줬지만 내가 회전하는 법을 익힌 후에야 그 말들이 내 안에 담길 수 있었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우리는 맨땅에서 어떻게 몸을 돌릴 수 있을까? 두 발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 발을 먼저 돌리고 다른 발이 따라가면 된다. 그렇다면 보드에서 두 발이 묶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운동신경이 좋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따라간다. 양발을 앞뒤로 차서 보드를 돌리고 상체가 따라 돌아가는 방법으로 회전시킨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회전을 성공했을 때 기쁘고 쉽다는 생각에 그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논어』 「위정」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유야!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위정」)

나는 회전하는 법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모르는 것을 모르고 안다고 말한 것이다. 같이 타는 선배가 꾸준히 알려주고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이때 스승의 존재가 매우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

지 알려 주어서 나 스스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게 하였다. 어쩌면 이 회전에 대해서 아직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지도 모른다. 아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극에 달하는 배움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토대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기에서 배웠다. 이 배움은 이후 내 대학 생활에 수업에 대한 태도와 교수님을 대할 때 자세를 바꾸어주었다.

다시 돌아가서 회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올바르게 회전하는 것은 신기한 몸의 특성을 이용한다. 몸의 탄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몸을 비틀면 다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몸은 고무줄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여기에서 팔을 벌리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두 팔을 벌리고 몸을 비틀어보면 근육의 비틀림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즉 효과적으로 비틀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시선을 회전하려는 방향으로 비튼다. 이후 앞의 팔을 진행방향으로 틀어주고 뒤의 팔은 대칭적으로 틀어준다. 이때 팔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상체가 돌아가서 가슴을 기준으로 어깨선이 비틀려야한다. 그렇게 해두고 기다리면 보드가 회전하게 된다. 이것을 배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급한 마음이다. 비틀림을 이용하면 보기 좋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 있지만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없다. 회전시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초에서 길게는 1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고 회전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려야하지만, 이미 나는 발을 차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이다. 선배들의 조언에 의해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고칠 수 있었다.

발을 차는 것이 더 힘이 좋고 빠르다면 왜 굳이 비틀림을 이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 배우는 것을 익혔을 때 비틀림과 함께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이다. 보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내 발의 힘만 가지고 회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속도를 이용해서 회전력을 높이는 방법이 앉았다 일어서기이다. 또한 이것은 비틀림과 함께 작용할 때 매우 큰 효과를 보인다.

스노보드는 양 끝이 둥그런 호로 되어 있다. 이 양끝은 철로 마감되어있고 끝은 평소에 날카롭게 정비해둔다. 보드를 눌러주면 이 둥그런 호가 더 원에 가까워지고 눈 위에서 압력을 준다면 눈을 파고들어 이 원을 따라서 회전하게 된다. 이 압력을 주기위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배우게 된다. 어떻게 보드에 압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도 회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내 발의 힘을 이용해서 힘껏 슬로프를 밀고 당기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내 몸의 무게와 속도를 이용해서 슬로프를 누르고 덜 누르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는 회전과 다르게 두 방법을 다 배웠을 때 쓸 수 있다. 재밌게도 두 번째 방법을 연습하다보면 첫 번째 방법은 자동으로 이해하게 된다. 첫 번째 방법은 난잡하고 오목 볼록이 많은 슬로프에서 급한 회전이 필요할 때 쓰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슬로프에서 쓰인다. 회전을 하게 되면 먼저 앉았다 일어나는 두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된다. 회전할 때 시작지점에서 서서히 앉고 끝나는 지점에서 서서히 일어서는 것을 연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서히’라는 단어이다. 앉았다 일어서기의 목표는 회전의 시작에서 바닥에 압력을 주는 것이고 끝에서 압력을 해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앉았다 일어서기의 재밌는 특징은 그 속도에 따라 바닥을 눌러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강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빠르게 앉으면 바닥을 덜 눌러주게 되고 느리게 앉으면 바닥을 더 눌러주게 된다. 반대로 빠르게 일어서면 바닥을 세게 눌러주게 되고 느리게 일어서면 바닥을 덜 눌러주게 된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빠르게 앉고 일어서는 것은 내 발의 힘으로 바닥을 누르고 덜 누르는 것이다. 상체를 고정시키고 발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모양이다. 반면 천천히는 관성을 이용해서 바닥을 눌러주는 것이다. 상체를 상하로 움직이는 모양이다. 앞의 빠르게는 첫 번째 방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느리게는 두 번째 방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왜 앉았다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시작지점에서 확 앉고 끝 지점에서 확 일어선다. 목표하는 바에 반대로 바닥을 누르기 때문에 안하니 만도 못하다.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재대로 질문을 던졌어야했다. 왜 이때 앉아야하는지, 왜 이때 일어서야하는지, 왜 서서히 해야 하는지, 그 어느 것도 질문하지 않았었다. 위에 적혀진 「위정」 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때 앎을 찾아갈 수 있었다. 책과 동영상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쳐갈 수 있었다.

이제 위의 배운 것을 연습하다보면 지금 경사의 슬로프는 지루해지고 심심해진다. 그리고 실력에 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더 상급자 코스의 슬로프로 향하게 된다. 코스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주로 경사가 급해진다. 경사가 급해지면 내려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속도를 접하게 된다. 이 속도를 접하면 첫 번째로 두려움을 겪는다. 무섭기 때문에 경사를 마주하지 못하고 몸이 뒤로 쳐지고 넘어지기 쉽다. 위의 회전과 압력주기를 재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 수 있어야한다. 마이클잭슨의 반 중력 춤처럼 기울일 수 있어야한다. 경사가 낮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경사가 커질수록 두려움에 몸이 뒤로 쳐지게 된다. 이를 전경을 주다라고 이야기한다. 전경을 주기위해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해야한다. 내 몸의 평형기관의 통제를 벗어나서 슬로프에 몸을 던지고, 경사를 마주할 수 있어야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논어』의 「자한」 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인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한」)

우리는 평상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슬로프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리프트를 타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관찰하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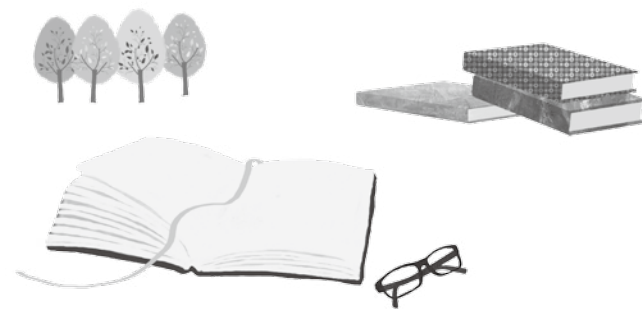
어질 수가 없다. 두려움에 떨어 뒤로 넘어지고 욕심을 내다가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도 결코 진행방향인 앞으로 넘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경사를 극복하는 것을 시작한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머리로는 알아도 내 몸은 경사를 마주했을 때 떨고 있을 수 있다. 경사에 몸을 던지는 용기를 발휘하여 직접 마주하다보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용기를 발휘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경사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남은 할 일은 그저 스키를 타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뒤로 타기이다. 위에 말했듯이 보드를 타는 방법에는 왼쪽을 앞으로 하는 레귤러와 오른쪽을 앞으로 하는 구피가 있다. 뒤로 타기란 자신의 주방향 반대로 타는 것을 말한다. 나는 레귤러였기 때문에 구피가 뒤로 타기가 되는 것이다. 뒤로 타기를 배울 때 즈음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슬로프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시선이 향하는 대로 보드가 알아서 움직여주었다. 하지만 구피로 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다시 보드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쉽게 넘어지며, 스스로의 실력을 모두 잃은 것만 같았다. 『논어』의 「자로」 편의 다음 문구가 이 상태를 말해준다.

“제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제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자로」)

나는 레귤러로 탈 때에는 몸을 크게 의식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탈 수 있었다. 반면 구피를 타는 순간 내 머리로 아무리 이렇게 타야한다, 그럼 안 된다 외쳐도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다. 옆에서 시원하게 내려가는 다른 사람을 보고 질투하기도 한다. 고개만 왼쪽으로 돌리면 저 사람보다 잘 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나를 유혹하기도 한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레귤러를 통해 배웠던 올바른데 가까운 지식들은 레귤러를 타는 몸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구피

를 탈 때에는 지식은 있었지만 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몸에 스며들게 하기까지 다시 연습이 필요했다. 다시 처음부터 회전하는 법, 앉았다 일어서는 법, 전경을 주는 법 등을 차례대로 익혀야했다. 그리고 몸이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는 구피로도 탈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알고 있는 지식은 물론 도움이 되었다. 내가 몸소 겪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익히기 만하면 더 빠르게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바로 알고 그것을 익혔을 때 비로소 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배움도 역시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다.

바로 알기,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기, 얕으로서 두려움을 밝혀내고 이겨내기, 내 마음 깊은 곳에 배움을 익히기 등 수많은 것을 짧은 기간 동안 배울 수 있었다. 삶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조금씩 삶에 적용해왔고 이 배움은 조금씩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학업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선물로 안겨주었고, 평소 생활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스키장을 떠난 지금, 배움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영향은 다시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배우고 있다.



똑똑하게

| 경영학과

두 번째 수능을 100일 앞두고 있던 나에게 선배 언니가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남은 100일을 잘 계획하여 후회 없는 100일을 만들라는 평범한 내용의 편지였다. 고마운 마음은 들었지만 재수를 결심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준 이야기였기 때문에 큰 감동은 없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달랐다. “똑똑하게 공부하길 바라!” ‘똑똑하게 공부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생소한 표현이었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에게 ‘넌 정말 똑똑하다’라는 칭찬을 해준 적은 있지만 ‘똑똑하게 공부하라.’ 또는 ‘똑똑하게 살아라.’라는 조언은 기억에 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편지였지만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는 편지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왜 언니는 나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조언하지 않고 ‘똑똑하게 공부하라’고 조언해주었을까. 수능이 끝나고 언니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언니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점이 취약하거나 강한지 돌이켜보며 효율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이었다.

그 후로 나는 ‘똑똑하게’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다. 일부러라도 그 말을 더 자주 사용하려고 했다. 내가 느끼기에 나는 아직 그 뜻을 넓고 깊게 이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완전한 뜻으로 전달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그 단어를 봤을 때 느꼈던, 의외로 신선했던 충격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내가 기억하는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똑똑하게 하라고 말했던 것은 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이다. 나보다 한 해 일찍 대학에 입학한 그 친구는 내가 한창 새내기 생활을 즐길 때쯤 1학년을 마치고 입대하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로에게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던 사이였던 친구로서 나는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단어가 ‘똑똑하게’였다. 사실 훈련소라는 곳이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친구에게 ‘똑똑하게 행동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다.

그 단어를 써내려가기 전보다 오히려 그 단어를 편지지에 쓰고 나니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똑똑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느꼈던 사소한 창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세웠던 인생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나의 실수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똑똑하지 못했던 나를 질책이라도 하듯 끊임없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혼자 웃기도 하고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다 보니 ‘똑똑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다.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는 나의 상황에 맞추어 외적인 것들을 응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옳다고 판단하고, 외부적인 상황이나 반응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아무리 남들이 말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간단한 생각이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라고 이름 붙여진 수많은 자기개발서가 판매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 저자들의 성공담, 또는 무용담이라는 생각들이 때가 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한 인물을 설정하여 타산지석의 자세

로 배움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진정한 나의 롤모델을 찾지 못한 내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나도 그들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사서 읽은 후, 그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 지식이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나를 먼저 알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구나.’라고 말하고, 주자는 『주자어류』에서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에게 간절하게 체험하려는 것이니, 단지 글을 짓기 위해 책을 보아서도 안 되고 또한 무엇을 노려서도 안 된다.’라고 권하며 자신을 체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를 위한 학문, 즉 위기지학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의 대학생들은 학점을 위한 학업, 취업을 위한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독서 습관에 관한 통계만 봐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전공 서적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거의 책을 읽지 않는다. 나 역시 마음만 먹으면 통학하는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의 유혹에 빠져 책을 등한시하게 된다. 옛 성인들이 강조하듯이, 책을 읽다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다.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고, 더 나아가 똑같은 사람이 읽고 있다 하더라도 책을 읽는 그때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 볼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그리고 나의 부모님도 요즘 학생들은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부모님이 학생이던 시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공부에 투자하고, 더 치열해진 입시 경쟁을 헤쳐 나가야만 했던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렇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난 지금의 나는 어른들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수능을 위한 공부, 점수를 위한 공부를 천편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지식만이 쌓이게 된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고, 자료를 찾아가며 열심히 연구하여도, 결국 입시 경쟁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방책으로 입시 공부와 독서를 병행하려 해도 신체적, 물리적 제약 때문에 독서에 시간을 할애하기 쉽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30~40년 전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성적은 상승하였을지 몰라도 상식이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 많아졌다. 듣고 싶은 과목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 가는 요일과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나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책을 더 자주 읽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펴면 몸이 힘들고, 또 방대한 양의 책 중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쭙잡은 독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 외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통학 시간에 지하철에서 서서 가다보면 책을 들고 읽기 쉽지 않다. 예전에는

다시 뵈 그날까지 다할게요

| 경영학과

그런 상황이라면 MP3를 귀에 꽂고 음악에 정신을 놓아버리곤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렇게 음악을 들으며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머릿속에 더 많은 것을 그려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를 생각하니 또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그러한 생각의 고리들이 끊임 없이 이어졌다. 진지한 고민이 아니더라도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 잘했던 점은 스스로 민망할 만큼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마치 다른 사람을 꾸중하듯 질책한다. 제 3자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고민해 보는 것도 생각의 고리 중 한 부분이다. 또 그날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과 연결하여 확장시켜 이해해보고자 노력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곤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니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어색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똑똑하게’라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며 공부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며, 외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더라도 생각만큼은 자유로운 군대에서 스스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깨달은 만큼 더 깊게 깨닫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다. 남들은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린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 열심히 생각하고 똑똑해지려는 나 자신에 긍지를 가지고 싶다.

헛똑똑이

1년에 딱 2번, 설날과 추석이면 우리 가족은 시골에 내려갔다. 할아버지는 매년 여느 때와 같이 특유의 함박웃음으로 나를 맞아주셨다. 어릴 적, 따뜻한 금빛 햇살 아래 초록색 대문 앞에서 나를 보며 한껏 웃어주시는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는 나에게 유독 그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되는 까닭은, 어린 나에게 있어 할아버지의 그 웃음에 담긴 사랑이 그만큼 따뜻했기 때문일 것이다. 시골에서 먹는 저녁 밥상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많은 음식에 늘 배가 불렀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집안 어른들께서는 항상 나에게 “공부는 잘 하고 있니?” 하고 물으셨다. 아주 어릴 때부터 들어온 질문이었다. 그 때마다 나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이어 하시는 질문에 나는 지난 시험 성적을 말씀드려야 했다. 성적을 말씀드리면 거의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1등을 했을 때는 “다음에도 꼭 1등 하렴.”

1등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에는 꼭 1등 하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로 열심히 하긴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 까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편이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누구나 부담감이 크겠지만, 나는 매우 어릴 때부터 유독 그랬다. 자존심이 센 나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아마 그것은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집안에서 공부하는 쪽으로 진로를 잡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으며,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반에서 1-2등 하나며 집안 어른들께서 우리 집안에 명문대 하나 나오겠다고 기대하시곤 했다. 부모님께서는 한편 이런 나에게 최대한 부담주지 않으려 하셨지만 사실 부모님의 기대가 그 누구보다 가장 크다는 것을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내게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전에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릴 적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그 도리가 무엇인 줄 몰랐다. 어쩌면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사실 딱히 알 필요가 없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리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수북이 쌓여 있는 영어 단어였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답은 “네, 그럴게요.” 라고 하면서도 도리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도리라는 것은 도덕시간에 배운 그런 착한 행동이려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시려니 하고 말았다.

비로소 깨달은 것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여름,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가셨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1달 정도 지났을 때, 학교에서 밤늦게 자율학습을 하는 도중에 문득 도리를 다 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에 대한 죄

책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았다. 도리라는 것,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 때 당시 나에게 있어서의 도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 동생으로서의 도리, 학생으로서의 도리, 친구로서의 도리 정도였다. 그 때 알았다. 사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공부는 그저 학생으로서의 도리 중 일부였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의 나에게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공부가 도리어 목적 자체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맹목적으로 그렇게 몇 년간 공부에만 집중해왔다. 학교 공부보다 도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공부가 가장 중요한 수험생이 되어서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정말 모순적인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으면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지금껏 할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그저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다른 것은 보지 못한 채 달려온 내가 멍청하게 느껴졌다. 수학 문제는 잘 풀지 몰라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헛똑똑이.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물론 그 때까지 살면서 인격적으로 크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 좋은 성격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원만한 인간관계에 있었지만, 도리로써 생각해 보면 나는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친구로서 지키지 못한 도리가 많았다. 비록 과거에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도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했다. 심지어 더 중요한 그것이 고작 공부였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슬프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스스로를 책하는 것이 비판에 그쳐버린다면 할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의미가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여태껏 공부가 가장 중요했던 나를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인간으로서 다 해야 할 ‘도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지금의 나는 수험생이니 수험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명심하며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사실 그

때 당시 나는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져있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날 이후로 놀라우리만치 공부가 잘 됐다. 공부가 제일 중요해서 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중요한,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도리’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수능을 향한 기나긴 레이스의 막바지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다시 볼 그날까지 다할게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모든 도리를 완벽하게 다 해냈다고 할 순 없지만, 과거의 나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졌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는 것,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언니를 위해 옆에서 격려해주는 것,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들어주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일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의무감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즉 당연한 것이므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仁)한 사람을 친히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도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논어』

「학이」 6장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단연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이 구절을 읽고 별 감흥이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어릴 적 내가 그랬듯이 공부도 좋지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려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 이 구절을 읽어서인지 공자께서 말씀하신 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글을 배우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 나에게 너무나 와 닿는 말씀이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뀌하며,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친구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못하였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말하겠다.’ 『논어』 「학이」 14장에 나오는 자하의 말씀이다. 비록 글이나 학문을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인 것이다. 이 구절 또한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다. 글이나 학문을 배우는 것도 공부이지만,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또한 공부인 것이다.

물론 공자께서 글이나 학문에 대한 공부를 배제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공자의 말씀을 나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태도를 겸비해야 그것이 의미를 갖는다는 뜻인 것 같다. 『대학』에 의하면, 사물의 이치가 이른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수기치인 한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여전히 사소한 도리조차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도리를 다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반성하곤 한다. 앞으로 항상 도리를 생각하며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줄여나가다 보면 할아버지와 공자께서 말씀하신 배움, 즉 진정한 지에 조금씩 가까워 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분명 언젠가 하늘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뵈게 될 때, 지난날처럼 특유의 함박웃음으로 나를 향해 한껏 웃어주실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지(知)’의 자세

| 약학과

얼마 전 『논어』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초등학교의 장래희망에 대해 말씀해주신 적이 있다. 통계를 찾아보니 1위가 연예인, 2위가 전문직, 3위가 교사, 4위가 공무원, 5위가 예술가라고 한다. 내가 초등학교이던 불과 15년 전만 해도 주변 친구들이 과학자, 대통령, 만화가, 슈퍼사장, 자동차디자이너, PD, 로봇공학자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장래 희망마저 자신의 뜻이 아닌 주위 어른들의 말씀과 사회분위기를 따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장래희망직업들이 자신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게 생각하는 분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고 멋지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직업,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직업들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는 학생은 거의 드물겠지만 그때부터 배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배움을 즐기고 올바른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학이』)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앞으로 10~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는 현재의 대학생세대이다. 지식인계층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산업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세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식인계층인 대학생들이 논어의 구절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을 즐거워하며, 먼 곳에서 오랜 친구가 오는 것처럼 배움을 반가워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배움 자체를 즐기기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학교성적과 다니고 있는 학교의 수준 등에 의해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성적에 맞는 꿈을 재설정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대학입시에서는 자신의 장래희망과 목표보다는 자신의 점수에 맞는 학교,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대학입학 후에도 자신이 왜 이 학과에 들어와서, 이 과목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끝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모두 내가 겪어온 길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한번쯤 생각하고 경험해본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학생들은 진정한 ‘지(智)’의 자세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없어 학문의 즐거움과 진정한 의미를 느낄 새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어』의 지(智)에 대해 배우며 나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다시 되돌아보며 내가 공부하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지식인 계층의 하나인 대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배움의 자세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구하는 데 민첩한 사람일 뿐이다.” (『술이』)

“열 집쯤 사는 동네에도 충직함이나 신실함이 나와 같은 사람은 있겠지 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야장』)

『논어』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는 원래부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즉, 배움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을 즐겁게 여기며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동안 학업에 충실한 자세이다. 특히 이러한 배움의 자세가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오로지 학문적인 것에만 진심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자신이 하고자하는 분야의 배움에 대한 열정, 진심,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수동적이고 학업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가 낮은 편이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졸업 시에 학업, 예술, 산업 등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일찍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할 학생과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로 나뉘어 학업으로 그리고 산업으로 빠르게 진출한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며 직업선택에 대한 사회와 어른들의 편견도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학업에 관련된 진로선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학입학률은 매우 높지만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지나친 관심 때문에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꿈과 그에 대한 배움의 즐거움과 의지가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력이라도 높이자라는 생각으로 점차 평균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많이 배운만큼 박봉에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피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심지어 취업이 너무 어려워 일찌감치 직업선택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의 청년층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화의 해결책은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착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의 학문과 산업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직업과 배움에 대한 편견이 없고,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지 최고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며 즐길 줄 아는 자세가 지식인 계층과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논어』의 다음 구절은 배움의 또 다른 자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위정』)

이 구절은 자신의 주관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지 말고, 반대로 스승과 환경을 통한 배움없이 자신의 생각의 방향만 따라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유의 가치관과 생각을 정립할 수 없고, 생각만 하다보면 남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틀에 박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는 맹자의 ‘시비지심(是非之心)’ 과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생각된다. 맹자는 학업에 정진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구별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을 정립해나간다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사건과 사물을 접했을 때 주위의 자극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주관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씩 대학생 자녀의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나, 성적에 대해 대신 이의제기를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다. 대학생은 성인이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 또한 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선택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논어』에서 말하는 배움의 목표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자세가 앞으로 자신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지금까지 『논어』의 ‘지(智)’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가져야 할 배움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배움은 자신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전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논어』에서 말하는 학문의 목적은 수기(修己)를 통한 치인(治人), 안인(安人)인 것이다. 즉, 사회의 지식인 계층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나 또한 학창시절에 이러한 학업의 목표 설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원하던 학과였던 성균관대 약대에 수능성적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고려대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힘들었던 공대에서의 공부도 나름 적성에 맞긴 했지만 내가 이 배움을 어떻게 활용하여 나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의문이 들었다.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잘 그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예전부터 목표로 삼았던 우리나라와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신약개발을 하겠다는 목표와 현실의 괴리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고려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성균관대 약대에 시험을 통해 입학하게 되었다.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코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면 현재 학교에서의 배움이 나의 미래에 탄탄한 밑거름이 될 것이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이며, 내가 이러한 배움을 어떻게 활용해나가야 약업계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지 생각

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꿈꾸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내가 부족한 점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배움의 자세를 지속하여 나에게도 이롭고, 사회와 우리나라의 약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전세계의 인류에게 꼭 필요한 약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나의 경우와 같이 대학생인 우리는 이미 학문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고 국가의 리더가 되어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움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동적인 배움에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나와 사회를 이롭게 할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배움의 목표와 더불어 반드시 사회의 지도층이 될 사람들로써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맹자』의 다음 구절을 보면 공자가 지식인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세상이 쇠퇴하고 도(道)가 미약해져서 부정한 학설과 포악한 행동이 일어나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가 있으며,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시해하는 자가 있었다. 공자께서 이를 두려워하여 『춘추(春秋)』를 지으셨다.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하였다.” (『맹자』, 「등문공 하」)

위의 구절을 보면 공자는 사회가 잘못된 학설과 분위기에 휘말리고 있을 때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서인 『춘추』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서의 편찬이 당대의 난신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회의 중심을 잡는 한 축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지식인 계층으로서 우리도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대중들의 흔들림이 있을 때 중심을 지키며 올바른 소리를 잘할 수 있는 책임의식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람직한 자세가 요즘 유행하던 투표인증사진과 같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투표의 의무

를 다하고 제대로 일할 정치인을 뽑기 위해 한 표, 한 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의 중심을 잘 잡아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논어』의 각 구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인 계층인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지(智)’의 자세와 학문의 목표와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배움의 기회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즐기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움에 성실히 임하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학문 수양이 필요할 것이다. 항상 삼가는 자세로 겸손하게 배움에 임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적극적인 자세로 학문의 목표를 향해 정진하다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장려상

진정한 배움에 도달하기까지...

| 글로벌경제학과

나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자. 없다. 아무 추억도 남아있지 않다. 뭐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었으면 했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저 기억이 나는 것이라고는 교실에 앉아 시험공부를 하던 기억뿐이다. 심지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희미한 잔상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아니면 숨가뼀던 대입 수험생 때였는지 구분도 잘 가질 않는다. 나는 외고에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했다. 우리 학교의 특유의 유난스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의 나의 목표 때문이었을까 나는 오로지 수능만을 바라보고 공부를 했고 시험기간을 위해 공부했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공부의 목적은 나 자신이 즐겁기 위함이나 순수한 학문에의 탐구 따위의 숭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내가 분명히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 1등급이 찍혀있는 나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마치 10만 원짜리 수표라도 되는 듯이 대단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의 모습,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자랑하는 나의 모습. 돌이켜 보면 나는 남에게 보여주고 평가받는 그 모습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다.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았고 나를 칭찬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좋

았다. 물론 나도 과목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던 적이 있었다. 다만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시험과 수능이라는 거대한 조류를 만나 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공부는 나를 4년 동안이나 괴롭히면서 쫓아다녔다. 나는 2010년, 재수를 시작했다. 재수를 시작하고 2개월 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잡은 나는 그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이렇게나 휘발성이 강한 것이 공부란 말인가? 나는 1년 동안 다시 11월의 시험을 향해 탐을 쌓기 시작했다.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사소한 부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3년의 나와 20살의 나의 각오와 공부습관, 또 공부에 대한 시각은 그대로였던 것 같다. 오로지 수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겠다는 일념. 그리고 이겨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야 말겠다는 각오가 나에게 공부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결과는 다시 패배였다. 여기까지가 내가 4년간 괴롭힘 당하고 고통스럽게 공부하던 시간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삼수를 시작했다. 재수를 하던 1년 동안 나는 절대 삼수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삼수를 하던 누나를 보면서도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던 나였다. 그런데 막상 삼수를 시작하니 또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수험생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 조그만 변화가 있었다. 그 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공부를 바라보게 됐다.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위기지학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전까지 나는 위인지학을 행하고 있었다. 스스로는 위기지학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 (『헌문』)

공자님께서 말씀 하신 『논어』의 구절이다. 삼수시절의 나는 진정으로 공부를 즐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동안 점수 올리기에 급급했던 과목들에 대해 한층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기차를 타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라 풍경을 놓쳐 버렸지만 이제는 조금하게 달리기 보다는 풍경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하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다. 과목 자체를 즐기고 느끼는 것이 이전에는 낭비라고 느껴졌고 남보다 뒤쳐진다고 느껴졌기에 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과목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첫 모의고사를 보고 신기해 했던 기억이 난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용야』)

21살의 삼수생 양승엽은 배움을 좋아하고 즐기기 시작했다. 공부에 대한 이런 관점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더 이상 수험생활이 괴롭지 않았다. 여태까지도 항상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나는 오히려 삼수를 할 때, 마음이 편했었다고 또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두렵지 않았고 후련했다. 정말 혼신을 다해 공부하고 즐겼기 때문이었으리라.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을 재미있게 해본 때였던 것 같다. 이런 1년 동안의 습관은 대학교에 와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1학년 때 동기들이 점수가 잘 나온다는 수업을 신청하느라 애를 먹었을 때 나는 거의 모든 교양을 혼자서 들었었다.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과목들을 골라 들었는데 주위에서는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있었다. 물론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수업에 들어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새로운 사실을 배워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또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대견했다.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시험문제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고민해보았던 것들을 쏟아낼까 설레었던 기억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학우들이 싫어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군대에 가서 힘들었던 후임의 생활을 거쳐 나만의 시간이 확보되었을 때 슬슬 공부를 다시 시작했었다. 그때의 상황은 『논어』가 말하고 있는 참된

배움에서 열정을 찾다

| 기계공학과

공부를 실천하기에 아주 딱 좋은 상황이었다. 시험도 없었고, 나를 밀어붙이는 상황도 없었다. 치인(治人)까지는 아니어도 수신(修身)정도는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그 동안 알고 싶었고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살면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내 주위사람들도 이런 재미를 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대에서 같이 생활하는 선 후임들과 독서클럽을 만들어 서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세션을 1주일에 한번씩 진행했었다. 처음에는 선 후임들도 ‘군대에서 무슨 공부냐, 나는 공부랑 담쌓았다’ 라고 말하면서 석연치 않아 했지만 2달 정도 지나니 취침 시간에 연등을 신청하고 책을 읽는 병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군자의 학문이란 자신을 닦는 수신(修身)이 절반이요, 나머지 절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牧民)이다.” (『목민심서』)

비록 『논어』에 수록된 말은 아니지만 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구절이다. 수신으로 시작한 공부가 나름의 목민을 행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이 공로로 부대장에게 포상휴가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공부도 습관이고 공부를 바라보는 마음가짐도 습관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지금 나는 또 청개구리 시간표를 짜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 대학을 다니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대학수업이 아니어서 실망하고 후회하는 후배들을 많이 만난다. 이제와 생각해 보면 그런 공부 또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공부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공부에 대해 무책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지금 2학기에 만나게 될 새로운 공부들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의 대학생살이, 또 나의 공부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지 궁금하다. 물론 진정한 지(智)를 찾고 즐겁게 배우려는 자세는 항상 내 곁에서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릴 적 너무나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다. 밥 먹을 때도 수학 문제를 풀고,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면서도 수학문제를 생각할 정도였다. 그의 일상은 ‘수학’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표현을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 아이가 이상했다. ‘왜 저렇게까지 수학을 좋아할까?’ 그래도 친구들은 아이를 좋아했다. 본인들이 모르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이가 그렇게 수학을 좋아했던 이유는, 모르는 문제에 대한 도전, 그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 때문이었다. 며칠을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 풀어냈을 때, 아이는 너무 행복해 정말 하늘을 나는 듯 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낼 때의 그 희열과 기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그렇게 아이는 여러 수학책도 사보고, 연구도 하며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는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수학을 사랑했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아이는 없었다. 그저 입시를 위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아이에게 고등학교는 무겁게 느

껴졌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때문이었을까. 아이는 좋아하는 수학을 따로 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그가 좋아했던 퍼즐문제, 암호, 다양한 수학정리와 증명은 수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학은 점점 좋아해서가 아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아이는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정작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매주 쏟아져 나오는 과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답지를 베껴서 제출한다. ‘이건 왜 이렇게?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스스로 문제를 고민할 시간도, 능력도 없다. 어릴 적 그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이는 길을 잃었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도 알 수가 없다.

아이는 점점 ‘배움’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배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생각만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위정」)

만약 내가 ‘배움’이란 과정을 거쳤다면, 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가치관이든 행동이든 뭐든 좋다. 그것이 무엇이든, ‘배움 이전의 나’와 ‘배움 이후의 나’는 달라야 한다. 배움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공자는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배움을 통한 ‘생각’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쳐 준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부족하거나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배우기만 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진정한 배움은 ‘배움’ 속에서 내 것이 된 ‘무엇’ 인가가 필요하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 그 힘을 두고 공자는 ‘생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배움은 ‘배움이 아

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자신이 진정한 배움에 임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해준다. 아이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진정한 배움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 배우는지도 모르는 채, 배움으로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책만 읽고 외웠다. 아이는 더 이상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걸까?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학이」)

『논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다. 학문에 대한 공자의 열정과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배움은 마치 멀리서 찾아온 친구에 대한 반가움이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기에 더 즐거운 것이다. 반면, 학문에 정진하는 자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배움 자체가 즐거운데, 친구가 찾아와 함께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정진하며 성장을 격려하는 삶. 내가 열심히 배우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배움이 있는 나 자신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내지 않는 삶이기에 배움이 더욱 즐겁다.

아이의 자신의 열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열정이, 그 불꽃의 씨가 계속 아이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더 이상 수학이 즐겁다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아이는 2년 동안 학교의 연구 프로젝트 대회를 참가했고 본인이 궁금한 수학적 현상과 사실을 탐구했다.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교내, 교외의 여러 수학 경시대회를 꾸준히 나갔다. 수학 동아리의 장을 맡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을 주제로 친구들과 활동하고, 연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친구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이를 통해 기쁨과 뿌듯함을 느껴왔다. 어쩌면 아이는 핑계를 대며 회피

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노력했었다면, 잠을 줄이든 공부하지 않으며 허비하는 시간을 줄였다면, 분명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수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수학을 사랑하고, 좋아했으니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잠시 잊었던 건 아닐까?

자료가 군자(君子)에 대해서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경(敬)으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자 자료가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시 자료가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자,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요순(堯舜)도 어렵게 여기셨다.” 고 하였다.(「헌문」)

공자는 학문의 목적이 군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군자는 안인(安人)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 지는 것. 아이는 본인도 모르는 새 ‘안인(安人)’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된 지금, 아이는 후배들을 위해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이 아는 것, 배웠던 것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 물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안인(安人)’에 많이 부족하고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재능기부’를 통해 계속해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즐거움을,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대학생활을 하는 중이다. 아이가 언제 다시 불타는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는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고 계속해서 학문을 하며 ‘군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아이의, 방황하던 21살 소년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배움의 즐거움을, 학문을 하는 이유를 깨닫고 배움에 더 열정적으로 정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어듣기, 담임선생님, 새로운 학습관

| 전기전자공학부

날씨가 쾌청한 4월 중순 어느 날 11시,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있었다. 시험이라도 보는 것인지 책상은 좌우 앞뒤 벌어져 있었고 하나같이 긴장한 얼굴이었다.

“지금부터 2009학년도 제 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윽고 1번 문제가 흘러나오고 원어민 두 명의 경쾌하고 발랄한 영어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화나누기 문제를 들으며 학생들은 필기구를 들고 번호에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다행이다.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학생들은 몸에 힘을 빼고 편안히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학생들 중 아직 긴장한 얼굴을 한 그룹이 있었다. 대략 5~6명 정도 될까. 출석번호 19번 학생과 그 뒤에 앉은 학생들이었다. 한 문제가 끝날 때마다 맨 앞에 앉은 19번은 기지개를 펴는척, 몸을 푸는척하며 손을 뒤로 하고 특정한 손짓을 한다. 그럼 뒤쪽에 앉은 학생들은 바쁘게 펜을 놀리는 것이었다. 20번 문제까지의 방송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은 뒤 감독을 하던 선생님이 교실에서 나가자 급우들은 특정 몇몇 학생에게 시험지를 들고 물려든다. 답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19

번 학생에게도 다른 급우들이 몰려온다. 그 중 두 명이 19번을 한 쪽으로 데리고 가서 속삭인다.

“고마워 석민아, 네 덕분에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아.”

어딘가 주눅이 든 모습으로 눈을 옆으로 힐끗거리며 19번이 대답했다.

“어...어, 응”

두 명은 기분이 좋다는 듯 웃으면서 말한다.

“다음에도 부탁해도 되냐?”

그 ‘다음’은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다시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의 생각을 하곤 한다. 왜 그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행위를 저질렀을까? 심지어 내 점수도 아닌 남의 점수를 위해서. 간단하다. 내가 한 공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이다.

“응, 당연하지.”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헌문」)

2학년 1반 출석번호 19번 장석민. 내 이름이다. 성적은 1학년 때부터 2등~3등을 오가는 정도였지만 공부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조용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걸면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는 좀 더 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별명을 붙이고 때리고 놀리는 등 집중적인 괴롭힘을 받아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몇 년 사이에 어려워지고 말았다. 남자가 대부분인 반에서 보충 수업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빠지면 보통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 당시의 나는 아직 그런 사회적인 기초상식을 모르고 있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지망 조사를 할 때 다른 학군의 고등학교를 적었다.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

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런 내 바람이 통했는지 부모님은 나를 차로 40분 걸리는 산 중턱의 나름 명문고라 불리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다. 확실히 학생들의 평균적인 인격, 지적 수준이 이전 학교가 속해있던 학군보다 높은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를 가던 마찬가지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팔려오는 사은품마냥 모든 학교에는 불량배와 양아치라 불리는 아이들이 있다. 나는 문제가 그렇게 잘 풀릴 리 없다고 깨닫고 멍한 상태로 1학년을 마쳤다. 그 사건은 2학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새로 편성된 2학년 1반에는 기운이 넘치는 애들이 몇 명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쉬는 시간에 담배를 몰래 피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야자를 수시로 빼는 등 전형적인 ‘일진’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연인지 뭘지 출석번호에서 모두 내 뒤에 연달아 붙은 숫자들이었다. 최대한 그들과 연관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시험을 칠 때마다 내 뒤로 그 애들을 꼬리처럼 달고 있어야 했다.

하루는 그 애들 중 나와 그나마 얼굴을 킁던 두 명이 다가와서 부탁을 했다.

“석민아, 이번 영어듣기시험 때 답 몰래 가르쳐주면 안되냐?”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았고 그 애들은 친절하게도 포박포박 천천히 말해주었다.

“그러니까, 이번 영어듣기시험에 네가 우리한테 컨닝 좀 시켜달라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너 공부 잘 하니까.”

원래 학기시작 후 말조차 쉬지 않으려는 결심이었지만, 4월 초에 갔던 수학여행에서 번호가 붙어있는지라 같은 방에서 자고 대화도 몇 번 하여 얼굴을 서로 익힌 상태였다. 그렇다고 해도 약간 알게 된 것만으로 이런 부탁을 하다니.....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때 중학교 시절 내가 당해야 했던 괴롭힘, 놀림 등 과거의 생채기가 떠오르면서 내가 부탁을 거절하면 그 애들이 날 괴롭히거나 따돌릴 거라는 제멋대로의 상상에 빠져있었다. 게다가 그 애들은 학기 시작 후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보였던 우유부단한 행동이나 태도, 성격을 파악한 후 공세에 나온 것이었다. 무거운 심정으로 승낙을 해주고 시험시간에 컨닝을 시도하여 완벽하다는 형용사를 붙여도 될 만큼 성공해버리고 말았다.

시험이 끝나고 몇 일 뒤 성적이 나왔는데, 나는 90점이었고 내 답을 베꼈던 그룹에서 96점이 나왔다. 반에서도 나와 그 애의 원래 성적을 아는 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나는 슬슬 걱정이 되었다. ‘아 이거 들키는거 아냐?’ 그 예감은 적중. 교무실로 두 명 다 불러가 1시간에 가까운 담임선생님의 심문을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 놓았고, 이번 컨닝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교무실로 소환되었다.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반에 30명이었는데, 10명이 교무실에 끌려왔다. 우리 그룹 말고도 다른 그룹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교무실에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나를 구석에 있는 상담실로 따로 데려간 담임선생님께서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왜 그랬니.”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할까. 내가 공부한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게 좋아서 그랬다고? 아니면 그 애들에게 협박 당해서? 내가 나 자신의 보신을 위한 대답을 궁리하면서 눈을 굴리자 담임선생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너 때문에 저 애들까지 패널티를 얻게 된 거야. 너는 저 애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가해자라니. 피해 의식에 젖어 있던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경거망동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생각이나 행동에 주의성이 있어야한다. 너는 개네들 부탁이 옳은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지? 그러니까 네 잘못이 0인건 아니라는 말이다.”

내게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이었다. 적어도 나에게겐 그렇게 들렸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인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한」)

아!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거니와 인자도 아니며 용기 있는 자도 아니었다. 나는 가슴 한 구석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여 나를 현명한 사람의 항목에 집어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사람을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이었을 뿐, 지(知)라는 큰 범주에서 봤을 때 나는 한낱 범인이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나를 그동안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실망했다는 걸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성적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석민이 착하니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실망이 크고 이번 건은 사안이 커서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다.”

나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앉아서 생각했다. ‘내 성적이 좋다는 오만함과 잘못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소심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는가. 부모님은 걱정을 하실 것이고, 급우들은 나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죄책감이 밀려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때 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했고 그게 표정으로 나왔는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혹시 잘못된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생각 하지마라. 그래도 너는 나은 편이다. 다른 애들을 보라 저 애들은 왜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다. 반면에 너는 최소한 반성을 하고 있어.”

“바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치는 것이 귀하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해주는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실마리를 찾는 것이 귀하다. 기뻐하기만 하고 실마리를 찾지 않으며, 따르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자한」)

하..... 그 때 나의 심정이란, 최소한 내 앞의 이 담임선생님은 나를 버

리지 않고 걱정하면서 동시에 내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선생님을 평생에 한 분이나 만날 수 있을까! 나와 연루된 아이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운동장을 계속 달리는 열차려를 부여받게 되었다. 달리기 하는 도중 몸이 힘들고 짜증났지만 마음은 편안하였다. 아니 오히려 즐겁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반에 끼친 영향은 컸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아무도 거역하려 들지 않았고, 그 해 2학년 반 평균 성적은 우리 반이 가장 높았다.

반어적이게도 나는 그 때 부정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담임선생님의 진가를 보지 못하였을 것 같다. 부모님의 교육과 학교의 틀에 박힌 교육과정 속에서는 찾지 못할 어떤 가치관 같은 것을 맞본 것이다. 내가 자연의 물질의 배열과 같은 혼돈의 상태였다면, 그 때 이후 나는 하나의 방향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계기가 필요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고 그 것을 비난하지는 못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학습관 즉 나를 위해 공부하는 법을 찾게 되었고, 공부하는 것에서 최소한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였다. 아니 즐겁지 않으면 그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도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일말의 즐거움이 느껴지는 것은 그 때 새롭게 가지게 된 마음가짐 때문이라. 3학년 수험을 치르고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면서 처음의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 때의 마음가짐은 잘 기억하고 있다. 공부를 하려면 즐거워야 하고, 즐겁지 않은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과목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든, 어려운 과목을 정복해 나가는 즐거움이든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위 기지학의 본질이라 생각하며 씩씩한 추억과 연관된 이 인생관, 학습관을 죽을 때까지는 놓지 않을 생각이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공부

– 신입생 시절의 암울했던 대학교 1학년 1학기 –

| 한문교육과

1) 장학금을 목표로 한 ‘수단’으로서의 공부

‘너 오늘도 또 학교에서 밤 새려고?’

대학교 시험기간에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나한테 자주하는 말이다.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로 유명했다. 내가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열심히 공부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였다.

이런 목표를 세운 데에는 배경이 있다. 우리 가정은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10년을 넘게 살아온 가정이었다. 어머니는 원래 직장을 가지고 계셨으나 우리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다. 그런데 연년생인 언니와 내가 함께 교육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자 집안의 경제상황이 힘들어졌다. 따라서 어머니는 40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찾아보러 다니셨다. 콜 센터 직원부터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까지...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고 또 몸

이 안 좋으셔서 쉽게 그만두시곤 하셨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셨다.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 점점 말이 없어졌다. 어머니께서는 집안일과 직장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셨다. 온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였는데 분담이 잘 되지 않거나 맡은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서로 불만을 내뱉곤 하였다. 결국 가족 구성원 서로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꼭 장학금을 타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고 가족들 간의 평화도 되찾고 싶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비싼 학비를 내가 스스로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학비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 바로 장학금을 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장학금을 목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마구 노는 친구들과 사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같이 공부하고 싶어도 다들 놀러간다고 하는 일이 많았고, 시험기간 때에는 거의 매일 학교에서 혼자 밤을 새며 친구들과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만큼 나는 절실했다.

그런데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우울해졌다. 무슨 일을 하든 기쁘지 않았다. 친구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에도 우울함을 느꼈다. 점점 약간의 우울증 증세도 나타나고 있었다. 항상 초조했다. 머릿속에는 과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서 점수를 잘 받을까,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서 중간고사를 잘 볼까 생각만 있었다.

하루는 내 생일날이었다. 친구들과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집으로 오는 지하철이었다. 그런데 내 눈에서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눈물이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수록 나의 상황이 친구들의 상황과 대조된 것이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점점 불행한 아이로 전락되었다. 친구들의 남자친구 이야기, 놀러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공부를 했더라면 우울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했기에 나는 점점 우울해 갔던 것이다.

고등학교 19년의 세월동안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꼭 참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항상 매순간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또 다른 공부의 연속이었고 그 공부를 놓아버린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자체를 목표가 아닌 장학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에 어느새 공부는 나에는 스트레스가 되어버렸다.

2) 대안학교방문

그러던 어느 날 ‘공간 민들레’라는 대안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 대안학교에 방문하게 된 계기는 사범대학 학생으로 교육학개론 수업을 받으면서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다. 사실 대안학교에 대해 평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볍게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방문하기 전 대안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대안학교를 검색하면 할수록 이 학교에 대해 더 알고싶어졌다. 특히 공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공간 민들레’라는 대안학교는 주입식이고 수동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이곳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방식이 많았는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모임’과 ‘길 찾기 활동’이었다.

소모임 제도란 학생들은 관심사에 따라 누구나 소모임을 제안하고 만들 수 있고, 길잡이교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을 소개하여 소모임을 지

원하는 제도이다. 소모임 활동에서는 일본어, 글쓰기, 기타, 영화 소모임 등과 같이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며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우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기타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서 소모임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을 안 길잡이 교사가 기타를 치는 사람을 섭외하여 아이들이 기타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뜨개질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뜨개질을 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점수를 잘 받으려고 초조해 하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아니었다. 뜨개질을 진정으로 즐기며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나를 반성하게 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체적인 배움이며 공부를 삶의 일부로 느끼며 거기에 집중하는 자세인 ‘호학(好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고 때에 맞게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도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은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나지 않으니 어찌 군자답지 않은가?” (「학이」)

이들에게 배움은 나에게 있어서의 배움의 의미와는 달랐다. 나에게 있어서의 배움은 행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배움은 ‘기쁜 배움’이었다.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했던 것이다.

한편, 길 찾기 활동이란 프로젝트 개념으로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인턴십, 그룹미팅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활동이라고 한다. 즉 ‘멘토와의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활동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어 아이들에게 그 직업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활동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게 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흥미에 맞는 공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업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있었다. 국어, 영어, 수학식의 분과형 수업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되는 수업들이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수업과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있었다. 기초 수업은 1년 과정인데 ‘말과 글, 수학’이라 칭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 학습력을 키운다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알아보는 수업을 하였다. 의사분이 오셔서 직접 신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셨다.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의 경우 어떠한가, 대학에 오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신나서 왔지만 막상 수강신청을 해보니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보다는 학점받기 쉬운 과목을 찾아가고 있었다. 1학기 때 들었던 철학과 동양사상 과목의 경우, 이 과목들에 관심도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을 배웠으니 나에게 유리하겠지, 하고 선택했었다. 그러나 흥미가 없어서 공부도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것이 학점으로 까지 연결되어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았다.

‘공간 민들레’에서는 시험이 없지만 학생들을 아예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학생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이라기 보단 매번 퀴즈를 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업을 습득했는지 소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한 학기를 끝내고 나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매우 객관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신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은 수업 때 너무 불성실했다, 또는 이런 부분은 매우 훌륭했으니 이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면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의 모습이었다. 그 곳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교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다. 선생님께 물었던 질문 중 이런 질문이 있었다. “공교육과 대안학교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은

이러했다. “대안교육은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공교육과 달리 삶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를 제일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추구했던 공부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되는 공부라 아니라 ‘공부’를 통해 삶의 진면목을 찾아가는 공부이었던 것이다.

아이들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행복해보였다. 또 신기했던 것은 아이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았을 때,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딱 단정 지어 이야기 하지 못한 친구도 있었으나 각자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 공부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힘든 것을 꼭 참으며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지만 지금 이시기에 기쁘지만은 않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고, 혹은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면 그때는 행복할까?’ 그때도 또 다른 공부의 연속일 것이고 나는 힘들어할 것이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목적을 달성 한 이후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짧으니 공부를 ‘목적’으로 만들어 공부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말이다. 공부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공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가능한 것이다.

3) 이제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공부

대안학교 방문은 ‘수단’으로 공부를 대하고 있던 나를 되돌아보게 하

였다. 그리고 암울했던 나의 1학기 생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공부를,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시험을 위한 수단으로만 대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마다 오늘은 이것을 배우고 간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올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1학기 때에 그렇게 공부를 하였지만 결국 학점은 잘 나오지 않았다. 결국 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나의 1학기 생활은 너무나 암울했다.

2학기 때에는 공부를 ‘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수강신청이었다. 수강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과목 이른바 ‘꿀 강의’를 찾기 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였다. ‘예술의 말과 생각’이라는 과목은 학점을 잘 받기 어려운 과목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과목은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대학 수업 중 얻고 깨닫는 것이 많은 수업이라고 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정말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나의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것을 즐기게 되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용야」)

『논어』의 「용야」편에 나오는 말이다. 집주에 따르면 윤돈이란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즐거워하는 자는 터득한 바가 있어서 즐거워한다.’ 라고 말이다. 공부를 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것을 삶에 적용하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2학기 때에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고,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새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그것이 학점으로 까지 연결되어 2학기 때에는 장학금도 받게 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헌문」)

남을 위해 하는 공부는, 혹은 공부를 통해 대가를 얻으려고 하며 공부한다면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나는 기쁘기 보다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다. 자신을 위해 공부하는 것(爲己之學)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부인 것이다. “옛날 학생들은 자신을 연마하여 마침내 타인을 완성하는데 이르렀지만, 요즘 학생들은 남을 의식하여 마침내 자신을 상하는데 이른다.” 위의 문장은 『논어』 구절의 집주에 나오는 정이천의 말이다.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학기 때의 나’는 공부를 ‘목적’으로 여겨 자신을 연마하여 기쁨으로 공부하여 결국 장학금까지 타는 등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학기 때의 나’는 남을 의식하여 공부하였고 공부의 기쁨도 얻지 못하고 항상 우울해 하며 나를 상하게 하였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배움이 있을 것이다. 배움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공부를 대하는 자세를 바꿀 것이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말이다.



• 장려상

지(智)에 대하여

| 문헌정보학과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하므로 자연스럽게 ‘지’하고 있는 것, 즉 ‘알고’ 있는 것을 세세히 살펴보았다. 친한 친구들의 이름이나 연락처와 같은 사사롭고 그 자체로는 가치를 발할 수 없는 지식들과 ‘타인에게 배려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와 같은 가치 있는 지식들로 구분되었다. 전자에 속하는 지식들은 스스로 가치가 될 수 없다. 예로 들었던 친구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있어도 심지어 신처럼 떠받들어도 결코 가치가 될 수 없다. 친한 친구의 연락처가 바뀌거나 친한 친구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된다면 그 지식은 순식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위해 배우는 지식들 또한 그 자체로 가치가 될 수 없는 지식들에 속한다. 사사로운 목적이 개입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거나 혹은 달성되지 않는다면, 즉 효용성이 사라지는 순간 가치가 사라진다. 여기서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지식들의 특성이 나타난다. 불변의 가치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생과 함께 죽음을 부여받고 유한성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 역시 이 불문율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으

로서 인간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유한성을 지니며 불변의 가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한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불변이라 억지를 부려도 그 개인의 유한성은 그의 지식이 불변할 수 없게 만드는 태생적 한계를 부여한다. 인간이 가진 사고는 모두 사라지므로 가치가 없는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다시 유한성에 의해 자신들의 삶을 불변의 가치로 승화시킨다. 자신들이 가진 태생적 유한성과 자연에는 맞지 않는 나약한 육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대의 인간들은 무리를 짓는다. 협력을 통해 인간은 개인이라면 해낼 수 없었을 거대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개개인의 인간이 모여 무리를 형성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부족은 협력체로서 개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여러 일들을 해낸다. 개인이 무리를 결성하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른 능력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후에 이 무리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이번이 없다면 새로운 생명도 부모와 개인의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므로 부모는 죽는다. 한 무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세대가 교체되었다. 자신들의 부모세대들의 행위를 모방하며 무리를 짓고 또 다시 협력을 통해 힘을 발휘한다. 언어가 생기기 이전의 아득한 때를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식은 처음에는 모방의 형식을 통해 전수되었을 것이다. 자식은 자연스레 협력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준다는 것을 부모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 배운다. 개인의 인간은 유한하고 지식 또한 영향을 받지만 개인이 아닌 인간사 전체를 통틀어본다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불변의 가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을 다니는 늑대들도 불변의 가치인 존재자체로 가치 있는 지식들을 내면화한 생물인가? 알다시피 인간이 아닌 동물들 중 영장류에 속하는 원숭이를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종들이 있다. 그것을 인간도 동물에 속하며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애초에 인간은 동물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부정할 수 없는 진리로 여긴다. 인간과 관련된 대부분의 근대 과학들

은 인간을 동물과 같은 반열에 두고 연구한다. 그들에 따르면 자식을 지키는 행위는 동물의 본능이다. 하찮게 여기는 동물들도 자신들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친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이를 따른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감정은 항상 불완전하고 오직 이성만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조건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감정이자 본능으로 치부한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진화론은 적자생존을 주장하며 유전적으로 환경에 적합하지 않는 생물은 도태되고 오직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아 종족을 번식시키고 현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대 사회에 적용해보자. 적자생존을 생각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력을 잃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부모를 도태자로 여기며 멸시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적자생존에 따른다면 도태된 인간을 돌보아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돌보는 인간은 지나치게 본능적이고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보살핀다. 굳이 많은 자원을 소모해가면서 죽은 부모를 위해 매장 풍습까지 이어나간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근대 서양에서 그토록 부정했던 감성이다. 가치 있는 삶이란 곧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형질을 가졌다고 해도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한 감성에 근거한다. 불쌍한 이를 보고도 마음 편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시간 인간이 가져온 고귀한 감정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불변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감정은 설득력을 얻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몇 세기만에 생겨난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온 인간의 본능적 감정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그 불변성에 회의를 갖는다. 부모를 유기하는 자식들도 생겨났고 반대로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심심찮

게 뉴스에 등장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위의 사례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러한 패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이미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난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인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는 인간은 앞서 말한 동물과 차이가 없지 않은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륜적 사건에 슬퍼하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이라면 가지는 가치가 누락되었거나 그 가치를 따르지 못할 만큼 강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느새 재물이 차지하였다.

위의 패륜적 사례들 중 부모를 부양하기에 금전적으로 벽참을 느껴 유기한 경우도 있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자식들을 돌볼 수 없어서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곧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최상의 가치라면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이 가치 있을 것이며 원래 존재하던 가치들이 돈이라는 이익에 반한다면 그것은 해악이 된다. 인류 역사의 정점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이후의 인류에게 가치란 것이 불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의 중요한 것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 인류 정신의 시험장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오직 취업의 지식을 원하고 그를 통해 안정된 수입을 주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편한 인생을 소망하고 있다. 돈이 가장 큰 가치가 된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기를 기대하며 공부를 해나간다.

나는 나의 후손들이 그런 사회에 살아가길 바라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하되 인류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잘 사는 세상에 살게 하고 싶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한다고 나에게 속삭인다. 모든 꿈과 희망과 미래는 돈과 결부되어야만 그 가치와 전망이

허용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 어두운 시대에서 작은 촛불처럼 빛나는 것은 바로 수천 년 전의 사유라고 치부되던 공자의 사상이다.

『논어』는 그의 사상이 집약된 책이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도 현재와 같은 문제가 존재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십 세기에 걸쳐진 거대한 의문이다. 현대 사회가 다시 고전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격차와 사회문제 그리고 더욱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이성적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벽에 부딪힌다. 고전은 앞서 말한 인간의 근본적인 유한성으로 인해 생긴 의문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진정한 앎을 전달한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서적과 사유들을 생각해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치 있는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앎과 배움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증거이다. 불변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앎에서 나아가 고전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를 토대로 한다. 보편적 사유란 몇몇 엘리트 집단이나 극빈층에 국한되는 사유가 아니라 모든 인간과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사유이다. 공자의 사유를 비롯하여 부처나 예수 등의 성인들이 사고들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적 인간상과 삶의 방식을 전파한다. 그와 같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종교의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다.

또한 고전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표현 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표현방식인 문자가 책으로 쓰인 모든 고전들의 소통방식이다. 고전에 필적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유한 본인에게만 귀속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자가 논어에서 실천을 항상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유도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속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말 속에서 『논어』는 실천을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각이란 경험에 비추어야 가능한 일이

다. 배운 것을 해보지도 않고 상상하는 것은 그것은 곧 망상에 가까운 행위이다. 따라서 혼자만의 깊은 사유와 배움을 통해 앎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실속이 없고 무의미해진다.

고전의 보편성과 형식을 살펴보면 깊은 사유란 순식간에 스쳐지나가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경험이란 사람을 스쳐지나가며 깨우침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사유로 재해석하고 다시 언어로 풀어내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인간의 사유와 언어인지라 완전히 글로 표현되기 어려울 뿐더러 표현되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전의 사유들이 완벽히 해석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논어』가 난해한 부분이 있음에도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유를 이어 받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시대에 맞게 해석했던 주자, 양명 등의 후대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노력이 수천 년 전에 쓰인 『논어』라는 책이 그 당시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냈다. 현대의 『논어』가 의미 있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 또한 한국 유학의 자존심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공자의 ‘지’란 깨달음이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지만 정신적인 병이나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흐려지기 마련이다. 고전이 중요한 것은 더욱 복잡해지고 적응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이자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에 있다. 진정한 앎이란 고전을 통한 인간 본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자 유한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정도이다. 취업에 대한 지식과 배움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오직 취업만을 위한 공부이다. 그것은 지독하게 나의 이익만을 좇는 배움이자 내가 속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무시하는 배움이다. 그렇게 배운 지식들이 후에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성공을 하고나면 과

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공자의 ‘지’에 대해 배우며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보았다. 앎이란 타인을 위하거나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배움은 위기지학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이자 세상 전부를 이롭게 하기 위한 수양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란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음으로서 나의 인격이 높아지는 공부이다. 나의 주변으로 이를 실천하여 동심원을 그리듯 퍼져나가서 나아가 세상 전부를 이롭게 하는 배움이다. 동심원의 중심인 내가 오직 부귀영화를 위한 지식만을 축적한다면 세상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고 실천해야하는 이유는 우리를 동물과 같은 반열에 놓는 사람들과 동물이 되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동물이 되어야만 편해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항이자 나에 대한 사랑의 발현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知)

| 화학공학부

5월 어느 월요일, 친구와 같이 하교하던 중, 친구가 살 책이 생각났다고 서점에 가자고 했다. 서점에 들어서 친구가 본 책은 온통 토익 관련 책인 토익 단어, 문법, 기출문제 등이었다. 나는 소설책은 안보냐고 물어보았으나 “요즘 소설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전공 공부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봉사활동이랑 대외 활동도 해야 하는데.”라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다.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요즘 20대들은 바쁘다. 취업을 위해 ‘9대 스펙’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부터 기존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에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추가로 포기한다는 ‘5포 세대’란 말이 유행이다. 게다가 취업률도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 점점 살기 힘들고 불안해진다는 말이 많다.

이런 불안감은 나도 자주 느낀다. 특히 제대 이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 초조해진다. 그러는 동안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공부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점점 미루게 되고, 사회가 강요하는 공부만 하다 보니 가끔은 이런 강요를 받는 것이 불행하다고 까지 느낀다. 이는 나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

다. 대학생은 취업 때문에, 고등학생은 대학입시 때문에, 중학생은 명문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심지어 초등학생도 국제중학교나 특수목적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한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8개까지 학원을 다녔다. 과목도 수학, 영어, 피아노 뿐 아니라 속독, 암산, 국어 논술, 생활 체육 등 글 쓰는 법, 계산하는 법 같이 세분화 되고 다양한 것을 배웠다. 그러나 ‘저 어린나이에 굳이 저렇게 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동시에 ‘저렇게 하루 종일 학원만 다니면 친구들과 어떻게 놀고,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는 알까? 어릴 때부터 공부와 시험만 하다보면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는 습관이 생기지 않을까?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교육받는데 익숙해지면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공자는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 하여 공부하고 익히는 것의 즐거움을 찬양했지만, 이는 요즘 같이 지식을 머릿속에 우겨넣는 방식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요즘의 배움은 “고지 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이란 문장과도 비교할 수 있다. 옛날 학자들은 인격수양 같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였는데 지금 학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뜻이다. 과거 학자들은 ‘지(知)’의 목표를 인격완성에 두었다. 수신(修身)을 통해 바른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덕으로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에 목표를 둔 것이다. 즉, 이들은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덕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경쟁, 쟁취, 승리에 목말라 있으며 사회가 그것들을 강요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고 1등부터 끝까지 줄을 세우며, 다른 친구들과 비교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향은 고등학교 때 절정을 이룬다. 대학 입시가 부쩍 가까워졌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를 내신 전쟁의 적으로 보아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학생들도 많다. 즉 나를 위한 공부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한다는 점에서 ‘위인지학(爲人之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럴수록 어린 학생들까지 메말라가고 각박해지는 것 같다. 게다가 흔히 말하는 입시를 위한 국, 영, 수 위주의 교육만 부각되다 보니 예절과 도덕,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여겨지곤 한다.

이런 인성교육의 부재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위하는 법을 배워 올바른 인격을 갖추기 시작해야 될 초등학교, 중학교시기부터 성적 경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부족해지고 감성이 메마르며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는 듯하다. 그 결과 이런 스트레스를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푸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 같다. 사실 학교 내 폭력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요즘은 친구를 괴롭히는 수단, 횡수 혹은 방법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악랄하고 교묘해졌다. 특히 스마트폰 등이 발달하면서, 괴롭힘은 학교를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특정 친구를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보내고 성희롱을 하거나, ‘페이스북’ 같이 공개된 SNS에서 ‘악플’을 다는 등 육체적 괴롭힘 뿐 아니라 정신적 괴롭힘도 늘고 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중학생들 중 약 20퍼센트가 ‘따돌림’ 위험군에 속했으며, 60퍼센트의 학생들이 교우관계가 불안정하다고 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한창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춘기 때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심지어 괴롭힘을 당해 무기력해지는 학생들이 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어린 학생들도 많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꿈으로 눈을 반짝여야 할 어린 학생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지 못하고 서열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이 참

으로 마음이 아팠고 이런 사건들이 내가 중, 고등학생일 때보다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학생들 뿐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 임신과 군대로 대표되는 남녀 간의 갈등, 대중교통의 노약자석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정치 성향 심지어 학벌에 따른 차별과 다툼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 마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은 처참히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다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 가는 것 같아 무척 슬퍼진다. 또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행복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며 이기주의 또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위를 차지하려고 다툼다면, 어찌 사회에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겠는가?

『논어』에 “성상근 습상원(性相近 習相遠)”이란 말이 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으나, 그 후의 습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얼어붙은 현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바꾸려면,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 것이다. 즉 ‘지(知)’를 바탕으로 ‘인(仁), 의(義), 예(禮)’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知) 혹은 공부라고 하면 단지 전공지식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 등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들과 같은 좋은 습관도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떤 행동과 사고방식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10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나이의 학생들은 머리로는 어떤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도덕적인지 알지만 이를 잘 실천하려고 하는 학생은 드물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 같은 주변 어른들이 이런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서울 암사동의 선사 유적으로 현장학습을 나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박물관의 유물들을 관람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햇살과 청량한 봄바람을 느끼며 근처 공터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철없는 10대였던 우리는 현장학습을 하기 전, 교실에서 현장학습 시 지켜야 할 예의와 학습 후 뒷정리에 관한 조언을 듣고 왔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뒷정리를 귀찮아했고 대충대충 쓰레기를 처리했다. 결국 가만히 지켜보시던 선생님들이 직접 나섰다. 어떤 선생님은 호랑이 같이 호통을 치셨고 어떤 선생님은 토끼 같은 눈으로 학생들을 다독이시면서 정리를 하게 유도하셨다.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옆 반의 꿈 같으셨던 화학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은 “현장학습 전 배운 것 기억하지?” 라는 말씀 뿐, 그 어떤 지시도 없으셨다. 그러나 곧 학생들 앞에서 직접 쓰레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했다. 그 효과는 실로 놀라웠다. 다른 선생님들의 질책을 잔소리로 여겼던 학생들이, 화학 선생님이 직접 자신들이 먹은 것들을 치우시는 모습을 보고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유난히 뺨질거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어느새 선생님을 도와 슬금슬금 정리를 시작했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나는 이를 계기로 ‘실천’과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느꼈다.

공자 또한 실천, 즉 행(行)을 가장 강조했다고 한다. 올바른 행동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실천을 통해 건강한 지식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천을 하고 싶으나 실천할 만한 지식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 의미도 없다. 좋은 행동을 하려면 좋은 습관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인, 의, 예’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선현이나 위인들 혹은 존경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값진 조언은 새로운 지식으로서 가슴속에,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배움의 의미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모든 공부의 초점

이 입시, 취업에만 맞춰져있고 상대적으로 자기계발과 인격수양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물론 생활자체가 빡빡하고 어려워 시간이 도저히 인격수양에 힘 쓸 시간이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틈이 좀 생기면 바로 스마트폰을 만진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좀만 지루하다 싶으면 스마트폰에 의지한다.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으로 이동 중에 혹은 잠들기 전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대신, 오늘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무례를 범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습관을 들이고 좋은 행동을 실천하자고 다짐한다면, 훗날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행동을 하는 것부터 인격수양을 위한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부끄럽게도 나 또한 이런 습관이 덜 들었다. 하지만 미약한 봄볕에 나무가 녹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듯이 건전하고 선한 지식을 익히고 작은 것이나마 실천해나가기 시작한다면, 곧 나의 노력도 아름답게 꽃 필 것이라 믿는다. 또한 꽃의 향기가 퍼지듯이 내 노력의 꽃이 만개해 은은한 향이 퍼질 때, 내 학우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올바른 사고방식과 행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우리 학우들의 선행을 후배들이 본받고 사회 전체로 좋은 기운이 퍼져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순해지고 훈훈해졌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나는 공학도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특히 화학공학도로써 대체 에너지를 연구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공부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는 나의 지식으로 세상에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요, 내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공부이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 시간을 내어 인격수양을 위한 공부를 더 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좋은 책의 좋은 글귀도 가슴속에 새기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공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추구하는 지성(知性)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 몹시 부족하면서도 필요한 것인 것 같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사

회 구성원들, 특히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대할 것인지를 자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하고 강건한 숲을 이루길 바라며, 그 숲의 뿌리가 되고 비와 햇살도 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지(知)’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장려상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픔 속에서도 배울 수 있기에 청춘이다!

| 신소재공학부

“깡! 깡!” “위이이이잉~” 때는 2013년 여름. 여기저기 떨어지는 뜨거운 땀방울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낮의 햇볕이 야속하게도 작열하는 8월의 어느 여름날이었다. 땀이 녹아버릴 것만 같은 이 더위 속에서도, 오늘도 조선소는 여기저기 요란하다.

“마! 한 조장! 숨 좀 돌리구로 쏜매만 쉬었다 하자 안하나! 와~ 자랑 같이 일하는 날은 고마 등허리가 다 꼬여뽀디!” 대부분이 어느새 중년이 꺾여가는 조원들의 원망을 가볍게 무시하고, 야속하리 만치 전기 케이블을 당겨 대는 23살의 핏덩이 조장이 바로 나왔다. 2013년 23살,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들어와서도, 대학교라는 곳은 나랑 맞지 않는다며 한 학기 만에, 호기롭게 휴학계를 내고 난 조선소로 향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일을 하며 인생을 배운 뒤, 내가 하고 싶은 뮤지컬을 할 테야!’ 취지는 좋았다. 사회에 던져지면 한없이 어리고 무지한 한 조약돌을 날선 파도에 깔고 깔아 윤기 나게 만들어 보겠다고 내 발로 그 위험천만한 현장에 몸을 던졌다. “아따~고마 일 억수로 잘하네! 니 조장해라!” 남들은 빨라야 3년 만에 붙인다는 조장 딱

지를 고작 석 달 일하고 안전모에 붙이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내 앞에 떨어진 물량은 식사시간을 반납해서라도 끝내고 하선한다!’ 갓 조장을 단 내가 세운 패기 넘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이 약속을 지켜내고자 터무니없는 물량이 주어진 날에도 나 이 50을 넘긴 형님들을 빨래 짜듯 쥐어짜내 일을 시켰다. 나 역시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물 한잔 느긋하게 마실 줄을 몰랐다. 그렇게 석 달을 일, 일, 일, 일만 외치며 살다보니, 힘차게 케이블을 깔아대던 젊은 조장은 온데 간 데 없고, 매일아침 이불속에서 골골대며 반장에게 오늘 출근 못 하는 이유를 지어내는 무책임한 조장만이 있었다. 이 쯤 되니 나 자신을 채찍질 하며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 보겠다는 초기의 취지는 이미 빛바래져 생각도 하려 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결심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꼭 해내고 만다는 천하의 한재훈이 고작 반년 만에 이 꼴이 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날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핑계 대며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이불속에서 꺼진 형광등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른 일어나라며 재촉해대는 아침 알람을 듣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고민은 종일 내 머리를 지끈 지끈 괴롭히다, 바다가 해를 집어삼키려 할 때 즈음에야 서서히 하나의 생각으로 수렴되어 갔다.

‘무지’ 바로 그것이었다. 나 하나의 신체 리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 십년 전 중학생 시절 친구 놈에게 빌려 주었던 돈의 액수는 기억 하면서, 반년 전 휴학계를 내며 나 자신과 했던 대화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무지’, 이렇게 매일 아침 근육통에 시달릴 거면서, 난 타고난 장군감 이라며, ‘몸 상한다... 가지 말아라’ 하는 부모님을 뒤로한 채 매정히 등 돌려 버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련한 ‘무지’, 바로 그것이었다. 불 꺼진 음침하고 습한 변방의 한 섬 안의 골방에서 그렇게 나름의 깨달음을 얻게 된 나는, 일주일 후 미련 없이 조선소를 박차고 나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무지’에서 시작된 이 부끄러움을 반년 가량 남은 반 토막 난 휴학기간 동안 다시 한 번 만회해 보기 위함이었다. 이 후 지금까지 나 자신을 채워보려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아온 오

늘, 난 다시 한 번 물음표를 던져본다. ‘지(智)’란 무엇일까? 주입식 교육에 절여져 영혼 없이 그저 외우고 있는, 앞서 살아간 천재들이 책 속에 기록해 놓은 수많은 학술적 정보들? 밥을 태우지 않고 고슬고슬하니 먹기 좋게 잘 만드는 기술? 아니면 내 부모님 입꼬리를 슬며시 올려줄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따스하게 덥혀진 지혜? 아직도 난 정답을 모른다. 아니, 아마 평생을 살며 갖은 절망과 환희를 경험한 후에도 그 정확한 뜻은 헤아리지 못 할 것이라. 다만 나는 지금 그 깊은 뜻을 감히 이렇게 짐작 해 본다. 지(智)란, ‘이 세상에 첫 울음소리를 토해낸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천천히 내뿜는 그 순간까지 내가 느끼고 배워온 그 모든 것들’이 아닐까. 비단 학술적 지식, 온갖 기술과 혀놀림 뿐만이 아닌, 뽀 하나, 날카로운 송곳니 하나 없는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들고 여기까지 꾸려올 수 있게 한 모든 지혜를 나는 지(智)라고 생각한다. 한 때, 이런 지(智)의 의미에 대한 오해로 열등감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온 몸이 부르르 떨리던 그때의 분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달력을 보면 어느덧 5년이 지난 일이다. 때는 2010년 10월,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던 이등병 시절이었다. 당시는 집중 정신교육 기간이라 하여, 1주일 동안의 일과가 모두 정훈과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다. 날마다 나를 앉혀놓고, 침을 튀기며 열렬히 북한을 헐뜯어대는 정훈과장의 세뇌를 듣자하면, 오랫동안 각 잡고 앉아있느라 피가 안 통해 보라색이 된 발끝에서부터 지루함이 전율을 일으키며 날 마비시켜 왔다. ‘지금 졸면 일석점초 끝나고 맞아 죽는다! 맞아 죽는다! 졸면 안 돼! 절대 안 돼!’ 머릿속으로 아무리 되뇌인들 해일처럼 몰려오는 어린 날의 졸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으랴! 누군가가 꼬집는듯 한 옆구리의 통증에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의 정훈과장은 내 명찰을 주시하고 있었고, 구석에 앉아있던 분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으락 푸르락 물들어 있었다. ‘아이고... 끝내 사고를 쳤구나...!’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내 하루 일과가 마무리 되고 역시나 나는 분대장의 호출을 받고 쫓값을 치르러 막사 옥상으로 향했다. 계단을 디디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어

찌나 두렵고 떨리던지... 꼭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된 양 죽을 상 이었다. 옥상에 올라가보니, 분대장은 분을 삭히려 담배만 뽕뽕 피워대고 있었고, 그 앞에는 나와 같이 지루함에 정신을 내줬던 다른 신참들이 상갓집에서나 볼 법한 표정들을 하고 서 있었다. “툭! 비비적 비비적...” 얼마 되지 않아 분대장의 담배는 옥상 바닥에 떨어져 군화 발에 짓이겨졌고,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다가왔다. “ 짹! 짹!” 줄 앞에서부터 따귀 맞는 소리가 귓전을 울려왔다. 사람 볼 살이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올수록 내 심장은 철렁철렁 내려앉았다. “ 짹!” 이윽고 내 옆, 옆에 서있던 동기의 고개가 맥없이 돌아갔고, 난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이라도 당직사관이 옥상 순찰을 돈다면, 나와 내 옆 동기는 살 수 있다! 부조리의 현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진 이 순간에, 순찰을 돌지 않는 간부들의 근무 태만을 격하게 원망하고 있는 그 때, “ 짹!” 느닷없이 내 옆 동기가 아닌 나의 고개가 왼쪽으로 제껴졌다. ‘이상하다!’ 옆을 보았다. 분명 순서대로라면, 지금 따귀를 맞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오른쪽의 동기였다. 허나 동기의 얼굴은 조금도 빨개지지 않은 채, 굳은 표정만을 짓고 있었다. “왜 니 동기는 안 때리고 넘어가냐는 눈치다?” 어리둥절한 내 표정을 본 분대장이 정곡을 찔렀다. “너 몰라? 재는 미국서 공부하다 온 유학파잖아, 넌 고졸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고졸...유학파...? 그게 내 동기는 넘어가고 나는 맞는 이유야...?’ 나라 지키러 온 군대에서도 고졸 소리를 들으며 천대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억울함이 솟구쳤다. “아니 분대장님, 학력이 바코드입니까? 학력이 사람 가치를 매겨줍니까? 똑같이 줄아도 유학파면 면죄부고, 고졸이면 가중처벌인 겁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분대장의 전투화가 내 정강이를 때렸다. 그날, 막사 옥상에서 난 그렇게 두어 시간을 분대장에게 얻어터졌고, 생활관에서 자고 있던 내 맞선임들마저 후임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다는 이유로 불러 와서 열차려를 받아야 했다. 실컷 분풀이를 한 분대장이 내려가고 나서, 자다가 봉변당한 맞선임들에게 재차 얻어 터진건, 말할 필요도 없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억울

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들어왔던 어른들이 말하는 ‘못 배운 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그날 맞선임들까지 다 내려간 후, 혼자 남아 옥상에서 철철 울면서 이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전역하고 죽도록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가서 저 악마 같은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 놓겠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그날의 다짐을 잊지 않은 채, 전역하는 날 군복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재수학원으로 가서 독하게 공부를 시작하였고, 7달의 시간이 지난 후 수능을 치러,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무작정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이 곧 ‘배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 했고, 주입식 교육이 내가 아는 ‘지(智)’의 전부라 믿은 채 대학교에 들어왔다. 그날의 설움이 결과 적으로는, 나의 대학 진학의 초석이 되었지만, 난 지금 이렇게 반추(反芻) 해본다. 그때의 내가 생각했던 학술적 지식이 전부인 ‘지(智)’는 과연 옳은가? 어느덧 삼년 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난 대답한다. 아니다. 명백히 아니다. 전공 서적에 쓰여 있는 지식이 『논어』에서 말하는 ‘지(智)’의 전부라면, 못 살던 시절, 교육과정을 다 밟지 못한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전부 ‘무지’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의 학문이란 자신을 닦는 수신(修身)이 절반이요, 절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牧民)이다.” (『목민심서』)

그렇다. ‘지(智)’, 즉 넓은 의미의 ‘학문(學問)’은 곧 자신을 닦는 것이 그 시작이다. 내 한 몸의 ‘수신(修身)’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미적분이며 물리학이며 하는 학술적 지식은 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논어』의 「학이」 편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생들은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히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학이』)

공자는 이와 같이 글을 배우는 것 보다, 사람됨을 배우는 것을 먼저 강조 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의 뉴스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면, 이 말들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전율하게 된다. 요즘 화제 거리는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의 범죄로 도배되고, 심지어는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 인륜을 벗어난 행위로 매스컴에 보도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과거의 학문의 정점에 올라 ‘현자’라 칭송받던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면모에서도 빛이나, 두고두고 후학의 교본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문에 이름을 남긴 저명한 학자들 중 일부는, 이 후 좋지 못한 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을 경험한다. 이는 논어에서 말하는 ‘지(智)’의 의미를 충분히 곱씹어 보지 못한 채, 학술적 지식만을 쫓아 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나 역시 어린나이에 편협한 생각에 치우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 말하며 겁 없이 부딪혔던 시간이 많았다. 그 결과, 이것저것 많은 경험에 치이며 슬픔 속에 주저앉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지(智)’의 참된 의미를 여러 번 곱씹어 보게 되었다. 가르침을 얻게 될 때 즈음을 돌이켜 보면 아프지 않은 기억이 없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무작정적인 학문을 좇는 근시가 아닌, 넓은 의미의 ‘지(智)’를 한 번이라도 더 고찰해 보지 않았는가 싶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고도 멀다. 진정한 배움의 끝은 감히 헤아려 볼 수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가 말하는 ‘지(智)’의 참 뜻은, 학계에 몸담을 자로써, 한 순간의 반성이 아닌, 항상 고찰해야하는 나 자신의 일일점검표 같은 것이다.

인간의 연구가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역사가 될 정도로 상당히 쌓인 현대사회의 학문은 참으로 깊다. 어떤 부류의 학문을 공부 하던지, 그 길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학문에 정진하다 보면 본질적인 ‘지(智)’,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닦는 것을 배우

는 공자가 말하는 ‘지(智)’를 잊고 살기 쉽다. 너도나도 학문을 쌓는데 힘쓰는 세상이다. 그 흐름에 편승하기 전에, 잠시만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 돌아 보고, 전공서적 사이에 파묻혀 있던 『논어』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비단 『논어』가 아닌 다른 책이라도, 과거의 성현들이 일컫는 ‘지(智)’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십분 이해한 뒤 학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智)’의 실천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쪽짜리 배움

| 문헌정보학과

1. 들어가며

그 치기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면 지금도 피식 웃음이 나곤 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좀 유별났다. 다른 또래들에 비해 욕심, 아니 출세 욕(?)이 좀 강했다고 할까.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도 일찍 내면화했기 때문에 성숙했던 것 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너무 늦게야 확립한 나머지 유치찬란했던 것 일수도 있겠다. 지금 그 치기 어렸던 시절을 돌아보면 - 물론 그 때의 '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존재하는 것이겠지만 - 피식 웃음이 나곤 한다.

2. 초딩, TV와의 결별을 선언하다

‘안녕-. 우리 한동안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홍천에서 춘천으로 전학을 왔다. 내 유년시절의 모든 추억이 녹아 있는 홍천을 떠나 춘천이라는 낯선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어린 내게 꽤나 큰 충격적 사건이었다. 홍천에서 내가 유지해왔던 ‘세력, 권력, 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 그 당시 홍천에서 나는 한 마디로 ‘골목대장’이었다. 나는 고삐를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많은 친구들이 나를 잘 따라주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항상 1등을 도맡아했고, 항상 반장 역할을 했으며, 항상 선생님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다. 중2때 걸릴법한 이러한 ‘중2병’을 나는 초4때 이미 겪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권력(?)의 단맛에 흠뻑 취해있는 나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아버지의 전근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은 내게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 말은 즉, 여태껏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달콤한 권력, 신임, 인기를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는 말과도 같았다. 그 당시 나는 엄청난 불안감과 걱정, 걱정에 휩싸인 채 그 모든 달콤한 것들과 강제로 이별해야 했다.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춘천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춘천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나는 지극히도 평범한 ‘애’
에 불과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도 아니었고, 친구들의 골목대장
도 아닌, 그냥 평범한 전학생이었다. 그러나 이미 권력(?)이 주는 달콤
함을 맛 본 나에게 그 달콤함의 유혹을 이길 방법은 없었다. 그렇기 때
문에 권력을 맛 본 사람은 권력을 제공하는, 그 권력의 원천에 매달리게
된다. 나 또한 권력을 되찾기 위해 그 권력의 원천을 찾아야만 했다. 이
를 위해 내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쉽게 매달릴 수 있었던 원천이 바
로 ‘공부’였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예전처럼 친구들과 선

생님의 주목을 한 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날, 나는 TV에게 작별을 고했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다. 그 당시 TV와의 작별 후,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게 찾아온 감정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복잡 미묘한 종류의 것이었다. 사실, TV에게 결별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여가 시간을 TV만 보면서 지낼 정도로 TV 보는 것을 좋아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뮤직 프로그램 등 안 챙겨보는 것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내가 이를 포기하고 이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 붓겠다는 나를 독기 어린 결심을 한 것이다. 과장되게 말해서, 그 당시 나에게 이 결심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우스트적 거래’였던 것 같다. 놀랍게도 나는 결심 이후 단 한 번도 TV를 보지 않았다. 아침 식사 할 때 간간히 보는 뉴스를 제외하고는 내 스스로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본 적이 없었다. 예전 같으면 TV를 봤을 시간에 노트를 펴 들고 숙제를 했고, 오늘 배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교과서를 펴들었다. 내 몸은 빠르게 이런 생활 패턴에 적응해나갔다. 그 결과는 꽤나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전 과목에서 단 한 문제만을 틀린,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전학생의 이 놀라운 성적은 선생님의 관심과 친구들의 인정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그 ‘달콤함’의 문턱에 다시 진입한 순간이었다.

그 이후 나는 시험 때마다 펍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 나는 친구들로부터 ‘공부 잘 하는 아이’로 통했다. 친구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찾아 들고 왔다. 나는 그때마다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곤 했다. 이들에게는 ‘나와 같은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일종의 존재감 확인과도 같은 그런 류의 느낌이었다. 비록 홍천에서처럼 모든 영역의 실권(?)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학업에 있어서 내 위치는 굳건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안도감과 안정감을 얻었다.

이러한 양상은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줄곧 계속되었다. 중학교 입학 당시에는 반배치 고사가 중학교 생활을 좌우한다는 다소 얼토당토 않은 소문 때문에 그 시험에 목을 매기도 했다. 그 시험을 위해 무려 모의고사

문제지 10권을 풀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에 대한 강박증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과는 꽤나 달랐다. 과목 수도 상당히 많아졌고, 배움의 내용이 비교적 깊어졌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모두 완벽히 섭렵하고자 나는 예습용 참고서 2권, 그리고 복습용 문제지 2권씩을 과목별로 구비했다. TV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다. TV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예습하고 복습해야 할 내용이 산더미였기 때문이다. 나는 3년 내내 이와 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 듯 반복했다. 그 결과 언제나 나는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는 이런 나를 걱정하시며 말리기까지 했다. 이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의 존재를 뚜렷하게 확립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이었다.

3. 떠밀리듯 외고에 진학하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은 내 의자에 자석이 붙어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곤 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시절, 과학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 진학붐(bum)이 한창이었다. 대학 진학에 좀 더 유리하다는 말에 너도 나도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현상이 만연했다. 그 때만 해도 내가 살던 강원도에는 외고가 없었다. 문과적 성향이 강했던 나는 과고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우연이었는지 강원도에 외고 설립 인가가 떨어졌다. 개교는 내년이라고 했다. ‘내년이면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해다. 나도 그 말로만 듣던 특목고 입시를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강원도에 외고가 설립된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자 춘천에 소재한 많은

중학교들이 들썩 거렸다. 본교의 학생을 더 많이 외고에 진학시키려는 경쟁 때문이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내게 특목고 진학을 권유하셨다. 그 때는 막연하게나마 ‘특목고에 진학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많은 친구들이 외고 입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도 시작했다. 그 특목고 입시 준비라는 거. 조금 늦게 시작한 특목고 입시 준비는 무척 힘들었다.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공부에 강했던 나에게 특목고 입시 준비는 선행 학습적 요소와 더불어 폭넓은 사고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나는 중학교 때 잘 받아놓은 내신 성적 덕분에 (다행인지, 아닌지) 내신우수자 전형으로 미리 선발되었다. ‘특목고’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나의 자존감으로 위장한 자만심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학교에서는 특목고 합격을 축하한다는 플래카드도 여기저기에 내걸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내게 합격을 축하한다고, 가셔도 잘하라고 격려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나 또한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나의 ‘외고 생활’은 시작되었다. 즐거웠던 일들도 물론 있었지만, 학업적인 측면에서 나의 외고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내 생활력, 적응력, 면역력은 제로 수준에 가까웠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것도 내게 커다란 부담이었다. 그렇지만, 그 때에 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전학을 왔을 때도 그랬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낯선 사람들. 하지만 나는 다시 그 달콤함을 쟁취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다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면학실 책장을 여러 참고서와 문제지들로 쟁여놓고 온종일 공부에 몰두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 첫 성적은 처참했다. 나는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서러웠다. 고등학교 때의 공부는 중학교 때의 공부와 확연히 달랐다. 특히 고도의 이해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력을 요구하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시험도 그에 따라 출제되었기 때문에 암기력에 강했던 나는 와장창 무너

질 수밖에 없었다. 성적이 낮다는 그 사실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량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장을 들고 외우고, 화장실도 후닥닥 뛰어 갔다오고,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수면시간도 줄여가면서 다시 공부에 매진했다. 쉬는 시간에도, 외출 시간에도 언제나 면학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들고 공부했다. 이런 내 모습에 친구들은 종종 의자에 자석이 붙은 거 아니냐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만큼 내 엉덩이는 무거웠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내 등수 또한 상위랭킹으로 접근해갔다. 친구들은 “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 엄청 많이 올랐구나!”하며 놀라움을 표했고, 선생님들께서도 “고생 많았다.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면서 격려해주셨다. 그간의 노고에 대한 벅찬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 했다. 성적이 올랐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친구들의 탄성과 선생님들의 인정에 나는 목말라하며 끝없는 갈증을 느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나의 공부 방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내 성적도 여전히 제자리였다. 그 이상을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고3이 되니 불안감은 더욱더 커졌다. 제자리걸음인 성적은 답답할 정도로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불안감 속에서 내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도로 고조되어만 갔다. 그리고 나는 결국 수능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만한 성적을 얻지 못했다.

4. 재수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다

사회 탐구 과목으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

지도

수능을 망치고 나서 내가 느낀 좌절감, 허탈감, 무력감, 절망감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처럼 몰려와 나를 마구 헤쳐어 놓는 느낌이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도 기분 좋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근 일주일 동안을 우울 속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그놈의 ‘달콤함’이었다. ‘그래, 누구나 한 번 쯤 실패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인생이다. 올 한 해 1년만 더 고생하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지극히 공허한 욕망이었다. 그러나 이 공허한 욕망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다시 연필을 쥐고, 의자에 앉아 책상과 마주했다.

재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과목 선정이었다. 매우 자신만만했던 사회탐구 역사 과목에서 큰 타격을 입은 나는 과목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선정한 과목이 바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였다.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재미’라도 있어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윤리 공부는 딱 재미있었다. 윤리를 가르쳐주시는 인터넷 강사 분도 재밌었고, 동서양의 철학을 넘나들며 여러 사상가들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굉장한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여김 없이 윤리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그 날 공부할 강의를 재생했다. 그런데 그 강의에서 강사님이 이런 멘트와 함께 강의를 시작하셨다. “『논어』의 「현문」 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현문」)

갑자기 튀어나온 한자에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지만, 유심히 강사님께 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수십 년 간 온,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배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다. 공부가 즐겁지 않은 것은 적성, 흥미, 학습방법 등과 같은 요소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공부의 의미’라는 면도 핵심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공부의 의미’는 곧 ‘삶의 의미’라고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에서, 배움을 즐거워했던 공자를 귀감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위한 공부’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수양(자아성숙과 완성)을 위해 배운다는 뜻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인데 반해, 우리 사회가 요즘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공부는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출세하기 위해 배우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인 것 같다. 전자는 자아성찰과 절차탁마를 통해 내적인 성취에 이르기 위한 공부인데, 후자는 지식을 축적하여 외적인 성취를 얻기 위한 공부다. 따라서 전자의 공부는 하면 할수록 배움이 즐겁고 기쁘며, 상벌과 남의 칭찬 및 비방에 하등 개의치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찾아가지만, 후자의 공부는 이기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며 그 결과로 인정과 안위를 얻고자 하니, 배움은 개인적 외적성취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아성숙과 인격수양이 초점이 아닌 것이다.”

평소보다 굉장히 긴 오프닝을 들으며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계 얻어맞은 것만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여태까지의 내 웅졸했던 삶이고스란히, 모조리, 만천하에 드러난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여태껏 내 삶속에서 기울였던 모든 노력, 모든 수고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생각이 일순간에 머릿속을 스치면서 온 몸에 힘이 탁 풀리는 것만 같았다.

5. 진정한 배움의 의미를 묻다

배우고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삶은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삶’을 나와 세계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일 것이요, 삶은 결국 ‘공부’라는 다소 비약적이지만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공부’라고 하는 ‘삶’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나는 며칠 동안 몸져누워 꽤 앓았다. ‘의미를 잃어버린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생각이 들고난 후, ‘그래. 딱 일주일만 힘들어하자. 이렇게 힘들어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결심하고 나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데 전념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나’하는 막막함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나 나를 일보 후퇴하게 만든 것이 『논어』의 그 구절이었듯, 나를 이보 전진하게 만든 것 또한 『논어』의 그 구절이었다.

“옛날의 학자는 자신을 위해서 했고, 지금 학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 (『선진』)

‘여태까지의 내가 ‘위인지학’의 공부를 했었다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위기지학’의 공부다.’라는 생각이 한 줄기의 빛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이 깨달음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1년이라는 긴 재수 생활 동안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는 비로소 배움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다.

6. 끝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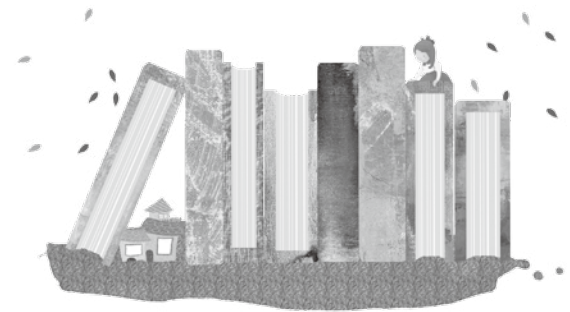
이젠 반쪽짜리 배움을 넘어설 때가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논어의 그 구절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구절 중 하나가 되었다. 반쪽짜리 배움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나를 진정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고마운 구절.

『논어』의 「용야」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용야』)

이 구절을 보면서 내게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 과거의 내가 ‘아는 자’였다면, 미래의 나는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 ‘좋아하는 자’가 된 나는 앞으로도 항상 그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더 이상 ‘반쪽짜리 배움’이 아닌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배움에 관하여

| 행정학과

『논어』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면 불역열호(不亦說乎)이다.” 이를 번역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이다. 『논어』는 가르침의 시작을 배움의 기쁨에 대해 말하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배움이란 것이 공자의 가르침처럼 즐겁기만 한 일일까? 안타깝게도 나에게 배움은 항상 즐겁게만 다가오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서 즐거움이어야 할 배움이 때때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배움이 나에게 언제 고통을 주었는지, 언제 기쁨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책은 좋았다. 그러나 교과서는 싫었다.

나는 학창시절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만화책과 소설책을 가장 좋아했고 그다음은 과학서적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과학에 관한 서적을 자주 빌려보았다. 그 내

용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단순한 과학 사실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에 관해 쉽게 정리해놓은 책이다. 내가 그 책들을 처음 빌려 간 이유는 절반 정도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믿는 허영심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책을 이해하려 하고 이해하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내 그 책을 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만 읽게 되었다. 그 책에 담겨있던 지식은 세상에 관한 설명이었다. ‘비’라는 것이 어떻게 내리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내리게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마치 내가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해주었고 언젠가는 세상에 대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배움은 배우는 것이 항상 즐겁지는 않았다. 나에게 학교에서의 배움은 썩 즐겁지만은 않았었다. 교과서는 학교에서나 펼쳐보고 숙제가 아니면 펴보지 않았다. 그 당시 나에게 교과서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그 배움이 설명하지 않고 강요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것은 설명이 아니었다. 비가 왜 내리는지가 아니라 비가 온다는 사실이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식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가 더 그 지식을 멀리했다. 그와 달리 내가 좋아했던 과학 관련 책들은 세상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설명은 설득이었고 그 설득은 흥미로웠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은 마치 내가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그 세계에 내가 속해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 ‘배움’은 매우 흥미롭고 즐거웠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은 그 배움에 대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었다.

나는 칭찬을 받기 위해 공부했다.

- 중학교 시절 공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

중학교 첫 중간고사에서 나는 꽤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전에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항상 꾸중을 들었던 나에게는 처음으로 칭찬과 격려가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주위에 관심과 애정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즐겁지도 않았다. 나에게 배움은 단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이해하고 암기하였다. 나에게는 이전과 같이 그 지식이 왜 그런지, 진짜로 그런지 이유를 찾을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러한 학업이 중학교 내내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항상 당근만 주어지지 않듯이, 주위의 관심이 항상 애정과 칭찬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 모습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하였다. ‘반항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걱정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 공부는 내게 별다른 목적도 애정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중학교 때의 학업에 대한 무관심은 고등학교의 학창시절을 괴롭게 만들었다. 고등학교 당시 모든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그 공부는 배움에 대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대학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사실 처음부터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보지도,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게 공부를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첫 모의고사, 외국어 영역시험이었다. 나는 a,b,c,d나 알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녀석들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루하고 긴 시험시간이 끝나고 친구 녀석들은 문제의 답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할 말도 없었다. 시험지에는 이런저런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나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었다. 답답했다. 소외감을 느꼈다. 그 무리에 끼지 못한 소외감은 아니었다.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나만 모르는 이야기로 대화하고 있다는 내가 다른 세계에 있다는 소

외감이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동안의 시간을 보냈고, 그 답답한 마음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가 나와 떨어져 상관없이 진행되었을 때 느낀 소외감, 그래서 내가 학업을 멀리하였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내가 배움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영어공부에 매달렸다. 그 당시 영어공부는 즐거웠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즐거움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는 즐거움이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주위에 많은 것들이 영어로 적혀있었고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많은 것들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모의고사를 한 번 더 치렀다. 다시 외국어 시험시간이 왔고, 이번에는 친구들의 문제를 푸는 모습이 아니라 시험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꽤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고 그래서인지 배운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다른 공부들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대학생의 배움? 지금은 즐거운가?

과거의 배움들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았다.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괴로웠던 적도 있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배움의 부족함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알 수 있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이전의 배움과는 달랐다. 자유로웠고 무엇을 배울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전의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는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 했다. 그러한 배움은 더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중간고사가 시작되고 엄청난 양의 시험공부를 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시험을 위한 암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시험공부는 힘들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부의 즐거움을 마음 편히 만끽하기는 힘들었다. 시험을 위한

공부는 배움을 위한 즐거움을 방해하였다. 하지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 방법은 공부를 두 번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마음 편히 학문이 주는 즐거움을 즐기고 다시 한 번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트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같은 것을 공부하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둘의 공부하는 책은 같지만, 그것의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공부 방식은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흥미를 느낀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방향이 잡히기도 한다. 그 공부는 틀에 박혀 있지 않고 자유롭다. 그에 반해 시험을 위한 공부는 시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만한 것 위주로 암기하기 편하도록 가치를 쳐내어 보기 좋은 모양새가 된다. 이러한 배움에는 질문과 흥미는 방해될 뿐이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성과를 내는 데 적합하고 지식을 쌓는데 시간도 적게 든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은 즐겁지 않다. 옛 성인들은 어떻게 즐겁게 학문을 할 수 있었을까?

옛 성인들의 배움은 무엇일까?

현대인의 배움과 옛 선조들과 성인들의 배움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나는 왜 그들처럼 즐겁게 학문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처음 든 생각은 나에게 학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적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배움에 목적 대신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는 그 목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배움에 대한 고통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인들은 배움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그 차이를 여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가 진정한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수단의 배움이 아닌, 배움의 목적을 두고 흥미를 가지는 좋아서 하는 공부야 폭넓은 사고를 가져오고 진정한 지식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는 옳지만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여유가 없다. 현대인에게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가기를 성과를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리에서 한 번쯤은 멈춰 서서 어디로 나아가는지, 배움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다시 그 무리에 섞여 나아갈지 아니면 돌아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생각된 차이는 성인들의 배움의 방향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대인의 배움은 지식의 세계를 향한 지식의 확대이다. 그리고 그 확장은 세대를 거듭하며 방대해졌고 혼자서는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인류는 분야를 나누어서 지식을 습득하고 확대된 지식의 끝에 가서 그 지식을 조금씩 더 확장해 다음 세대에 전했다. 이러한 지식의 확장은 세계에 대한 방대한 이해를 가져왔고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분야의 지식을 모두 습득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배움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다. 아주 친절한 설명서와 같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보고 의문 없이, 완전한 이해 없이도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들의 배움의 방향은 외부로의 확장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내면으로 향하는 침전이다. 세계가 이미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성찰은 설명서를 들고 해결할 수가 없다. 자신만의 의문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아를 만나게 된다. 즉 성인들의 배움은 세계를 향해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나아가는,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다. 물론 현대인들도 인간에 대해 탐구한다.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의학 등 등 그러나 이것들은 성인들의 내면을 탐구와는 다르다. 이것들은 우리

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계 밖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밖에 놓고 그것에 대해 분석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움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지식의 밖을 향한 확장이다. 이러한 앎은 우리가 원숭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성인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아를 만난 것과 달리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서 자아를 만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여도 정작 자신에 대한 이해는 결여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여는 세계와 인간을 분리시키고 그 분리 속에서 소외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을 향한 배움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의 배움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운다. 그것이 학문이 아니어도 주위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에게까지 배운다. 나의 지난 배움들은 즐거웠던 적도 있고 괴로웠던 적도 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나에게서는 세계와 나의 소외감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다. 배움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로 그 둘을 잇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배움들은 나에 대한 물음들이 부족하였다. 나라는 기반 없이 세계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래서 그 배움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배움들이 단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앞으로는 내면을 향한 의문들을 던져 볼 수 있는 배움들도 같이 병행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찾은 거야! -

| 기계공학부

열 살, 부모님께서 이혼하고 나와 동생, 엄마가 같이 살기 시작한 나이이다. 친구들이 철없이 놀고, 행동할 때 너무도 힘든 일을 겪었고, 그때부터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은 “장남이니까 믿는다.”, “장남이니까 동생을 잘 보살펴라.”였다. 언제나 ‘장남이니까’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은 어린 나에게서는 정말 큰 부담이었다. 물론 집안 사정이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빠의 몫까지 엄마와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중학교에 가게 된 후 바뀌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했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니 친구들에 비해 잘해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중학교 2학년 즈음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수상도 몇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때부터 진지하게 프로게이머가 하고 싶어졌다.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정도 나이대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TV에 나오는 연예인, 프로게이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실제로 프로게이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

회를 나가 내 능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하지만 대회 전날 그 계획이 산산이 무너졌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그걸들은 선생님이 엄마와 상담을 했고, 대회 전날 엄마는 내게 말했다. “너 그딴 판따라 같은거 해서 뭐먹고 살래?”.

학교 선생님이요, 약간은 보수적이기도 한 엄마에게 프로그래머란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능성 있는 직업인가에 대해 납득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거의 최상위권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아예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화를 냈다. 그때부터 내가 가졌던 부담은 불만이 되었다.

친구들이 많았고, 물론 그중에는 속된말로 ‘잘 노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재미도 있고, 잘 노는 내가 자기들 무리에 끼는 것을 반갑게 여겼고, 그런 친구들과 놀면서부터 조금씩 빠져버렸다. 잘 노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술도 마시고, 밤을 새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는 더욱 떨어져졌고, 그에 대해 불만을 느껴 가출도 했었다.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놀다보니 고등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되고나서 엄마가 새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되고, 그때 나는 거의 비행청소년의 완전체가 되어갔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엄마가 쓰러졌다. 엄마 입장에서조차 아빠와 이혼한 일은 큰 스트레스였고, 나와 동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였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진단해보니 갑상선 암이었다. 무리하게 강연하고, 단 한 번도 학교를 쉬 적이 없던 엄마가 쓰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항상 내 앞에서는 당당하고, 없는 아빠 뒤편까지 듬직하게 우리를 보살펴주던 엄마가 쓰러졌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철없이 반항하고, 한동안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했다는 자책감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질렀던 불효를 만회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시 놓았던 공부를 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엄마

는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였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엄마와 싸우는 일이 없어졌고, 떨어져졌다고 생각했던 내가 다시 공부를 잡았다는 생각에 엄마와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다. 물론 재미도 없고, 하기 싫었지만 엄마에게 보여 지기 위해 공부를 하였다. 나는 다시 엄마에게 ‘장남’이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2학년 때 전공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성적에 맞춰 좋은 과를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게 기계공학과에 오게 되었다. 흔히들 기계공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취직이 잘되기 때문에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내가 기계를 전공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3학년은 달랐다. 학교 친구들은 세부전공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었고, 심지어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때부터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했다. 거기서 부터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취직해서 남들처럼 살기도 싫었다. 애초에 공부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고, 흥미도 없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저학년 때 까지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도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다. 이미 너무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갑자기 예전에 접었던 프로그래머에 대한 꿈을 다시 펼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다.

“어찌할까, 어찌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위령공」)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未如之何也已矣)

‘어찌할까, 어찌할까’ 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잘 나타낸 말 같다. 정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아마...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중에 가장 낮을 정도였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다.”

(「위령공」) (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

주변의 환경만을 탓하고, 진짜 잘못은 나에게 있었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 어울리는 말 인 것 같다. 그때까지의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열악한 환경이나 나에게 지어진 부담에 대한 불만만을 말했었다. 또한 대학교에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니야, 너무 많이 와서 돌이킬 수 없어’라 말하며 주변 환경을 탓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열심히 하는 정도로는 메워지지 않는 거리감이 계속해서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여름방학 때 에티오피아로 10일정도 봉사 가게 되었다. 가서 처음 했던 생각은 ‘정말 이런 곳에서도 살 수 있어?’였다. 물도 나오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불편했다.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아이들을 돌보며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다. 모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머리에 파리가 앉아있고, 입속에 들어가도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먹고, 그 마저도 힘들어서 며칠을 굶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모두 밝았다. 내가 말을 걸어주면 천진난만하게 웃고, 부끄러워하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내가 말을 걸어주었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 아이들은 내가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나, 색연필로 같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손이 더럽다고 팔을 잡으라고 했었다)과 같은 소소한 것에도 행복해 했다.

한국에 돌아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철없게 떼쓰며 사치를 부렸던 내가 부끄러웠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공부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게 되었다. 작곡, 피아노, 보컬, 발명과 같이 학교 수업과 크게 관련 없지만 내가 흥

미를 가졌던 일들 뿐 아니라 다른 과의 수업도 청강해보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는 도중에 아는 형들이 학교에서 주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냈던 주제가 선정되었고, 그렇게 그 계기가 내 삶의 또 하나의 반환점이 되었다.

연구는 거의 1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작업을 맡았고, 연구의 대부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거의 내가 주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때 태어나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프로그래밍이 재밌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연구를 거의 혼자서 완성시키고, 그 분야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연구 성과가 잘 나오게 되었고, 교내와 교외에서 입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감이 붙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로 중학교 때 내가 느꼈던 기분이었다. 하지만 공대 학부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의 ‘나’가 되었다.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배우는 자들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현문」)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자신을 위해 공부했다는 말은 자기의 수양을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다는 의미라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었다. 심지어 ‘성균관 대학교’라는 좋은 대학에 올 정도의 공부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남에게 보여 지기 위한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공부만을 해왔다. 사실 고등학교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목표가 없었고, 그저 남에게 보였을 때 지지 않기 위한 공부만을 해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 대학에 지원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또 항상 학점이나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지만 1등을 한 적은 별로 없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 (『용야』)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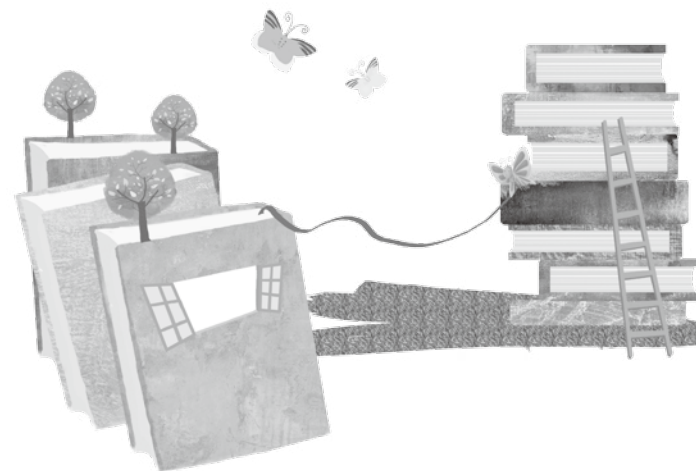
「용야」 18편에 나오는 말처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었다. 위에서 ‘아는 자’는 정말 과거의 나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하기도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고, 피상적인 지식들만 받아들이는, 배우는 것이 아닌 지식의 습득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생겼다. 목표가 생기고 나니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겼고, 공부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나니 그와 관련된 전공 지식들이 필요했다. 차근차근 공부하고 목표를 조금씩 달성하고 나니 재미있었다. 처음으로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공 지식들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나는 ‘좋아하는 자’가 되었다. 아직은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최종적으로는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어』에서 말하는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 뿐 아니라, 지식을 배우고, 연구하고, 진리를 밝히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지’를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제대로 된 ‘지’를 지향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군자’가 되는 것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 인의예지나 인간 본성의 실현은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가 우러러 보는 성인군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일단 나

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과거에 있던 작은 일에 집착했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군대에 있을 것이고,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취업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런 삶을 살았다면 50대, 60대가 된 나에게 “지금까지 뭐 했니?”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하! 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를 위해 살았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위기지학(爲己之學)에서 위타지학(爲他之學)으로

-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

| 전자전기공학부

공자 왈,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학문을 하였으나, 오늘 날은 남을 위해 한다.” 공자는 약 2,500년 전에 자신을 위한 공부 ‘위기지학’이 아닌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위타지학’ 세태를 보며 안타깝게 한 말이다. 공자에게 지(知)란 자신을 깨닫고, 이 삶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2,500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공부란 그저 ㅁ삶의 출세를 위한 도구에 한정되어 오직 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다.

우리는 학생 때부터 늘 수단으로써의 공부만을 배워왔고, 주입식 교육을 통해 ‘지혜’가 아닌 ‘지식’만을 머릿속에 채워 넣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식’을 배우는 것조차 본인의 의사가 아닐 때가 많다는 점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독친(毒親)’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생은 공부가 너무나 싫지만 부모의 기대나 강요에 치여 공부를 하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아 자살을 하거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운이 좋아, 결과가 좋고 대학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학 성적에 대해서도 부모가 학교에 와 참견하고, 심지어는 취직을 한 뒤에

도 부모가 함께 간섭해서 일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세태도 문제이지만, 사실 그 공부를 하는 본인에게는 정말 공부가 지옥 같을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고3을 보자. 오직 대학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위해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물론 공부를 오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건 좋은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하는 그 본인은 즐겁지가 않다. 오히려 괴롭고, 정말 억지로 억지로 참아내며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가장 근본된 것은 공부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다. ‘왜 공부를 하며,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 가’가 모든 것의 이유이자 근본임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을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학생들의 수가 허다하다. 공부는 본디 즐거운 것이다. 공부가 즐겁다고 하면 오늘 날의 학생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죽지 못해 참고 했던 공부가 즐겁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공자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 그가 말했던 공부는 학문을 통해 자신에 대해 깨닫게 되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 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고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잘못된 점은 고쳐가고 새로운 것은 익히니 너무나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지식적인 공부가 아닌 삶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부란 책상에서 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길에서 웃어른들께 예를 다하며, 친구와는 우애를, 아랫사람에게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 공부이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반성하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다. 사람은 깨닫거나 감동 받을 때, 모르핀보다 1백배 정도 강한 엔드로핀이 몸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에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고 엄청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도 알고, 삶의 이치도 알며, 하늘의 이치까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인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말했듯, 기(器, 그릇)가 되는 것이 해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의 삶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다만 그 동기와 목적이 올바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공자는 이러한 것을 인(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의 자세는 ‘위인지학’에서 ‘위기지학’이 되고, 또 ‘위기지학’을 넘어 ‘위타지학’이 되어야 한다. ‘위타지학(爲他之學)’이란 “자신을 위한 공부를 넘어, 남을 이롭게, 또 만물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배워서 남 주자’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자의 푸념이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여행을 가서, 최고의 경치에 최고의 숙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아마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 행복이 작을 것이다. 반면에 그 숙소와 경치는 비록 조금 좋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행복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공자가 말했던 바와 같이, 인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삶의 이치를 깨달으면 수신하게 되고, 제가하며, 치국하고 평천하하게 된다. 삶의 자세와 방향이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득도다조 실도파조(得道多助 失道寡助)”라고 했다. “도리에 맞으면 도움이 많고, 도리에 어긋나면 도움이 적다”는 말이다. 군자는 따르는 사람이 많은 법이다. 위타지학이 남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로우며, 인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한 바 있다.

공자는 나이 오십에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하

늘에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본인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우나 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태어나는 시작부터, 살아가는 동안 심장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맡겨져 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하늘로부터 대가 없이 받았다. 하늘의 해를 통해 빛을 받고, 만물을 자라게 하는 비와 숨을 쉬는 공기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 그러니, 남에게도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자는 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늘에게 받은 대가 없는 사랑으로 만물을 남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가에서 말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할 것이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다. 이는 화(和)를 중요시 했던 공자의 사상과 같이 만물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공부의 목적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다. 먼저는 나를 위해 나를 완성해가는 공부가 되어야 하고(위기지학, 爲己之學), 나를 완성해 가며 남을 이롭게 하는(위타지학, 爲他之學) 공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仁)과 지(和)를 바탕으로 기(器)를 성실히 익히면(시습, 時習) 만물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 공자가 말하는 군자(君子)가 되어가는 것이다. 또한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代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결과는 하늘에게 맡기는 것이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다”고 한 것과 같이 사람이 이토록 정성을 다해 반성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하늘의 뜻을 이루면 하늘도 이러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고로 지(知)의 자세와 목표는 이와 같아야 한다.

발 행 일 2015년 7월

기획 · 편집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성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호암관 2층 50217A

전 화 02) 760-0165~6

- 본 수상작 모음집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성균인성교육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본 수상작 모음집은 성균인성교육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